

박 사 학 위 논 문

吳慶錫의 韓中 交流 研究

-『中土簡牘帖』을 中心으로-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이 문 호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후수

吳慶錫의 韓中 交流 研究

-『中士簡牘帖』을 中心으로-

Studies on cultural, material and socio-political
communications of Oh Kyungsuk with Chinese scholars in the
mid and late 19 century : Based on 『Zhongshijiandutie』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이 문 호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후수

吳慶錫의 韓中 交流 研究

-『中土簡牘帖』을 中心으로-

Studies on cultural, material and socio-political
communications of Oh Kyungsuk with Chinese scholars in the
mid and late 19 century : Based on 『Zhongshijiandutie』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국 문 학 전 공

이 문 호

이문호의 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吳慶錫의 韓中 交流 研究

-『中士簡牘帖』을 中心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국문학전공
이 문 호

본 논문은 『中士簡牘帖』에 실린 吳慶錫(1831~1879)과 43명의 청나라 漢人 엘리트들의 20여년에 걸친, 277통 서신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말기 걸출한 역관 오경석의 삶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청나라와 조선 두 나라 사이에서의 그의 탁월한 외교적 역할을 밝혀보았다.

본 논문은 크게 오경석의 청나라 漢人 中士들과의 비정치적인 교류와 정치 외교적인 교류 두 가지로 나뉜다. 비정치적인 교류는 친분이 있는 다양한 계층 인사들과의 書畫 · 金石 · 印章 · 人蔘 · 骨董品 등 교류이다. 수 십 여년에 걸친 이러한 비정치적 교류는 일개 역관이었던 오경석이 본연의 직책을 넘어서 외교관의 역할까지 충당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된다. 이는 1861년 이후 오경석과 친분이 깊던 많은 漢人들이 청나라의 慈禧太后的 '漢人重用政策'에 의해 새롭게 정치 · 군사의 前面에 나서면서 기인한다. 오경석은 자연스럽게 청나라 정치에 연이 닿게 되고 지인들로부터 고급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고급 정보는 조선의 國益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1866년 프랑스 동양 함대가 대포를 끌고 와 조선의 문호를 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오경석은 예전에 북경에서 교류했던 王軒 · 萬靑藜 등 漢人 중사들로부터 프랑스의 침략시도에 대한 군사정보를 얻게 되며, 이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선에

알려 대원군이 프랑스 침략시도에 맞서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 청나라와 조선의 밀접한 정치외교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오경석의 외교관 역할은 당시 조선의 國益에 커다란 有益을 주었다.

본 논문은 역관 오경석의 朝鮮史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 영향을 재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19세기 중엽의 韓·中 엘리트들의 문화·물질·사회·정치적 교류의 실태를 밝히며 단면적으로 당시의 청나라와 조선의 정치적·군사적 외교관계를 알리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주요어】 吳慶錫, 李尙迪, 朝鮮末期, 中人, 譯官, 外交官, 『中土簡牘帖』, 〈天竹齋圖〉, 金石學, 印章, 人蔘, 書店, 飯店, 中土, 韓土, 청나라, 慈禧太后, 漢人重用政策.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사 검토와 문제제기	1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4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II. 吳慶錫의 生涯와 著述	7
2.1 오경석의 생애	7
2.2 오경석의 저술	10
III. 『中士簡牘帖』의 서지적 의의와 구성	13
3.1 『중사간독첩』의 서지적 의의	13
3.2 『중사간독첩』의 구성	13
IV. 『中士簡牘帖』에 보이는 中士의 履歷	18
V. 『中士簡牘帖』에 보이는 中士와의 교류 내용	38
5.1 書畫	38
5.2 金石	56
5.3 印章	71
5.4 人蔘	83

5.5 交易 狀況	95
5.6 交流 場所	110
5.6.1 書店	110
5.6.2 人蔘局	115
5.6.3 中土의 집	120
5.6.4 祠堂	124
5.6.5 飯店	125
 VI. 慈禧太后的 垂簾聽政으로 인한 '漢人重用政策'과 吳慶錫의 역할	130
6.1 시대적 배경	130
6.2 자희태후의 수렴청정으로 인한 '한인중용정책'	137
6.3 오경석의 역할 -'역관을 넘어선 외교관'-	148
 VII. 결 론	157
 참고문헌	161
 ABSTRACT	164

표 목 차

〈표 1〉 각 책별 서신 수록 양상	14
〈표 2〉 中士들이 보내온 서신 개수에 따른 배열	16
〈표 3〉 籍貫·科擧·官職·特長·備註에 근거해 정리한 中士들의 履歷	31
〈표 4〉 中士들의 출신지역 분포 양상	34
〈표 5〉 中士들의 과거급제 여부	35

I. 서 론

1.1 연구사 검토와 문제제기

吳慶錫은 劉鴻基 · 朴珪壽와 함께 한국 개화사상의 비조로 알려져 있다. 그는 12차례의¹⁾ 북경 사행을 통해 그 당시 소위 말하는 新書²⁾와 세계지도를 구입해 왔다. 이 같은 자료들은 당시 조선³⁾ 양반 자제들의 개화사상 교육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신생역량의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오경석을 개화사상의 비조라고 제일 처음 정의 내린 연구자는 신용하이다. 신용하는 오경석의 친손자인 吳一龍과 吳一六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증언과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오경석의 유물을 토대로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이라는 논문을 1985년에 발표했다. 이 논문의 중심논제가 바로 '오경석은 개화사상의 비조'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오경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오경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신용하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신용하

-
- 1) 1853년 4월~1875년 3월까지, '吳慶錫은 13차례 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신용하(1985, pp.132~133)의 견해이다. 신용하는 『中士簡牘帖』·『韓齋雅集帖』·『哲宗實錄』·『高宗實錄』·『吳慶錫·吳世昌年譜』 등 자료에 근거하여 오경석의 사행 차수가 13차례임을 증명하였다. 반면 吳慶錫이 12차례 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김현권(2011, p.218)의 견해이다. 김현권은 『中士簡牘帖』·『敦夙好齋詩集(葉名澧)』·『韓客詩存(董文煥)』·『微尚齋詩集(馮志沂)』·『硯樵山房日記(董文煥)』·『同文彙考』·『吳慶錫·吳世昌年譜』·『承政院日記』 등 자료에 근거하여 오경석의 사행 차수가 12차례임을 증명하였다. 신용하와 김현권의 견해를 보면 오경석의 사행 기간(1853~1875)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오경석의 8차례의 사행 시간에 대한 고증은 같으나, 나머지 사행 시간에 대한 고증에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행 시간에 대한 고증이 같은 8차례는 다음과 같다. <①1855.10~1856.2 ②1856.10~1857.3 ③1857.10~1858.3 ④1862.10~1863.4 ⑤1868.윤4~1868.8 ⑥1872.7~1872.12 ⑦1873.10~1874.3 ⑧1874.10~1875.3> 이와 같은 8차례의 사행 시간에 대한 고증을 보면 신용하와 김현권의 견해는 모두 같다. 신용하는 5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오경석의 사행 차수를 고증하였고, 김현권은 8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오경석의 사행 차수를 고증하였다. 자료의 인용을 보면 김현권은 신용하가 이용한 자료의 기초 위에 여러 청나라 인사들의 개인 저서들을 추가 인용하였기에 고증 면에서 고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吳慶錫의 사행차수는 12차례이다'라는 김현권의 주장을 따르고자 한다.
- 2) 신용하의 논문(1985, p.147.)에 의하면 "오경석은 1858년까지 4차례나 北京을 다녀왔는데, 이 때마다 新書 구입을 추가하여 『海國圖志』 『瀛環志略』 『博物新編』 『粵匪紀略』 등의 중요한 新書는 이 기간에 거의 모두 오경석에 의하여 구입되고 讀破되었다고 추정된다."라고 하였다.
- 3) 조선(朝鮮) : 본 논문에서 '朝鮮'이라는 단어는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를 가리킨다.

의 논문을 보면 많은 자료를 인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그의 논문에서 『中士簡牘帖』⁴⁾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용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오경석에 대한 연구는 침체된 듯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다 2011년에 김현권이 「吳慶錫과 淸 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오경석의 한중회화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⁵⁾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오경석이 남긴 한중회화교류의 성격을 정리하면 개화사상가와 연결된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김정희파의 한중회화교류를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 그가 서화수장가이자 청 회화의 수요자로서 북경의 서화시장과 접촉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의 한중회화교류는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근대적 성격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⁶⁾라는 것이 김현권의 주장이다. 그의 논문을 보면 김현권 역시 『중사간독첩』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현재까지 오경석에 대한 연구는 신용하와 김현권의 논문⁷⁾ 두 편뿐이며, 두 편 모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다. 오경석을 연구한 학위논문은 아직까지 없다. 신용하 논문의 핵심이 정치적 방면의 시도였다면, 김현권의 논문은 문화적 방면에 대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두 연구자의 접근방식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연구한 대상은 모두 오경석의 『중사간독첩』이다. 왜냐하면 오경석의 행적을 알아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료가 『중사간독첩』이기 때문이다. 이 『중사간독첩』은 현재 '예술의전당'에 소장

4) 『중사간독첩(中士簡牘帖)』: 『中士簡牘帖』은 원래 이름이 없었다. 그것에 최초로 이름을 지어준 이가 바로 신용하이다. 신용하(1985,p.132)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吳世昌은 中國人들이 北京에서 吳慶錫에게 보낸 편지 292통을 表題없이 7개의 書簡帖으로 製冊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이를 편의상 《燕京書簡帖》이라는 이름을 붙여 資料로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中士簡牘帖』의 처음 이름은 『燕京書簡帖』이었다. 그 후 2004년 오경석의 친 손자인 吳一六이 『燕京書簡帖』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기증한다. 이로부터 『燕京書簡帖』의 이름은 『中士簡牘帖』으로 바뀌게 된다. 김현권(2011)도 논문에서 『中士簡牘帖』을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름을 『淸士簡牘帖』이라고 달리 명명하였다. 동일한 자료에 『燕京書簡帖』·『中士簡牘帖』·『淸士簡牘帖』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3가지 이름 가운데서도 『中士簡牘帖』이라는 이름이 학계를 비롯하여 대중들 속에 널리 알려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서술과 이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도 『中士簡牘帖』이라는 이름을 택하기로 한다.

5) 김현권.(2011)."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 (37),p.234.

6) 김현권.(2011)."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 (37),pp.234-235.

7) 신용하.(1985)."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107-187.

김현권.(2011)."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 (37),213-237.

되어 있다. 이 책은 오경석이 1853년 처음 사행을 시작해서부터 그의 생이 끝나기 몇 해 전까지 북경에서 교류했던 中士⁸⁾들이 韓士⁹⁾ 오경석에게 보내 온 서신들을 묶어 놓은 서간첩이다. 모두 7책으로 표구되어 있는데, 보관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그리고 활자체로 재편성되어 발간한 것이 아니라, 원문 서신 그대로를 표구한 것이다.¹⁰⁾

원문 대부분이 行書 혹은 草書로 되어 있기에 해독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은 물론, 『중사간독첩』 원본이 현재 예술의전당에 보관되어 있어 자료 접근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까닭으로 오경석 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신용하와 김현권은 모두 『중사간독첩』의 내용을 가지고 오경석을 연구했다. 그들이 오경석 연구에 있어 이루어낸 성과는 매우 크다. 신용하는 오경석의 한중정치교류에 대해 언급하였고, 김현권은 오경석의 한중회화교류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두 학자가 이루어낸 훌륭한 연구업적은 필자가 본 논문을 집필하는 데 있어 든실한 이론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다만 아직까지 북경에서 진행되었던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 미진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김현권이 언급한 오경석의 한중회화교류 외에 또 어떤 교류가 진행되었을까? 그리고 신용하의 논문¹¹⁾에 의하면 1866년 丙寅洋擾 때, 친하게 지내던 중사들이 오경석에게 제공해 준 효과적인 대책이 당시 조선이 프랑스 침략군을 물리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중사들이 오경석에게 효과적인 대책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역관 오경석이 어찌하여 당시에 실무 외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8) 중사(中士) : 본 논문에서의 '中士'라는 단어는 '中國人士'의 줄임말이다. 논문에서 '中士'가 가리키는 대상은 당시 청나라 인사를 말한다.

9) 한사(韓士) : 본 논문에서의 '韓士'라는 단어는 '韓國人士'의 줄임말이다. 논문에서 '韓士'가 가리키는 대상은 당시 조선 인사를 말한다.

10) 2012년 10월 5일, 필자는 한성대학교 정후수 · 신경숙 교수님과 함께 예술의전당에 가서 『중사간독첩』 원본을 보았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분께 오경석을 연구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중사간독첩』 원본을 보여줄 것을 懇請하였다. 결국 관계자분의 허락과 감독 하에 필자 일행은 단지 가까이에서 『중사간독첩』 원본을 볼 수만 있었다. 본 논문이 더 완벽해 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정후수 · 신경숙 두 분 교수님과 예술의전당 관계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甚 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11)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175.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같은 의문의 제기는 오경석 연구에서 드러난 미흡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그 의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으며, 친분 있던 중사들이 오경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나아가 오경석이 어찌하여 역관의 신분을 넘어 걸출한 외교관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12차례의 사행을 통해 오경석은 많은 중사들과 교유하였다. 오경석은 사적으로 중사들과 書畫 · 金石 · 印章 · 人蔘 · 骨董品을 둘러싸고 폭 넓은 교류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사간독첩』을 통해 이 같은 교류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만 있다면, 당시 중사와 오경석 사이에서 발생한 진실한 역사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오경석 사행 당시 청나라는 동방의 覇者로 자칭하였으나, 산업혁명을 거친 서구열강들 앞에선 매번 힘없이 무너졌다. 오경석은 무너져가는 청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에 곧 닥쳐올 재난을 누구보다도 먼저 감지했다. 극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오경석은 자신이 맡은 역관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 왔던 인맥을 충분히 발휘하여 외교관으로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맹활약했다. 이는 오경석의 인품과 뛰어난 재능, 원만한 인간관계와 민첩한 관찰력 등 복합적 요소의 작용 하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오경석은 스스로 실무 외교관이 되었다.'¹²⁾라는 신용하의 탁월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왜 오경석이 역관을 넘어 걸출한 외교관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본 논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오경석 연구에 있어서 작은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187.

오경석에 대한 평가에서 '오경석은 외교관 역할을 했다'라는 관점보다는 '오경석은 조선말기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걸출한 외교관이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데 또 다른 연구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오경석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도우며, 기존 연구를 확충 보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위에서 언급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자는 북경에서의 오경석의 종적을 전면적으로 담고 있는 『중사간독첩』을 집중 연구했다.

『중사간독첩』은 오경석의 아들인 吳世昌이 청나라 인사들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서신들을 7책으로 정리해 놓은 서간첩이다. 오경석의 친손자인 吳一六이 그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2004년에 예술의전당에 기증하였다.

필자가 『중사간독첩』을 대상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도교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도교수는 2006년 경 신용하의 도움으로 『중사간독첩』 복사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사간독첩』 복사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¹³⁾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문 제2장에서는 먼저 신용하의 논문¹⁴⁾에 근거하여, 오경석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중사간독첩』의 서지적 의의와 구성을, 제4장에서는 『중사간독첩』에 보이는 중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당시 오경석이 북경에서 어떤 부류의 중사들과 교류를 진행했는가를 검토하겠다. 제5장에서는 『중사간독첩』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북경에서 오경석은 중사들과 주로 書畵 · 金石 ·

13) 『중사간독첩』을 보면 대부분 行書 혹은 草書로 되어 있기에 원문 해독에 있어 많은 곤란이 있었다. 2010년 11월 필자가 처음 『중사간독첩』 복사본을 접한 후로부터 2012년 11월까지, 근 2년에 걸쳐 지도교수님과 함께 『중사간독첩』에 대한 해독작업을 진행하였다.

14)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107-187.

印章 · 人蔘 · 骨董品 등을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 같은 교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교류 양상을 주제별로 나누어 각 소절에서 다루겠다. 이를 통해 당시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가 사적인 교류인지, 아니면 공적인 교류인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학술적인 교류인지, 예술적인 교류인지, 정치적인 교류인지도 알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오경석이 어떻게 역관의 신분을 넘어 걸출한 외교관으로 탄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吳慶錫의 生涯와 著述

2.1 오경석의 생애

오경석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人 중 한 사람인 吳世昌의 부친이다. 신용하의 논문¹⁵⁾에서 이미 오경석의 생애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기에, 필자는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아래에 자료로 인용하겠다.

吳慶錫은 1831년(純祖 31년)음력 1월 21일(양력 3월 5일) 서울 中部의 長橋洞(당시의 속명 시궁골)에서 漢譯官이며 知中樞府事의 지위를 지낸 吳膺賢의 5남 1녀 중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吳慶錫의 본관은 海州이며, 字는 元柅이었고, 號는 처음에는 鎮齋라고 했다가 中國에 여행할 무렵부터 亦梅, 野梅, 逸梅라고 썼는데, 亦梅가 널리 쓰이었다. 堂號는 天竹齋였다. …… 吳慶錫은 어려서 家塾에서 공부할 때부터 元의 畫家 吳鎮(1280~1354)을 崇慕하였다. 吳鎮은 元나라 시대의 四大家의 하나로 字는 仲圭, 號는 梅花道人 또는 梅道人이라 하였다. 그는 詩·書·畫에 모두 능하여 당시 三絶이라고 칭송을 받았다. 그의 畫는 竹·梅·山水가 장기였으나 특히 墨竹은 최고의 경지를 이루어 사람들로부터 天竹이라는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吳慶錫의 처음의 호인 鎮齋는 吳鎮의 이름에서 취한 것이며, 다음의 호 亦梅는 吳鎮의 호인 梅花道人에서 취한 것이고, 吳慶錫의 당호인 天竹齋는 吳鎮의 작품¹⁶⁾에서 취한 것이다.¹⁷⁾

위의 자료를 보면 오경석은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가 역관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집안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경석은 鎮齋 · 亦梅 · 野梅 · 逸梅라는 號를 사용하였는데 이중에서도 亦梅라는 號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

15)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107-187.

오경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려면 신용하의 논문(1985)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의 논문은 오경석의 후손인 吳一龍과 吳一六의 증언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정보량이 많고 신빙성이 높다. 현재까지 오경석 연구에서 신용하의 논문이 독보적이라고 판단된다. 오경석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용하의 논문보다 더 훌륭한 참고자료가 존재하지 않기에 필자 역시 신용하 논문의 내용을 재인용해서 서술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6) 신용하(1985)의 논문에서 이르기를 오경석의 당호 '天竹齋'는 吳鎮의 작품에서 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오류인 듯하다. 구체적인 논증은 제5장의 '5.1 書畫'절에서 하겠다.

17)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109.

다. 필자가 『중사간독첩』을 확인해보니 亦梅라는 號가 중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鎭齋 · 逸梅라는 號는 『중사간독첩』에 각각 한 번씩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野梅라는 號는 『중사간독첩』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鎭齋 · 亦梅 · 野梅 · 逸梅라는 號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 吳世昌의 『槿域印戴』¹⁸⁾를 보면 오경석이 "海東首陽 · 研淨室 · 海上釣鼈客 · 梅龕 · 佛弟子 · 萬二千峯樵者 · 十州三島是吾鄉 · 三韓使者 · 印迦居士"라는 다른 號들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경석이 元나라 화가 吳鎭을 숭모하였음도 위의 인용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오경석의 家系에 대해 살펴보겠다. 허경진의 『조선의 르네상스인 중인』에 실린 내용을 자료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海州 吳氏의 中始祖인 吳仁裕를 거쳐 11대 吳麟壽까지는 文科 합격자를 낸 兩班이었지만, 12대 吳棟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參奉(종9품)을 지냈다가, 13대 吳久佳와 14대 吳大宗이 武科에 합격하여 武班이 되었으며, 吳大宗의 맏아들인 15대 吳仁亮이 譯科에 합격하여 역관 가문이 되었다. 吳悌亮의 아들인 16대 吳鼎和까지 醫科에 합격하여 醫官이 되면서, 海州 吳氏는 中人으로 신분이 굳어졌다. 17대 吳志恒부터 23대 吳慶錫까지 대대로 譯科에 합격하여 譯官이 되었으며, 혼인도 譯官 중심의 中人 집안과 하였다.¹⁹⁾

위의 자료를 보면 오경석 가문은 원래 文科 합격자도 배출했고, 武科 합격자도 배출했던 양반 집안이었다. 그러다 15대 吳仁亮이 역과에 합격하고, 16대 吳鼎和가 의과에 합격하면서 오경석 가문은 양반으로부터 중인으로 신분이 굳어진다. 17대로부터 23대 오경석까지 대대로 역관이 되었으니 당시 제일가는 역관집안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경석은 바로 이 같은 역관가문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신용하 논문²⁰⁾에서 이미 오경석의 교육상황과 혼인상황에 대해 언급했기에 아래 자료로 인용한다.

18) 오세창. (1968). 『槿域印戴』. 大韓民國國會圖書館, pp.82-92.

19) 허경진. (2008). 『조선의 르네상스인 중인』. 서울: 랜덤하우스, p.150.

20)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107-187.

吳慶錫은 16세 때인 1846년(憲宗 12년)에 譯科의 式年試에 漢學으로 합격하였다. …… 그는 譯科 합격 후에 司譯院의 漢學習讀官으로부터 漢譯官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家塾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塾師의 하나가 아버지의 동료이며 당대의 탁월한 詩書家인 藕船 李尙迪이어서 그의 심대한 영향을 받고 어려서부터 金石文과 書畵에 취미를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 글씨의 隸書, 그림의 梅花를 즐겨 습작하였다. 어려서부터 매우 英敏하고 어른스러워서 스승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다. 吳慶錫은 18세(1848)때에 司譯院 堂上譯官이었던 李時濂의 중매로 그의 조카딸이며 司譯院 僉正을 지낸 李挺의 21세된 딸 金山 李氏와 결혼하였다. 吳慶錫의 처가(金山 李氏)도 대대로 譯官의 집안이었다. 吳慶錫 부부의 금슬은 매우 좋았으나 李부인이 소생을 두지 못한 채 1853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유행병에 걸려 별세하였다. 吳慶錫은 3년 후에 중인 집안의 金承源의 딸 金海 金氏와 재혼하여 딸 하나와 아들 吳世昌(1864년 생)을 낳았다. 딸은 1872년에 司譯院 判官을 지낸 譯官 李碩柱의 아들인 李容白에게 출가시키고, 아들 吳世昌은 譯官이며 知中樞府事의 직위를 가진 牛峰金氏 金載信의 딸에게 1875년 결혼시키어 며느리를 취하였다.²¹⁾

위의 자료를 통해 오경석의 스승이 李尙迪임을 알 수 있다. 오경석이 역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스승 李尙迪의 훈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경석이 書畵와 金石에 애착을 가지게 된 이유도 李尙迪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오경석은 金山 李氏 및 金海 金氏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金山 李氏는 어린 나이에 유행병에 걸려 일찍 별세하였고, 金海 金氏는 딸 하나와 아들 吳世昌을 낳았다. 오경석은 두 자식 모두를 역관집안에 출가시켰는데 이것으로 보아 오경석의 집안은 역관 대가족 집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계속하여 오경석이 일생동안 이루어낸 업적을 보겠는데 신용하 논문²²⁾의 내용을 자료로 인용해 보겠다.

吳慶錫의 생애와 사상에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그가 23세 때인 1853년 4월 淸國의 수도 北京에 가서 이듬해 3월까지 머물면서 새로운 文物에 접

21)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p.115-116.

22)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107-187.

하고 중국 東南地方 출신의 人物들과 교유하여 見聞과 視野와 思想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吳慶錫은 그 후 13차례나 北京에 왕래하면서 중국이 西洋列強의 침입으로 붕괴되어가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자기의 祖國인 朝鮮에 다가오는 民族的 危機라고 판단하여 新書를 다수 구입해 가지고 와서 研究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開化思想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읽은 新書를 친우 劉鴻基에게 읽고 연구하도록 권하여 劉鴻基로 하여금 開化思想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朴珪壽에게도 건의와 자료를 제공하여 朴珪壽의 開化思想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吳慶錫은 大院君이 집정하는 기간에 1865년 2월부터 1867년 6월까지 義州監稅官의 직책을 잠간 역임했다. 그 밖에는 譯官과 外交官으로서 49세의 짧은 일생을 開化思想의 보급과 金石學의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開化思想의 비조일 뿐 아니라 金石學과 書畫에서도 一家를 이루어 여러 가지 업적을 내었다.²³⁾

위의 자료를 보면 오경석은 개화사상의 비조 · 譯官 · 外交官 · 書畫家 · 金石學者 등 여러 신분을 갖고 있다. 49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는 永垂不朽의 업적을 남겨 놓고 간 偉人이라 할 수 있다.

2.2 吳慶錫의 著述

오경석의 저술로는 『三韓金石錄』 · 『三韓訪碑錄』 · 『天竹齋筭錄』 · 『隨意快讀』 · 『洋擾記錄』 · 『初祖菩提達磨大師說』 등이 있다. 그의 저술에 대해 인용자가 이미 상세하게 서술하였기에 필자는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아래에 자료로 인용하겠다.

『삼한금석록』은 吳慶錫이 28세 때인 1858년에 완성한 우리나라 金石文의 集成이다. 모두 156쪽의 비교적 방대한 분량이다. 三國時代부터 高麗時代까지의 金石文 146종을 수록하여 해설을 붙이고 있다.……題·跋文은 그의 스승 李尙迪이 쓰고, 序文은 중국의 何秋濤, 後序는 중국의 潘祖蔭이 썼다. 『삼한금석

23) 인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116.

록』에 수록된 金石文의 總目은 「高句麗故城刻子二種」부터 시작하여 「圓悟大師碑」에 이르기까지 三國時代로부터 高麗時代末期까지의 모두 146개이다.²⁴⁾

위의 인용문을 보면 『삼한금석록』은 모두 156쪽에 달하는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삼한금석록』에 三國時代부터 高麗時代까지의 金石文 146종을 수록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삼한금석록』을 확인해보면 쪽수는 156쪽이지만, 수록된 金石文은 8종뿐이다. 이는 『삼한금석록』 원본이 아님을 의미한다.

『三韓訪碑錄』은 吳慶錫이 『三韓金石錄』을 쓰기 위하여 국내 각지의 碑石과 遺蹟을 현지 踏査한 기록이나 7쪽의 未完成의 저작이다.

『天竹齋筭錄』은 吳慶錫이 만년(1870년 경)에 쓴 중국 北京에 往來한 기록이다. 현재 이 책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책 제목과 吳世昌의 『槿域書畫徵』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中國으로부터의 書畫의 수입과 賚咨官·通譯官으로 北京을 왕래하면서 見聞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隨意快讀』은 중국의 名文인 「別賦」·「恨賦」 등을 비롯해서 吳慶錫이 좋아하는 文章들과 詩賦 감상문을 모아놓은 책이다. 표지의 題名하에 〈洌上亦梅〉라는 그의 저작에 찍는 印章을 정성스럽게 찍어놓았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저서가 아니라 간행되지 않은 편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13쪽으로 된 간단한 帖冊이다.

『洋擾記錄』은 吳慶錫이 1866년 음력 10월 귀국한 후에 丙寅洋擾에 관련된 기록을 정리해 둔 원고로 보인다. 이 책의 앞부분은 吳慶錫 등이 丙寅洋擾를 당하여 양요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중국의 南方에 인물들인 張丙炎(翰林院編修), 王軒(兵部 郎中), 吳懋林(湖南人, 軍功으로 高官 역임), 劉培芬(江蘇毘陵人, 역시 軍功으로 福建省 通判에 임명된 인물), 萬青藜(禮部尙書) 기타 다수인 인물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기록과, 駐淸 프랑스公使館과 淸國總理衙門사이의 丙寅洋擾에 관한 往復外交文書, 淸國의 朝鮮政府에 대한 咨文, 사절단의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은 丙寅洋擾의 기간 중에 일어난 國內의 동향을 日字別로 1866년 음력 10월 7일까지 정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24)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117.

이후의 일자의 기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낙장되어 있다.

『初祖菩提達磨大師說』은 吳慶錫이 만년에 佛經 중에서 達磨大師의 가르침을 血脈論과 觀心論을 중심으로 뽑아 모은 책이다. 47쪽으로 되어 있으며, 表題 바로 밑에 「亦梅持誦」이라고 자필로 써 놓았다. 따라서 이 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吳慶錫의 저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佛經의 가르침을 뽑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편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상과 같이 신용하의 논문에 근거하여 오경석의 『三韓金石錄』·『三韓訪碑錄』·『天竹齋筭錄』·『隨意快讀』·『洋擾記錄』·『初祖菩提達磨大師說』 등 저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경석이 금석학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알았고,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했음도 알았으며, 晩年に 瓦鮮 불교에 전념하는 등 일생동안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25)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p.117-120.

Ⅲ. 『中士簡牘帖』의 서지적 의의와 구성

3.1 『중사간독첩』의 서지적 의의

『중사간독첩』은 “2004년 오경석의 친 손자인 吳一六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중사간독첩』은 역관이었던 오경석이 청나라 문인이나 금석학자들로부터 받은 편지글들을 모은 책으로, 한중문화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실증 유물 중 가장 방대하고 구체적인 유물로 손꼽힌다.”²⁶⁾

『중사간독첩』은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거대한 저작이다. 『중사간독첩』의 존재는 북경에서 이루어진 오경석과 청나라 인사와의 밀접한 교류 상황을 직접 접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 첩은 청나라 인사가 보내 온 친필 서신의 원본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큰 연구 가치가 있다.

『중사간독첩』에 실린 원본 서신 종이는 흰색 바탕이 아닌 赤色·黃色·青色인 詩箋紙이다. 또한 어떤 詩箋紙 위엔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혹은 탁본이 찍혀져 있다. 그러므로 『중사간독첩』은 청나라 인사들의 글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예학 방면에도 자료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지학 방면에도 충분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2 『중사간독첩』의 구성

『중사간독첩』에 실린 서신들에는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만약 서신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는 당시 韓·中 인사들의 교류 모습을 생생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중사간

26) 김은주. (2004). "오세창 관련 유물, 후손이 예술의전당에 기증". 서울=연합뉴스. 검색일자: 2013.1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48068>

독첩』이 가지는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 『중사간독첩』의 체제에 대해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사간독첩』은 모두 7책으로 표구되었으며, 모두 420쪽이다. 2004년 吳一六의 기증으로 현재 예술의전당에 소장되어있는데, 보관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둘째, 『중사간독첩』은 매 책마다 60쪽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의도된 편집임이 분명하다. 7책은 가나다 이름순으로 편집된 것도 아니고, 서신의 발송 년대 순으로 편집된 것도 아니기에 책들의 정확한 선후 순서를 알아내려면 원문 확인 작업을 마친 후 내용에 근거하여 추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7책의 선후 순서 확인 작업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셋째, 논문 작성에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각 책마다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는데, 매 책의 첫 페이지 처음 두 글자, 혹은 네 글자를 취하여 명명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중사간독첩』의 7책을 각각 『鎮齋』·『承惠』·『晤王蓮生』·『賤束』·『枉嘉』·『亦梅先生』·『亦梅仁兄』으로 명명했다.

넷째, 『중사간독첩』 7책을 해당 책에서 서신이 편집된 순서에 따라 서신發信者인 중사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각 책별 서신 수록 양상							
	1冊 ²⁷⁾ 鎮齋	2冊 承惠	3冊 晤王蓮生	4冊 賤束	5冊 枉嘉	6冊 亦梅先生	7冊 亦梅仁兄
1	呂佺孫	劉銓福	潘曾綬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溫忠翰
2	符葆森	劉銓福	潘曾綬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溫忠翰
3	符葆森	劉銓福	潘曾綬(詩)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溫忠翰
4	符葆森	劉銓福	潘曾綬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溫忠翰
5	楊傳第	劉銓福	潘曾綬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詩)	溫忠翰
6	楊傳第	劉銓福	潘曾綬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葉名禮
7	楊傳第	劉銓福	潘曾綬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葉名禮
8	何秋壽(詩)	劉銓福	潘祖蔭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葉名禮
9	何秋壽	劉銓福	潘祖蔭(詩)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葉名禮
10	李士葵	劉銓福	潘祖蔭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詩)	葉名禮
11	李士葵	劉銓福	潘祖蔭	程祖慶	程祖慶	高繼珩	葉名禮

12	李士榮	劉銓福	潘祖蔭	程祖慶	程祖慶	濮森	葉名澧
13	李士榮	劉銓福	潘祖蔭	程祖慶	程祖慶	濮森	葉名澧
14	李士榮	劉銓福	潘祖蔭	程祖慶	程祖慶	濮森	葉名澧
15	徐昌緒	劉景澤	潘祖蔭	蔡兆槐	程祖慶	濮森	葉名澧
16	吳懷珍	劉景澤	潘祖蔭	王軒	程祖慶	濮森	葉名澧
17	劉存仁	樊彬	潘祖蔭	許春榮	程祖慶	濮森	葉名澧(詩)
18	方??	樊彬(詩)	潘祖蔭	許春榮	程祖慶	濮森	葉名澧
19	明基和南	樊彬	潘祖蔭	孫福清	程祖慶	濮森	葉名澧
20	胡義贊	樊彬	潘祖蔭	孫福清	程祖慶	周棠	孔憲彝
21	胡義贊	樊彬	潘祖蔭	潘曾綬	程祖慶	周棠	孔憲彝
22	胡義贊	樊彬	潘祖蔭	潘曾綬	程祖慶	周棠	孔憲彝
23	敖冊賢	樊彬(詩)	吳鴻恩	潘曾綬	程祖慶	周棠	孔憲彝
24	敖冊賢	樊彬	吳鴻恩	溫忠翰	程祖慶	周棠	孔憲彝
25	萬青藜	樊彬(詩)	吳鴻恩	符葆森	程祖慶	周棠	孔憲彝
26	萬青藜	樊彬	吳鴻恩(詩)	李士榮	程祖慶	周棠	孔憲彝
27	周壽昌	樊彬(詩)	吳鴻恩	李士榮	程祖慶	張世準	孔憲彝
28	顧肇熙	樊彬	吳鴻恩	李士榮	程祖慶	張世準	孔憲彝
29	徐志涸	樊彬(詩)	吳鴻恩	劉景澤	程祖慶	張世準	孔憲彝
30	徐志涸	樊彬	吳鴻恩	觀祐·恩堃	程祖慶	張世準	孔憲彝
31	李炳勳	樊彬	吳鴻恩(詩)	濮森	程祖慶	張世準	孔憲彝
32	李炳勳	樊彬	曾可傳(詩)	濮森	程祖慶	張世準	孔憲彝
33	李炳勳	樊彬(詩)	吳鴻恩	濮森	程祖慶	張世準	孔憲彝
34	李炳勳	樊彬	吳鴻恩	李炳勳	程祖慶		孔憲彝
35	張啓泰	樊彬(詩)	吳鴻恩	周棠	程祖慶		孔憲彝
36	張啓泰	樊彬(詩)	吳鴻恩	周棠	程祖慶		孔憲彝
37	張啓泰	樊觀玉	吳鴻恩	周棠	程祖慶		孔憲彝
38	張啓泰		吳鴻恩	楊傳第	程祖慶		孔憲彝
39	張啓泰		吳鴻恩	陸以烜	程祖慶		孔憲彝
40				李暉緒			孔憲彝
41				李暉緒			孔憲彝
42				敖冊賢			
43				敖冊賢			
44				樊彬			
45				樊彬(詩)			
46				樊彬(詩)			
47				樊觀玉			
48				樊觀玉			
49				孫浩			
	39통	37통	39통	49통	39통	33통	41통
합계	277통 ²⁸⁾						

27) 위에서 제시한 '1책~7책'까지는 『중사간독첩』이 모두 7책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혔을 뿐 책들의 정확한 순서는 아니다.

28) 신용하(1985,p.132)의 논문에 의하면 『중사간독첩』에 모두 292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다시 확인해본 결과 모두 277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277통의 편지 가운데 또한 19수의 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위의 <표 1>을 보면 책 『鎮齋』에는 18명 중사들의 서신이 실려 있는 반면 책 『枉嘉』는 오로지 중사 程祖慶 1명의 39통 서신만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조경을 비롯한 일부 중사들의 서신 수록 양상을 보면 1명 중사의 모든 서신이 한 책에 함께 실려 있지 않고, 두 책에 나뉘어 실려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중사 정조경을 예로 들어 보면 그의 일부 서신은 『枉嘉』에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서신은 『賤束』에 수록되어 있다. 『賤束』을 보면 정조경의 서신을 시작으로, 그 뒤를 이어 蔡兆槐 · 王軒 · 許春榮 등 중사들의 서신이 실려 있다. 『枉嘉』가 모두 정조경의 서신으로 이루어졌고, 『賤束』이 정조경의 서신을 시작으로 수록하였다는 양상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려우나, 『枉嘉』가 『賤束』의 앞 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도 정조경의 개개 서신 일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끝마친 후에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타 『鎮齋』 · 『承惠』 · 『晤王蓮生』 · 『亦梅先生』 · 『亦梅仁兄』 책의 선후 순서에 대한 확인은 추후의 작업으로 미루겠다. 중사가 보내온 서신을 서신개수의 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中士들이 보내온 서신 개수에 따른 배열									
1	程祖慶	『賤束』	14	53통	19	符葆森	『鎮齋』	3	4통
		『枉嘉』	39				『賤束』	1	
2	樊彬	『承惠』	20	23통	20	胡義贊	『鎮齋』	3	3통
		『賤束』	3		21	劉景澤	『承惠』	2	3통
3	孔憲彝	『亦梅仁兄』	22	22통			『賤束』	1	
4	吳鴻恩	『晤王蓮生』	16	16통	22	樊觀玉	『承惠』	1	3통
5	潘祖蔭	『晤王蓮生』	15	15통			『賤束』	2	
6	劉銓福	『承惠』	14	14통	23	許春榮	『賤束』	2	2통
7	葉名禮	『亦梅仁兄』	14	14통	24	何秋濤	『鎮齋』	2	2통
8	濮森	『賤束』	3	11통	25	李暉緒	『賤束』	2	2통
		『亦梅先生』	8		26	孫福清	『賤束』	2	2통
9	高繼珩	『亦梅先生』	11	11통	27	徐志洵	『鎮齋』	2	2통
10	周棠	『賤束』	3	10통	28	萬青藜	『鎮齋』	2	2통
		『亦梅先生』	7		29	蔡兆槐	『賤束』	1	1통
11	潘曾綬	『晤王蓮生』	7	10통	30	曾可傳	『晤王蓮生』	1	1통
		『賤束』	3		31	周壽昌	『鎮齋』	1	1통
12	李士棻	『鎮齋』	5	8통	32	陸以烜	『賤束』	1	1통
		『賤束』	3		33	劉存仁	『鎮齋』	1	1통
13	張世準	『亦梅先生』	7	7통	34	王軒	『賤束』	1	1통
14	溫忠翰	『賤束』	1	6통	35	吳懷珍	『鎮齋』	1	1통

		『亦梅仁兄』	5			36	呂倌孫	『鎮齋』	1	1통
15	張啓泰	『鎮齋』	5	5통		37	孫浩	『賤束』	1	1통
16	李炳勳	『鎮齋』	4	5통		38	方??	『鎮齋』	1	1통
		『賤束』	1			39	明基和南	『鎮齋』	1	1통
17	敖冊賢	『鎮齋』	2	4통		40	觀祐·恩堃	『賤束』	1	1통
		『賤束』	2			41	顧肇熙	『鎮齋』	1	1통
18	楊傳第	『鎮齋』	3	4통		42	昌緒	『鎮齋』	1	1통
		『賤束』	1							

〈표 1〉과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중사간독첩』에는 모두 277통의 서신이 수록되어 있고 이 서신은 43명의 중사가 보내온 것이다. 43명 중사는 程祖慶 53통, 樊彬 23통, 孔憲彝 22통, 吳鴻恩 16통, 潘祖蔭 15통, 劉銓福 14통, 葉名禮 14통, 濮森 11통, 高繼珩 11통, 周棠·潘曾綬 각 10통 등 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程祖慶·樊彬……高繼珩·周棠·潘曾綬에 이르기까지 11명 중사는 전체 43명 중사 인원수의 1/4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11명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서신은 199통이나 된다. 이는 전체 277통의 3/4 정도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위 11명 중사 가운데서도 정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보아 낼 수 있다. 오경석에게 한 두 통 서신을 보내 안부 정도만을 묻던 일부 중사와는 달리 정조경은 무려 53통에 달하는 서신을 오경석에게 보내왔다. 서신의 양만으로도 오경석과 정조경 사이의 남다른 교류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사간독첩』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통해 보더라도 방대한 정보량을 담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IV. 『中士簡牘帖』에 보이는 中士의 履歷

위의 제3장 <표 2>를 통해 43명의 중사가 오경석에게 서신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오경석에게 서신을 보낸 중사가 43명이라고 해서 오경석이 북경에서 만났던 중사가 43명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경석에게 서신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知人이 마련한 모임에 오경석이 참석했을 때 우연히 만났던 중사들도 있었음을 『중사간독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서신 내용 중에는 다양한 중사들과의 만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중사간독첩』에 실린,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력을 살피려고 한다.

이를 위해 『淸畫家詩史』·『木瀆小志』·『中國藏書家通典』·『淸代詞社研究』·『近現代名家篆刻』·『走進桃花源』·『韓客詩存』·『淸史列傳』·『琉璃廠小志』·『豐都縣志』·『淸代硃卷集成』·『晚晴簃詩匯』·『綿竹文物選粹』·『中國歷代人名大辭典』·『明清歷科進士題名碑錄』·『遼海叢書』·『中國歷代探花』·『寒松閣談藝瑣錄』·『樞垣記略』 등 서책의 기록에 근거하여 43명 중사들의 履歷을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高繼珩

高繼珩의 字는 寄泉이다. 遷安人이지만 寄留籍은 寶坻이다. 濟寧知州約齋孝廉 占魁의 아들이다. 嘉慶戊寅년 舉人이다. 河間大名的 教諭를 하다가 廣東鹽場大使 벼슬을 하였다. 재능이 뛰어났으며 博學하였다. 邊袖石 · 華枚宗과 함께 '畿南三子'라고 불리웠다. 『畿輔詩傳』 初稿를 모았다. 墨蘭에 능했는데 구속됨이 없었다. 매번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제시를 하고는 친구들에게 선물하였다. 저서로는 『培根堂詩集』·『蝶階外史』 등이 있다.²⁹⁾ (필자 역)³⁰⁾

29) 李溶之, 『淸代傳記叢刊·藝林類⑩·淸畫家詩史(三)』, 臺北: 明文書局印行, p.077-114.

“高繼珩 字寄泉 遷安人 寄籍寶坻 濟寧知州約齋孝廉 占魁子 嘉慶戊寅舉人 由河間大名教諭 任廣東鹽場大使 才優學博 與邊袖石 華枚宗 稱畿南三子 畿輔詩傳初稿為其手輯 墨蘭任意揮灑 每畫扇題詩 贈友 著有 培根堂詩集 蝶階外史”

30) 이하 모든 중국서책의 내용은 필자가 직접 번역했다.

2 顧肇熙

顧肇熙의 字는 緝庭이고, 晚號는 退廬이다. 郡人 通政南雅(顧純)의 族孫이다. 同治甲子 舉人이다. 吉林分巡道 · 陝西鳳邠鹽法道 · 福建臺灣道 벼슬을 연이어 하였다. 分省 후엔 兼署藩篆도 하였다. 그러다 致仕하고 돌아와 木瀆에 살면서 林泉을 優游했다. 시는 具體로 北宋을 따랐고, 書法은 眉山을 宗으로 삼았다. 歲甲辰年(1904)에 마을에 小學堂을 설립하였다. 風氣之先을 獨開하였다. 巨費를 捐하였는데 不貲할 정도였다. 中丞 陳夔龍이 와서 시찰하고는 아주 훌륭하다고 칭하였다. 나이 七十餘에 里第에서 考終하였다. 士論을 보면 모두 안타까워하였다.³¹⁾

3 孔憲彝

孔憲彝의 字는 敘仲이다. 號는 繡山, 혹은 秀珊이다. 山東 曲阜人이다. 道光丁酉년 舉人이다. 內閣中書 벼슬을 하였다. 詩畫와 篆刻을 잘하였다. 저서로는 『對嶽樓詩錄』이 있다.³²⁾

4 觀祐

恩堃과 함께 오경석에게 서신 1통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5 萬青藜

萬青藜의 字는 文甫이다. 號는 照齋이며, 달리 藕舫이라고도 했다. 淸 道光 元年(1821年) 출생이다. 九江府 德化縣人이다. 어려서부터 聰穎하였고, 才學이 출중하였다. 道光19년에 中舉하고, 연이어 道光20년에 會試를 치렀는데, 庚子科 二甲 第二十二名으로 합격하여 聯捷成進士가 되었다. 그런데 朝考에서 朝元이 됨으로써 다시 한 번 世人을 놀라게 했다. 처음 翰林院 編修직을 수여받았다. 그 후 侍講侍讀學士로 擢升하였으며, 國子監祭酒에 종사했다. 그로부터 萬青藜의 仕途는 一路通達하여 五朝皇帝를 服侍하기에 이른다. …… 同治四年

31) 張壬士. (1983). 『木瀆小志』. 臺北: 成文出版社, pp.178-179.

“顧肇熙 字緝庭 晚號退廬 郡人 通政南雅族孫也 同治甲子舉人 累官 吉林分巡道 陝西鳳邠鹽法道 福建臺灣道 分省後 兼署藩篆 致仕歸居木瀆 優游林泉 詩具體北宋 書法宗眉山 歲甲辰 就里中創辦小學堂 獨開風氣之先 捐巨費不貲 陳中丞夔龍蒞視稱善 年七十餘考終里第 士論咸惜之”

32) 李潛之. 『清代傳記叢刊·藝林類②·淸畫家詩史(三)』. 臺北: 明文書局印行, p.077-162.

“孔憲彝 字敘仲 號繡山 一號秀珊 山東曲阜人 道光丁酉舉人 官內閣中書 工詩畫篆刻 有對嶽樓詩錄”

(1865年)十一月, 萬青藜는 兵部에서 자리를 옮겨 禮部尚書 겸 順天府尹을 하게 되었으며 紫禁城騎馬를 恩賞받으므로 出入朝廷하는 황제의 近臣이 되었다. 光緒四年(1878年) 萬青藜는 또 部署를 옮겨 吏部尚書 벼슬을 하다 光緒七年에는 다시 翰林院掌院을 兼任하였다. 光緒九年(1883年) 衙署에서 病逝하였는데 享年 62歲였다.³³⁾

6 明基和南

오경석에게 1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7 潘祖蔭

潘祖蔭(1829-1890)은 淸의 저명한 藏書家이자, 書法家이다. 字는 伯寅·東鏞이다. 小字는 鳳笙이고, 號는 鄭庵이다. 諡號는 文勤이다. 吳縣(오늘의 江蘇 蘇州)人이다. 咸豐2년(1852)進士로 編修직을 받았다. 光緒년간엔 工部·兵部·戶部尚書 겸 順天府尹 벼슬까지 하였다. 軍機處에 入直하였다. 어린 시절 好學하였는데, 百家를 두루 涉獵하였다. 소장한 圖書와 金石은 吳 지방에서 가히 으뜸이라 할 수 있었다. …… 저명한 藏品으로 西周 康王時代의 禮器大孟鼎·大克鼎·青銅·甲骨·龜板 등이 있는데, 海內外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저서로는 『芬陀利室詞』·『西陵日記』·『秦輶日記』·『沈陽紀程』·『鄭庵詩文存』·『攀古樓彝器款識』 등이 있다.³⁴⁾

8 潘曾綬

潘曾綬(1810~1883)의 初名은 曾鑒이다. 字는 紱庭이다. 吳縣人이다. 潘世恩의

33) 劉爲珍. (2006). 『走進桃花源』. 北京: 作家出版社, p.115.

“萬青藜, 字文甫, 號照齋, 一號藕舫, 淸道光元年(1821年)生, 九江府德化縣人. 自幼聰穎, 才學過人. 道光十九年中舉, 道光二十年會試, 高中庚子科二甲第二十二名聯捷成進士. 朝考再舉驚人, 高中朝元, 初授翰林院編修, 擢升侍講侍讀學士, 署國子監祭酒. 自此, 萬青藜仕途一路通達, 服侍五朝皇帝. …… 同治四年(1865年)十一月, 萬青藜又由兵部調任禮部尚書兼順天府尹, 恩賞紫禁城騎馬, 為出入朝廷的皇帝近臣. 光緒四年(1878年), 萬青藜又改任吏部尚書, 光緒七年又兼任翰林院掌院, 光緒九年(1883年), 病逝于衙署, 享年62歲.”

34) 李玉安、黃正雨. (2005). 『中國藏書家通典』. 中國國際文化出版社, pp.641-642.

“潘祖蔭(1829-1890)淸著名藏書家、書法家. 字伯寅, 一字東鏞, 小字鳳笙, 號鄭庵, 諡號文勤. 吳縣(今江蘇蘇州)人. 咸豐二年(1852)進士, 授編修, 光緒間官至工部、兵部、戶部尚書, 兼順天府尹, 入直軍機處. 幼好學、涉獵百家. 收藏極富, 所藏圖書、金石甲于吳下. ……收藏金石極富, 著名藏品如西周康王時代禮器大孟鼎、大克鼎, 青銅、甲骨、龜板等, 揚名海內外. 著『芬陀利室詞』、『西陵日記』、『秦輶日記』、『沈陽紀程』、『鄭庵詩文存』、『攀古樓彝器款識』等.”

子로 曾沂 · 曾瑩의 弟이며, 潘祖蔭의 父이다. 道光20년(1840)舉人이며, 內閣中書 · 內閣詩讀 등 벼슬을 하였다. 저서로는 『蘭陔書屋詩集』이 있다.³⁵⁾

9 方??

吳慶錫에게 1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10 樊觀玉

樊觀玉의 字는 珪山이고, 樊彬의 아들이다. 오경석에게 3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11 樊彬

樊彬은 淸 道光 · 光緒년 간에 생존했던 인물이다. 字는 質夫, 號는 文卿이며, 天津人이다. 어린 시절에 벌써 鄉間에 이름이 자자하였다. 그가 성장하여서는 國士가 될 거라고 時人들은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秋闈에 응했으나 번번이 합격하지 못했다. 이후 史館에 들어가 謄錄을 하였으며, 또 冀州司訓을 지냈다. 그러다 자리를 옮겨 蘄水縣丞을 지냈다. 晚年엔 벼슬을 사직하고 京城에 와 살았다. 항상 友人들과 함께 尊酒論文을 樂으로 삼았다. 저서로는 『問青閣詩集』 十卷 · 『津門小令』 一卷이 刊行되어 전해지고 있다.³⁶⁾

12 濮森

濮森의 字는 又栩, 號는 石卿이며, 浙江錢塘(오늘 杭州)人이다. 咸豐 · 同治年間に 活動했다. 刻印에 능했으며, 宗浙派及元人이다. 저서로 『又栩印草』가 있다.³⁷⁾

13 符葆森

35) 萬柳. (2011). 『清代詞社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p.248.

“潘曾綬(1810~1883), 初名曾鑒, 字紱庭, 吳縣人, 潘世恩子, 曾沂、曾瑩弟, 潘祖蔭父; 道光二十年(1840)舉人, 歷官內閣中書、內閣詩讀等; 有『蘭陔書屋詩集』。”

36)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286. “樊彬淸道光至光緒間人. 字質夫, 號文卿, 天津人. 幼即聞於鄉間, 漸長, 時人以國士目之. 屢試秋闈不中, 遂入史館任謄錄, 又任冀州司訓, 遷蘄水縣丞. 晚年, 退居京城, 常與友人以尊酒論文為樂. 著有『問青閣詩集』十卷、『津門小令』一卷刊行於世.”

37) 朱力. (2004). 『近現代名家篆刻』.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96.

“濮森, 字又栩, 號石卿, 浙江錢塘(今杭州)人. 活動於咸豐、同治年間. 工刻印, 宗浙派及元人. 輯有『又栩印草』.”

符葆森의 원명은 燦이다. 字는 南樵, 江蘇 江都人으로 咸豐元年 舉人이다. 어린 시절에 詩와 賦에 관심이 많았다. 집이 가난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반란군이 일으킨 戰亂으로 인해 齊·楚·吳·越 등 지방을 轉徙하였지만, 詩 창작을 멈춘 적이 없었다. 生平을 보면 好酒家였으며, 폭넓은 交遊를 하였다. 후에 京師에 머물었는데 滿洲 崇實의 집에 寓居하였다. 그러는 동안 陶梁·張祥河·汪暎·朱琦·葉名澧·孔憲彝·王拯·蔡壽祺 등과 교류하면서 시를 논했는데, 그들과 莫逆之交를 맺었다. 일찍이 沈德潛의 別裁의 例를 모방하여 乾隆·嘉慶·道光 三朝의 총 2,000여 명에 달하는 인사가 지은 시를 편집하고 정리하여 100권으로 엮었는데, 이름을 『正雅集』이라 명하였다.……50세에卒했다. 『寄鷗館賦稿·詩稿』가 있다.³⁸⁾

14 徐志洵

寶文齋 주인 徐志洵의 字는 蒼巖이다. 安徽人으로 咸豐年間に 開設하였으며 原 敬古齋址에 설립하였다. 당시 老官僚들과 交易을 많이 하였기에 同業中에서 널리 알려졌다.³⁹⁾

15 徐昌緒

徐昌緒(1824-1892)의 字는 琴舫이고 號는 遁溪이며 豐都縣 雙龍鄉人이다. 清 咸豐年間に 進士로 翰林院編修가 되었다. 重慶 東川書院長을 지냈으며 書法에 능했다. 그가 쓴 『蠶林碑』字帖이 전해지고 있다.⁴⁰⁾

16 葉名澧

葉名澧(1811-1859)는 청나라 學者이자 藏書家이다. 字는 潤臣이고 號는 瀚源이다. 葉志洵의 子로 葉名琛의 兄이며, 漢陽(오늘의 武漢)人이다. 道光17年(1837)舉人이다. 內閣中書·同文館·玉牒館幫辦·方略館校對·文淵閣檢閱·

38) 王鍾翰點校.(1987). 『清史列傳·卷七十三·文苑傳四』, 北京:中華書局出版, pp.6052-6053.
“符葆森 原名燦 字南樵 江蘇江都人 咸豐元年舉人 少工詩賦 家貧奔走衣食 又遭寇亂 轉徙齊楚吳越然不廢詩 生平豪於酒 廣交遊 後留京師 寓滿洲 崇實家 與陶梁 張祥河 汪暎 朱琦 葉名澧 孔憲彝 王拯 蔡壽祺 等往來論詩 稱莫逆 嘗仿沈德潛別裁例 編乾隆嘉慶道光三朝詩總二千餘家 釐爲百卷 名之曰正雅集 …… 卒年五十 又著有寄鷗館賦稿詩稿”

39) 孫殿起. (2010). 『琉璃廠小志』,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98.

“寶文齋 徐志洵 字蒼巖 安徽人 於咸豐間開設 原爲敬古齋址 交易多當時老官僚 同業中盛傳”

40) 四川省豐都縣地方志編纂委員會.(1991). 『豐都縣志』, 成都:四川科學技術出版社, p.682.
“徐昌緒(1824-1892)字琴舫,號遁溪,豐都縣雙龍鄉人。清咸豐年間進士,授翰林院編修。任重慶東川書院長,擅書法,有所書『蠶林碑』字帖傳世。”

侍讀·浙江候補道員 등 직을 역임하였다. 博學好古하였으며, 詩를 잘 지었다. 山水유람을 즐겼는데 中年에는 江漢·吳越 등 지방을 널리 유람하였다. 南으로는 黔中, 北으로는 雁門까지 이르렀다. 매번 한 곳에 이를 때마다 詩 한수 씩을 꼭 기록하였다. 藏書를 즐겼는데, 집에 있는 서재 敦宿好齋·寶雲齋 등에는 10萬卷에 이르는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같이 많은 서적을 자본으로 하여 纂述하였다. ……『橋西雜識』은 隨筆撮錄之書인데 潘祖蔭이 序를 썼다. 기타 저서로는 『周易藝文疏證』·『戰國策地名考』·『孰夙好齋詩集』·『筆記』·『讀易叢記』·『四聲疊韻譜』·『橋西雜記』와 文集이 있다.⁴¹⁾

17 孫福清

孫福清의 字는 補璇, 號는 介廷, 稼亭이다. 형제 가운데 둘째이다. 道光丙戌 12월 初5일에 출생하였다. 浙江 嘉興府 嘉善縣의 民籍을 갖고 있다. 咨部優行選拔貢生이다. 詒經精舍에서 肄業하였다.⁴²⁾

18 孫浩

오경석에게 1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19 楊傳第

楊傳第(?-1861)의 字는 聽臚이고, 號는 汀鷺이며, 江蘇 陽湖人이다. 道光29년(1849)舉人이다. 涇縣 包世臣의女婿이다. 咸豐5-6年間에는 京城 內閣侍讀 葉名禮의 邸에 있으면서, 그 당시 명인 尹耕雲·李汝鈞·吳懷珍·莊域 등과 交往이 빈번했다. 咸豐7년(1857)會試에 참가하였지만 급제하지 못했다. 河督 黃贊湯이 그를 불러 幕僚로 삼았다. 그 후 그는 河南 開封知府 벼슬을 하였다. 그 당시 捻軍이 河南一帶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母가 그를 찾아오다 入

41) 李玉安、黃正雨. (2005). 『中國藏書家通典』. 中國國際文化出版社, p.593.

“葉名禮(1811-1859)清學者、藏書家。字潤臣，號瀚源。葉志詒之子、葉名琛兄，漢陽(今屬武漢)人。道光十七年(1837)舉人，歷任內閣中書、同文館、玉牒館幫辦、方略館校對、文淵閣檢閱、侍讀，至浙江候補道員。博學好古，工詩。好游山水，中年遍游江漢、吳越等地，南抵黔中，北至雁門，每到一處皆記一詩。喜藏書，家有“敦宿好齋”、“寶雲齋”，藏書甚富，擁書10萬卷，以資纂述。……著『橋西雜識』，爲隨筆撮錄之書，由潘祖蔭作序。另著有『周易藝文疏證』、『戰國策地名考』、『孰夙好齋詩集』、『筆記』、『讀易叢記』、『四聲疊韻譜』、『橋西雜記』及文集等。”

42) 顧廷龍. (1992). 『清代硃卷集成(二四三)』. 臺北: 成文出版社, p.159.

“孫福清 字補璇 號介廷 又號稼亭 行二 道光丙戌十二月初五日生 浙江 嘉興府 嘉善縣 民籍 咨部優行選拔貢生 肄業詒經精舍”

城하기도 전에 捻軍을 만나 피살당했다. 母親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傳第는 投水하였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 구조된 후 그는 母의 장례를 마치고는 仰藥하고 殉母하였다. 傳第는 駢體文을 잘하였으며, 또한 詩詞에도 능했다. 文宗桐城、詞守常州一派이다. 『汀鷺文鈔』三卷 · 『詞鈔』一卷 · 『詩鈔』二卷 · 『楊聽臚遺書』一冊이 있다.⁴³⁾

20 呂倌孫

呂倌孫은 侄孫의 弟다. 字는 星田, 江蘇 陽湖人이다. 散館을 통해 編修직을 받았으며 廣東 雷瓊道 벼슬을 하였다.⁴⁴⁾

21 敖冊賢

敖冊賢의 字는 金甫이고, 榮昌人이다. 咸豐癸丑進士이다. 庶吉士로 신분이 바뀐 후 編修職을 수여받았고 知府로 截取되었다. 『椿蔭軒詩鈔』가 있다.⁴⁵⁾

22 吳鴻恩

吳鴻恩의 字는 春海이고, 四川 銅梁人이다. 淸 翰林이며, 山西平樂道 벼슬을 하였다. 善詩工書하였으며 저서로는 『春圃詩草』가 있다.⁴⁶⁾

23 吳懷珍

吳懷珍은 청나라 浙江 錢塘人이다. 字는 子珍이고, 咸豐2년 舉人이며 教習에 합격하였다. 古文을 연구함에 있어서 主로 蘇軾을 연구하였고, 論兵함에 있어서 主로 李廣을 論하였다. 시는 中唐의 시를 배웠다. 慷慨하였으며 自負하였다. 오래 동안 都中에 머물러 있었다. 無以自表하였다. 客旅로 떠돌다 病으로

43)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書目文獻出版社, p.420. “楊傳第(?-1861), 字聽臚, 號汀鷺, 江蘇陽湖人。道光二十九年(1849)舉人, 涇縣包世臣女婿, 咸豐五~六年間在京城內閣侍讀葉名澧邸, 與時名人尹耕雲、李汝鈞、吳懷珍、莊域交往甚密。咸豐七年(1857)參加會試不第, 河督黃贊湯招為幕僚, 任河南開封知府。時捻軍在河南一帶活動, 其母尋子, 未入城遇捻軍被殺。傳第知, 先投水被人救起, 葬母畢, 即仰藥殉母。傳第工駢體文, 又工詩詞, 文宗桐城、詞守常州一派。著有『汀鷺文鈔』三卷, 詞鈔一卷, 詩鈔二卷, 『楊聽臚遺書』一冊。”

44) 朱汝珍輯. 『清代傳記叢刊·學林類』⑧·詞林輯略. 臺北：明文書局印行, p.016-354.

“呂倌孫 侄孫弟 字星田 江蘇 陽湖人 散館授編修 官至廣東雷瓊道”

45) 徐世昌. (1988). 『晚晴簃詩匯·第四冊·卷154』. 中國書店出版社, p.53.

“敖冊賢 字金甫 榮昌人 咸豐癸丑進士 改庶吉士 授編修 截取知府 有椿蔭軒詩鈔”

46) 寧志奇. (2008). 『綿竹文物選粹』. 成都：四川美術出版社, p.90.

“吳鴻恩, 字春海。四川銅梁人。淸翰林, 官至山西平樂道, 善詩工書。著春圃詩草。”

卒하였다. 好友 譚獻이 그의 遺著을 刻하여 『待堂文』이라 하였다. (『續碑傳集』 卷八一)⁴⁷⁾

24 溫忠翰

溫忠翰(1835~?)의 字는 味秋, 山西太谷敦坊村人이다. 淸 同治元年(1862)壬戌科徐郃榜進士第三人이다. …… 溫忠翰은 어린 시절에 이미 奇才라는 盛名을 갖고 있었다. 그의 개성은 특별히 醇厚하고 謹慎하였다. 咸豐8년, 溫忠翰은 順天鄉試에 參加하여 舉人으로 합격하였다. 溫忠翰은 進士 及第 후에 翰林院編修職을 수여받았다. 同治6년 溫忠翰은 湖南學政職을 맡았으며, 湖北按察使 벼슬까지 하였다. 후에 溫忠翰은 자리를 옮겨 詹事府贊善 벼슬을 하였으며, 또 자리를 옮겨 中允 벼슬도 하였다. 光緒元年, 溫忠翰은 四川鄉試의 副考官을 맡기도 했다. 그는 司經局洗馬를 역임하였다. 浙江溫州處州道道臺가 되었다. …… 光緒6년, 溫忠翰은 湖南學政職을 맡았다. 光緒9년, 陝西按察使로 晉升하였다. 光緒11년, 溫忠翰은 湖北按察使로 자리를 옮겼다. 光緒12년, 溫忠翰은 以病休致하고 回歸故里하였다. …… 溫忠翰은 거문고를 잘 탔고, 겸하여 六法에까지 精하였다. 일찍이 周少白과 '琴畫會'를 結社한 적도 있었다. 『名翰賞心集』·『古詩欣賞集』·『紅葉庵詩文集』 各若干卷이 있다.⁴⁸⁾

25 王軒

王軒(1823-1887)의 字는 霞舉이고, 號는 顧齋이며 山西 洪洞人이다. 同治元年(1862)進士이다. 그의 考卷은 한 때 樣板으로 취급되기도 했었다. 大學士 祁雋藻가 그의 文을 읽고는 感慨하면서 말하기를 "石洲(張穆)의 뒤를 이을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였다. 예전에 軍機處에 記名되었다. 그러다 8년(1869)에

47) 張搗之、沈起煒、劉德重 主編. (1999).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上海古籍出版社，p.1061. “吳懷珍淸浙江錢塘人，字子珍。咸豐二年舉人，考取教習。治古文主蘇軾，論兵主李廣，詩學中唐。慷慨自負，久留都中，無以自表。病卒客旅。好友譚獻刻其遺著為『待堂文』。(『續碑傳集』卷八一)”

48) 王鴻鵬等. (2004). 『中國歷代探花』. 北京：解放軍出版社，pp.355-356. “溫忠翰(1835~?)，字味秋，山西太谷敦坊村人。淸同治元年(1862)壬戌科徐郃榜進士第三人。……溫忠翰年少時已經負奇才的盛名，他個性特別醇厚、謹慎。咸豐八年，溫忠翰參加順天鄉試，考中舉人。溫忠翰進士及第後，授翰林院編修。同治六年，溫忠翰出任湖南學政。官至湖北按察使。後來，溫忠翰轉任詹事府贊善、又改任中允。光緒元年，溫忠翰任四川鄉試副考官。歷任司經局洗馬，成為浙江溫州處州道道臺。……光緒六年，溫忠翰出任湖南學政。光緒九年，晉升陝西按察使。光緒十一年，溫忠翰調任湖北按察使。光緒十二年，溫忠翰以病休致，回歸故里。……溫忠翰還善于撫琴，兼精六法。他曾與周少白結社“琴畫會”。著有『名翰賞心集』、『古詩欣賞集』、『紅葉庵詩文集』各若干卷。”

回籍하였다. 先後로 運城宏運 · 晉陽 · 令德堂書院의 主講을 맡았다. 또한 光緒 『山西通志』 總纂도 맡았었다. 이것은 그의 方志理論과 실천의 산물이다. 梁啟超의 『中國近三百年學術史』에서 평하기를 "전국 걸출한 方志 가운데의 하나"라고 높이 推崇하였다. 王軒은 楷書는 顏真卿 · 柳公權을 따라 배웠고, 行草는 王羲之를 따라 배웠으며, 또한 겸하여 傅山도 따라 배웠다. 朝鮮 使臣들은 특히 그의 篆籀를 喜好하였다. 그는 詩에 아주 擅長하였다. 翰林院 檢討 董文煥 형제 3人是 모두 그를 모시고 詩法을 배웠다. 저서로는 『山西疆域沿革圖譜』 五卷 · 『洪洞縣志稿』 十六卷 · 『勾股備算細草』 九卷 · 『顧齋遺集』 二卷 · 『樞經廬詩集』 初編八卷 續編十三卷 · 『王軒日記』 (手稿) 五冊이 있다.⁴⁹⁾

26 劉景澤

오경석에게 3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27 劉銓福

劉位坦(約1802-1861)은 청나라의 著名한 藏書家이자, 書畫家이다. 字는 寬夫이고, 號는 後園이며, 順天 大興(오늘날 北京)人이다. 道光5年(1825) 拔貢生이다. 咸豐元年(1851)에는 御史의 신분으로 湖南 辰州府에서 벼슬을 하였다. 咸豐8년에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 劉位坦의 子는 劉銓福이다. 字는 子重이고, 號는 白雲吟客이다. 刑部主事 벼슬을 하였다. 아버지의 藏書를 물려받았다. 晚淸에 著名한 金石書畫收藏家이다. 藏書에는 모두 "劉氏校堂" · "大興劉氏校經堂藏書印" · "大興劉銓福家世守印" · "磚祖齋" · "子重" 등 印章이 찍혀 있다.⁵⁰⁾ 銓福의 字는 子重이다. 刑部主事 벼슬을 하였다. 能

49) 董文煥(淸) 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 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p.119-120. “王軒(1823-1887), 字霞舉, 號顧齋, 山西洪洞人. 同治元年(1862)進士, 他的考卷曾被視為樣板, 大學士祁雋藻讀其文感慨地說: 「石洲(張穆)後繼有人!」 曾任軍機處記名, 八年(1869)回籍, 先後主講運城宏運、晉陽、令德堂書院, 又任光緒 『山西通志』 總纂, 這是他方志理論與實踐的產物, 被梁啟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推崇為全國杰出方志之一. 王軒楷書宗顏柳, 行草宗王羲之, 又兼法傅山. 朝鮮使臣尤喜好其篆籀. 擅長作詩, 翰林院檢討董文煥兄弟三人都從其學詩法. 著有『山西疆域沿革圖譜』五卷、『洪洞縣志稿』十六卷、『勾股備算細草』九卷、『顧齋遺集』二卷、『樞經廬詩集』初編八卷 · 續編十三卷、『王軒日記』(手稿)五冊等.”

50) 李玉安、黃正雨. (2005). 『中國藏書家通典』. 中國國際文化出版社, p.572.

“劉位坦(約1802-1861)淸著名藏書家、書畫家. 字寬夫, 號後園. 順天大興(今屬北京)人. 道光五年(1825)拔貢生, 咸豐元年(1851)以御史出守湖南辰州府, 咸豐八年乞歸. ……子劉銓福, 字子重, 號白雲吟客, 官刑部主事, 繼承藏書, 爲晚淸著名金石書畫收藏家. 且藏書均鈐有“劉氏校堂”、“大興劉氏校經堂藏書印”、“大興劉銓福家世守印”, “磚祖齋”、“子重”等.”

世其學하였으며, 花卉에 역시 능했다.⁵¹⁾

28 劉存仁

劉存仁의 字는 炯夫이다. 閩縣人이며 道光己酉 舉人이다. 秦州知州 벼슬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配雲樓集』이 있다.⁵²⁾

29 陸以烜

大清嘉慶十九年進士題名碑錄甲戌科 · 賜進士出身第二甲一百名 · 祁寯藻(第3名)、陸以烜(第8名). 陸以烜은 浙江 杭州府 錢塘縣人이다.⁵³⁾

30 恩堃

觀祐와 함께 오경석에게 서신 1통을 보냈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31 李暉緒

오경석에게 2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32 李炳勳

寶名齋 주인 李炳勳의 字는 崇山이며, 山西 文水縣人이다. 同治年間に 開設하였는데 鋪面房은 모두 九間이다. 그러므로 廠肆에서 可謂 '第一巨大書肆'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諺語로 '琉璃廠一條龍, 九間門面是寶名'이라는 말도 있었다. 崇山은 당대 大吏들과 交結하였는데, 賀壽慈 등과 가까이 지냈다.⁵⁴⁾

33 李士棻

李士棻(1821-1885)은 청나라의 藏書家이자, 詩人이다. 字는 重叔이며, 號는 芋仙 · 二愛山人 · 悔余道人으로 忠州(오늘의 四川忠縣)人이다. 道光29년(1849)

51) 李潛之, 『清代傳記叢刊·藝林類⑩·清畫家詩史(三)』, 臺北: 明文書局印行, p.077-102.

“銓福 字子重 官刑部主事 能世其學 亦善花卉”

52) 徐世昌, (1988), 『晚晴簃詩匯·第三冊·卷149』, 中國書店出版社, p.822.

“劉存仁 字炯夫 閩縣人 道光己酉舉人 歷官秦州知州 有配雲樓集”

53) 李周望等, (1969), 『明清歷科進士題名碑錄』, 臺北: 華文書局, p.2305.

“大清嘉慶十九年進士題名碑錄甲戌科 · 賜進士出身第二甲一百名 · 祁寯藻(第3名)、陸以烜(第8名). 陸以烜 浙江 杭州府 錢塘縣人.”

54) 孫殿起, (2010), 『琉璃廠小志』,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99.

“寶名齋 李炳勳 字崇山 山西 文水縣人 于同治間開設 鋪面房 凡九間 在廠肆 可謂第一巨大書肆 當時 諺稱 琉璃廠一條龍 九間門面是寶名 崇山交結當代大吏 如賀壽慈等”

拔貢生이다. 同治 初에 彭澤知縣을 지냈으며, 그 후 江西臨川(오늘의 撫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벼슬을 하였다. 벼슬을 하는 동안 정치를 잘하여 名聲이 자자하였다. 曾國藩은 그의 詩文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 李士棻은 당시 中江 李鴻裔와 劍州 李榕과 함께 '四川三李'라는 명성을 얻었다. 藏書하기를 좋아하였는데, 彭澤令 벼슬을 하는 동안 만권 서책을 가지고 있었다. 벼슬을 그만둔 후 상해에 우거해 있으며, 藏書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狂傲한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目極無人이었다. 소장한 책이 풍부하다고 스스로 자랑으로 생각하였다. …… 벼슬을 그만둔 후 상해에서 20여 년간 우거하였다. 저서로는 『天瘦閣詩草』·『天補樓行記』 등이 있다.⁵⁵⁾

34 張啟泰

漢나라 張齊의 銅印을 연음으로 인해 張啟泰는 이름을 齊로 바꾸었다. 字는 仰山이고, 大興人이다. 賞鑑에 精하였으며, 겸하여 隸·楷도 잘 썼다.(『木葉廐法書記』에 실려 있다.)⁵⁶⁾

35 張世準

張叔平(世準)은 湖南 永綏廳人이다. 道光癸卯년 舉人이다. 刑部主事 벼슬을 하였다. 京師에 오래 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山陰 周少白과 齊名하였다. 墨梅를 잘 그렸는데 縱橫槎枒하였으며, 乾濕畫法을 互用하였다. 圈花點椒는 別具一格이었다. 山水는 枯勁하면서도 그 가운데 淹潤함이 있었다. 文五峰·釋漸江·查二瞻·吳墨井 등 諸家의 화법과 비슷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그린 그림은 真苗疆山水라고 하는데, 이는 실로 그릇된 評이다.⁵⁷⁾

55) 李玉安、黃正雨. (2005). 『中國藏書家通典』. 中國國際文化出版社, pp.615-616.

“李士棻(1821-1885)清藏書家、詩人。字重叔，號芋仙，號二愛山人、悔余道人。忠州(今四川忠縣)人。道光二十九年(1849)拔貢生，同治初任彭澤知縣，繼移任于江西臨川(今撫州)，政聲卓著。以詩文為曾國藩所看重，當時與中江李鴻裔、劍州李榕號稱“四川三李”。喜藏書，任彭澤令時，攜書萬卷自隨。辭去官職後，流寓上海，聚書益勤。性亦狂傲，目極無人，以藏書富而自驕。……退官後，曾流寓上海閒居20多年。著『天瘦閣詩草』、『天補樓行記』等。”

56) 金毓紱. (1985). 『遼海叢書·皇清書史·卷十五』. 沈陽: 遼沈書社, p.1531. “張啟泰 因得漢張齊銅印 遂改名齊 字仰山 大興人 精賞鑑 兼工隸楷(『木葉廐法書記』)”

57) 張鳴珂著、丁義元校點、唐金海復校. (1988). 『寒松閣談藝瑣錄』.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p.75. “張叔平(世準), 湖南永綏廳人。道光癸卯舉人, 官刑部主事, 住京師久, 與山陰周少白齊名。善墨梅, 縱橫槎枒, 乾濕互用, 圈花點椒, 別具一格。山水枯勁中饒淹潤, 近文五峰、釋漸江、查二瞻、吳墨井諸家, 時人有謂為真苗疆山水者, 實謬評也。”

36 程祖慶

程祖慶의 字는 忻有, 號는 穉衡이다. 嘉定人이며 庭鷺의 子이다. 監生이었는데, 議敘鹽場大使 벼슬을 하였다. 畫는 家學을 계승하였기에 筆姿가 幽秀하고, 停雲館(文徵明)의 法을 근본으로 하였다. 『小松圓閣集』이 있다.⁵⁸⁾

37 周棠

周棠의 字는 召伯, 혹은 少白이다. 號는 蘭西이며, 山陰人이다. 光祿寺署正 벼슬을 하였다. 山水花木은 青藤老人 徐渭(1521—1593)와 白陽山人 陳淳(1482或1483—15??)의 法을 배웠다. 晩年에 와서는 石畵를 주로 그렸다. 구속됨이 없이 자유자재로 팔목을 움직이는 그의 法은 붓을 잡기만 하면 하루에 몇 폭씩을 곧바로 그려내었다.⁵⁹⁾

38 周壽昌

周壽昌의 字는 應甫, 혹은 苻農이다. 湖南 長沙人으로 道光乙巳년 進士였으며, 內閣學士 벼슬을 하였다. 博覽하는 동안 틈만 나면 書畵를 즐겼다. 특히 兩漢書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늙었음에도 校正補注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저서로는 『思益堂集』이 있다.⁶⁰⁾

39 曾可傳

오경석에게 1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40 蔡兆槐

蔡兆槐의 字는 植三이며, 江蘇 崇明人으로 咸豐癸丑 進士이다. 十年 三月 戶部主事로 入直하였다. 現 榆林府 知府 벼슬을 하고 있다.⁶¹⁾

58) 李潛之, 『清代傳記叢刊·藝林類⑩·清畫家詩史(三)』, 臺北: 明文書局印行, p.077-197.

“程祖慶 字忻有 號穉衡 嘉定人 庭鷺子 監生 議敘鹽場大使 畫承家學 筆姿幽秀 宗法停雲館 有小松圓閣集”

59) 李潛之, 『清代傳記叢刊·藝林類⑩·清畫家詩史(三)』, 臺北: 明文書局印行, p.077-177.

“周棠 字召伯 一字少白 號蘭西 山陰人 官光祿寺署正 山水花木 學白陽青藤 晩年畫石 信腕揮灑隨筆題句 日得數幅”

60) 李潛之, 『清代傳記叢刊·藝林類⑩·清畫家詩史(三)』, 臺北: 明文書局印行, p.077-279.

“周壽昌 字應甫 一字苻農 湖南 長沙人 道光乙巳進士 官內閣學士 博覽之餘間 作書畫 尤癖嗜兩漢書 為校正補注 至老不倦 有思益堂集”

61)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編, 『續修四庫全書·七五一·史部·職官類·樞垣記略(卷一九)』,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151. “蔡兆槐 字植三 江蘇 崇明人 咸豐癸丑進士 十年三月 由戶部主事入直 現官榆林府 知府”

41 何秋濤

何秋濤의 字는 願船이니, 福建 光澤人이다. 道光24년 進士이다. 刑部主事 벼슬을 했다. 侍郎 李嘉端이 安徽를 순찰하고자할 때 자신도 동행하겠다고 조정에 요청했으며, 결국 임금의 允許를 받고는, 李嘉端과 함께 安徽 순찰을 떠났다. 京師에 돌아와서는 經世之務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俄羅斯는 우리나라(청나라) 북부변경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邊卡와 아주 가까이 있다. 하지만 俄羅斯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專書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參証 借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北徼彙編六卷』을 저술하였다. …… 이후 승급하여 員外郎 · 懋勤殿行走 등 벼슬도 하였다. 旋復以憂하여 벼슬을 그만두었다. 同治元년에 卒하니 享年 39세였다. 기타 저서로는 『王會篇箋釋三卷』 등이 있다.⁶²⁾

42 許春榮

오경석에게 2통의 서신을 보내왔다. 기타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43 胡義贊

胡石查(義贊)는 河南 光山人이다. 浙江同知 벼슬을 하였다. 金石考證之學에 아주 능했다. 소장한 泉幣는 모두 希品이었고, 證據가 精確하였는데, 鮑臆園과 비겼을 때 전혀 손색이 없었다. 書畫는 모두 董文敏을 따라 배웠는데, 清潤淹雅하였을 뿐만 아니라, 董文敏의 書畫와 비슷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농담을 잘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피곤함도 잊게 하였다. 趙疏庵과 尺牘 내왕을 하였는데 裝冊積寸하였다.⁶³⁾

위에서 43명 중사의 履歷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기에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43명 중사들의 履歷을

62) 王鍾翰點校.(1987). 『清史列傳·卷七十三·文苑傳四』, 北京:中華書局出版, pp.6054-6055. “何秋濤 字願船 福建 光澤人 道光二十四年進士 授刑部主事 侍郎 李嘉端 巡撫安徽 奏辟自隨 比還京師 益留心經世之務 以俄羅斯地居北徼 與我朝邊卡切近 而未有專書 以資考鏡 著北徼彙編六卷 …… 晉官員外郎 懋勤殿行走 旋復以憂去官 同治元年 卒年三十九 所著王會篇箋釋三卷”

63) 張鳴珂著、丁義元校點、唐金海復校. (1988). 『寒松閣談藝瑣錄』,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p.75. “胡石查(義贊), 河南光山人。官浙江同知。長金石考證之學, 所藏泉幣, 皆希品, 證據精確, 不讓鮑臆園也。書畫皆學董文敏, 清潤淹雅, 不僅貌似。又善諧談, 聽者忘倦, 與趙疏庵尺牘往還, 裝冊積寸矣。”

籍貫・科擧・官職・特長・備註 등 5가지로 분류하여 도표로 제작하면 대체로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籍貫・科擧・官職・特長・備註에 근거해 정리한 中士들의 履歷			
1	高繼珩	籍貫	遷安
		科擧	嘉慶戊寅舉人
		官職	廣東鹽場大使
		特長	善墨蘭・善詩
		備註	邊袖石・華枚宗과 함께 "畿南三子"라 알려졌다.
2	顧肇熙	籍貫	江蘇吳縣
		科擧	同治甲子舉人
		官職	吉林分巡道・陝西鳳陽鹽法道・福建臺灣道
		特長	善詩・善書
		備註	歲甲辰年에 거금을 들여 마을에 小學堂을 설립하였다.
3	孔憲彝	籍貫	山東曲阜
		科擧	道光丁酉舉人
		官職	內閣中書
		特長	善畫・善篆刻・善詩.
		備註	孔子第72代孫이다.
4	觀祐		未知
5	萬青藜	籍貫	九江府 德化縣
		科擧	道光19年舉人. 道光20年進士. 朝考에서 朝元으로 뽑혔다.
		官職	翰林院 編修・侍講侍讀學士 등 벼슬을 하였다. 同治4年(1865年)11月 萬青藜는 兵部에서 자리를 옮겨 禮部尚書 겸 順天府尹 벼슬을 하게 되었으며 紫禁城騎馬를 恩賞받았다. 光緒4年(1878年) 萬青藜는 또 部署를 옮겨 吏部尚書 벼슬을 하다 光緒7년에는 다시 翰林院掌院을 兼任하였다.
		備註	四朝皇帝를 服侍하였다. (道光帝・咸豐帝・同治帝・光緒帝)
6	明基 和南		未知
7	潘祖蔭	籍貫	吳縣(今江蘇 蘇州)
		科擧	咸豐2年(1852)進士
		官職	授編修. 光緒년간엔 工部・兵部・戶部尚書 겸 順天府尹 벼슬까지 하였다. 軍機處에 入直하였다.
		特長	圖書와 金石收藏家・書法家・善畫・善篆刻
		備註	收藏品이 하도 많아 海內・外까지 그 이름이 알려졌다.
8	潘曾綬	籍貫	吳縣
		科擧	道光20年(1840)舉人
		官職	內閣中書・內閣詩讀 벼슬을 하였다.
		特長	善詩
		備註	潘祖蔭의 父이다.

9	方??		未知
10	樊觀玉	籍貫	天津
		備註	樊彬의 아들이다.
11	樊彬	籍貫	天津
		科擧	여러 차례 秋闈에 응했으나 번번이 합격하지 못했다.
		官職	史館에서 謄錄을 하였고, 冀州司訓도 하였으며, 靳水縣丞도 하였다.
		特長	善詩
12	濮森	籍貫	浙江錢塘(今杭州)
		特長	善刻印
13	符葆森	籍貫	江蘇 江都
		科擧	咸豐元年舉人
		特長	善詩
		備註	乾隆·嘉慶·道光 三朝의 총 2,000여 명에 달하는 인사가 지은 시를 편 집하고 정리하여 100卷으로 만들고 이름을 『正雅集』이라 명하였다.
14	徐志洵	籍貫	安徽
		官職	商人
		備註	寶文齋 주인인데 當時의 老官僚들과 交易을 많이 하였기에 同業 中 에서 盛傳하였다.
15	徐昌緒	籍貫	豐都縣 雙龍鄉
		科擧	咸豐年間進士
		官職	翰林院編修가 되었으며 重慶 東川書院長을 지냈다.
		特長	善書
16	葉名澧	籍貫	漢陽(今屬武漢)
		科擧	道光17年(1837)舉人
		官職	內閣中書·同文館·玉牒館幫辦·方略館校對·文淵閣檢閱·侍讀· 浙江候補道員 등 직을 歷任하였다.
		特長	善詩·好古·藏書家
17	孫福清	籍貫	浙江 嘉興府 嘉善縣
		科擧	咨部優行選拔貢生
18	孫浩		未知
19	楊傳第	籍貫	江蘇 陽湖
		科擧	道光29年(1849)舉人
		官職	河南 開封知府 벼슬을 하였다.
		特長	善詩
20	呂倌孫	籍貫	江蘇 陽湖
		官職	散館을 통해 編修직을 받았다. 廣東 雷瓊道 벼슬을 하였다.
21	敖冊賢	籍貫	榮昌
		科擧	咸豐癸丑進士
		官職	庶吉士로 신분이 바뀐 후 編修職을 수여받았다. 知府로 截取되었다.
		特長	善詩
22	吳鴻恩	籍貫	四川 銅梁人
		官職	淸 翰林이며 山西平樂道 벼슬을 하였다.
		特長	善詩工書

23	吳懷珍	籍貫	浙江錢塘
		科舉	咸豐2年舉人
		特長	好古・善詩・善論兵
24	溫忠翰	籍貫	山西太谷敦坊村
		科舉	同治元年(1862)壬戌科徐郃榜進士第三人
		官職	翰林院編修・湖南學政・湖北按察使・詹事府贊善 벼슬을 하였다.
		特長	善撫琴・精六法
25	王軒	籍貫	山西 洪洞
		科舉	同治元年(1862)進士
		特長	善方志理論・善書・善詩
		備註	光緒『山西通志』總纂도 맡았었다. 軍機處에 記名되었다.
26	劉景澤		未知
27	劉銓福	籍貫	大興(今北京)
		官職	刑部主事 벼슬을 하였다.
		特長	金石書畫收藏家이자 書畫家이다.
28	劉存仁	籍貫	閩縣
		科舉	道光己酉舉人
		官職	秦州知州 벼슬을 歷任하였다.
		特長	善詩
29	陸以烜	籍貫	浙江 杭州府 錢塘縣
		科舉	嘉慶19年進士
30	恩堃		未知
31	李暉緒		未知
32	李炳勳	籍貫	山西 文水縣
		官職	商人
		備註	實名齋 주인이다. 當代大吏들과 交結하였다. 廠肆에서 "第一巨大書肆"라는 말을 들었다.
33	李士棻	籍貫	忠州(오늘의 四川忠縣)
		科舉	道光29年(1849)拔貢生
		官職	同治 初에 彭澤知縣을 지냈으며 그 후 江西臨川(오늘의 撫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벼슬을 하였다.
		特長	藏書家이자 詩人이다.
		備註	曾國藩은 그의 詩文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 李士棻은 당시 中江 李鴻裔와 劍州 李榕과 함께 "四川三李"라는 명성을 얻었다.
34	張啟泰	籍貫	大興
		特長	賞鑑에 精하였으며 隸楷도 잘 썼다.
		備註	漢나라 張齊의 銅印을 얻음으로 인해 그는 이름을 齊로 바꾸었다.
35	張世準	籍貫	湖南 永綏廳
		科舉	道光癸卯舉人
		官職	刑部主事
		特長	善墨梅
		備註	山陰 周少白과 齊名하였다.
36	程祖慶	籍貫	嘉定人
		官職	監生이었는데 議敘鹽場大使 벼슬을 하였다.

		特長	善畫
37	周棠	籍貫	山陰
		官職	光祿寺署正 벼슬을 하였다.
		特長	善畫
		備註	"晚淸畫石第一"
38	周壽昌	籍貫	湖南 長沙
		科擧	道光乙巳進士
		官職	內閣學士
		特長	善書畫
39	曾可傳		未知
40	蔡兆槐	籍貫	江蘇 崇明
		科擧	咸豐癸丑進士
		官職	戶部主事・榆林府 知府 벼슬을 하였다.
41	何秋濤	籍貫	福建 光澤
		科擧	道光24年進士
		官職	刑部主事・員外郎・懋勤殿行走 등 벼슬을 했다.
		特長	善地理
42	許春榮		未知
43	胡義贊	籍貫	河南 光山
		官職	浙江同知 벼슬을 하였다.
		特長	善金石考證之學・善書畫

위의 <표 3>과 같이 43명 중사들의 履歷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3>에 근거하여 중사들의 출신지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中士들의 출신지역 분포 양상			
省份	地方名	姓名	人員數
江蘇省	江蘇 吳縣人(今江蘇 蘇州人)	顧肇熙, 潘祖蔭, 潘曾綬	7
	江蘇 江都人	符葆森	
	江蘇 陽湖人	楊傳第, 呂倌孫	
	江蘇 崇明人	蔡兆槐	
浙江省	浙江 錢塘人(今杭州人)	濮森, 吳懷珍, 陸以烜	5
	浙江 嘉興府 嘉善縣人	孫福清	
	浙江 山陰人(今浙江紹興)	周棠	
四川省	四川 重慶府 豐都縣 雙龍鄉人	徐昌緒	4
	四川 重慶府 榮昌人	敖冊賢	
	四川 銅梁人	吳鴻恩	
	四川 忠州(今四川忠縣)人	李士棻	
山西省	山西 太谷敦坊村人	溫忠翰	3
	山西 洪洞人	王軒	
	山西 文水縣人	李炳勳	
福建省	福建 閩縣人	劉存仁	2
	福建 光澤人	何秋濤	

湖南省	湖南 永綏廳人	張世準	2
	湖南 長沙人	周壽昌	
北京市	大興(今北京)人	劉銓福, 張啟泰	2
天津市	天津人	樊觀玉, 樊彬	2
河北省	河北 遷安人	高繼珩	1
河南省	河南 光山人	胡義贊	1
湖北省	湖北 漢陽(今屬武漢)人	葉名澧	1
安徽省	安徽人	徐志洵	1
上海市	嘉定人(今屬上海市)	程祖慶	1
江西省	江西 九江府 德化縣人	萬青藜	1
山東省	山東 曲阜人	孔憲彝	1
	未確定	觀祐, 明基和南, 方??, 孫浩, 劉景澤, 恩堃, 李暉緒, 曾可傳, 許春榮	9

위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江蘇省 출신이 7명, 浙江省 출신이 5명, 四川省 출신이 4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 4>의 숫자에 근거해 보면 오경석은 주로 東南沿海 지방출신의 중사들과 많이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지방 출신 중사들과도 여러모로 왕래했음도 확인된다. 계속하여 43명 중사들의 과거급제 상황에 대해 정리한 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中士들의 科擧及第 여부		
科擧及第	人名	人數
進士	萬青藜, 潘祖蔭, 徐昌緒, 敖冊賢, 溫忠翰, 王軒, 陸以烜, 周壽昌, 蔡兆槐, 何秋濤.	10
舉人	高繼珩, 顧肇熙, 孔憲彝, 潘曾綏, 符葆森, 葉名澧, 楊傳第, 吳懷珍, 劉存仁, 張世準.	10
拔貢生	孫福清, 李士棻.	2
未確認	觀祐, 明基和南, 方??, 樊觀玉, 樊彬, 濮森, 徐志洵, 孫浩, 呂倌孫, 吳鴻恩, 劉景澤, 劉銓福, 恩堃, 李暉緒, 李炳勳, 張啟泰, 程祖慶, 周棠, 曾可傳, 許春榮, 胡義贊.	21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43명 중사 중 21명에 달하는 인사들에 관한 과거급제 상황은 파악할 수가 없다. 그 외 상황파악이 가능했던 22명 중사들을 본다면 10명은 進士⁶⁴⁾에 급제를 했고, 10명은 舉人⁶⁵⁾에 머물렀으며,

64) 진사(進士): "明清 시기, 殿試에 합격한 사람을 進士라 하였다.(明清時稱殿試考取的人)"

65) 거인(舉人): "明清 兩代에, 鄉試에 합격한 자를 舉人이라한다. (明清兩代稱鄉試考取的人)"

2명은 拔貢生⁶⁶⁾이었다. 모두 43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중사가 舉人, 혹은 進士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중사로는 萬靑藜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道光帝로부터 시작하여 咸豐帝 · 同治帝 · 光緒帝 4개 朝代를 거치면서 벼슬을 해왔던 인물이었다. 萬靑藜는 그동안 禮部尙書 · 吏部尙書 등 요직에서 근무해왔었다. 그는 또한 황제로부터 '紫禁城騎馬'를 恩賞 받기도 한 인물이었다. 이 같은 殊榮은 황제의 신임을 얻은 신하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 또 다른 중사로는 潘祖蔭을 거론할 수 있다. 그는 光緒년간에 工部尙書 · 兵部尙書 · 戶部尙書 겸 順天府尹 벼슬까지 했던 인물이었으며, 軍機處라는 중요한 부서에서 사무를 보았던 인물이었다.

萬靑藜와 潘祖蔭과 같은 걸출한 인물은 오직 舉人 · 進士 그룹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43명 중사 중 21명에 달하는 인사들에 관한 과거급제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가령 과거시험에 급제하지 못했다고 한들 그들 중 徐志洵 · 李炳勳 · 周棠 등과 같은 인물들의 지명도는 당시에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든다면 寶文齋 주인인 徐志洵은 당시 琉璃廠에서 원로급 인물이었으며, 高官大爵들을 상대로 많은 거래를 하였기에, 그의 인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寶名齋 주인 李炳勳은 당시 琉璃廠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그 역시 폭 넓은 인맥을 자랑하였다. 周棠은 "清代畫石第一"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그림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의 이름은 해내 · 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와 같이 오경석과 교류했던 43명 중사 중에는 政治家 · 商人 · 畫家 · 學者 등 다양한 신분의 인사들이 있었다.

몇 명의 걸출한 중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경석과 교류했던 43명 중사 모두에 대해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트라고 판단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43명 중사 중 일부는 『中國人名大辭典』 · 『清代歷代舉人進士人名錄』 등 기록물에서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몇 가지 원인으로 기인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두 번째로는 평생 동안 작품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는 모든 방면에서 너무도 평범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과거에 급제했거

66) 郝鵬.(2008). 『清代國子監制度研究』, 哈爾濱市: 黑龍江人民出版社, p.60. "拔貢生の 簡稱은 拔貢이다. 拔貢이란 각종 貢監生 중에서 소질이 제일 높고 重視를 제일 많이 받는 자를 말한다. (拔貢生, 簡稱拔貢. 拔貢是各種貢監生中素質最高、最受重視者。)"

나, 남겨놓은 작품이 있다거나, 그림 혹은 시에 조예가 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43명 중사 중 孫浩 · 劉景澤 · 許春榮 · 明基和南 등 중사들은 그 어떠한 기록에서도 그들의 자취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 만약 오경석의 『중사간독첩』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사간독첩』에 그들이 오경석에게 보낸 서신이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吳慶錫 · 『中士簡牘帖』과 함께 영원히 전해지게 된 것이다.

오경석에게 서신을 보내온 중사 43명 중 일부는 오경석이 주동적으로 먼저 서신을 보냄으로써 사귀게 되었고, 일부는 오경석에게 먼저 서신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조선에 널리 알리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

V. 『中士簡牘帖』에 보이는 中士와의 교류 내용

위의 제3장과 제4장에서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경석은 청나라의 43명 중사들과 277통에 달하는 서신 교류를 진행하였다.

오경석과 서신 교류를 한 중사들을 보면 일부는 進士 及第까지 했고, 일부는 字나 號조차 알 수 없다. 위로는 高官大爵에 이르고 아래로는 책가게 주인에 이르기까지 북경에서 오경석은 신분이 다양한 많은 중사들과 폭 넓은 교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중사들과의 교류 내용이 『중사간독첩』에 모두 실려 있다. 북경에서 오경석은 중사들과 대체로 書畫 · 金石 · 印章 · 人蔘 · 骨董品 등을 둘러싸고 폭 넓게 교류를 진행했다. 이 같은 교류가 대체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각 小節 "5.1 書畫 · 5.2 金石 · 5.3 印章 · 5.4 人蔘 · 5.5 交易 狀況 · 5.6 交流 場所"의 순서로 고찰을 진행하겠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당시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書畫 交流상황은 아래와 같다.

5.1 書畫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 가운데서 첫째로는 서화 교류를 들 수 있다. 매번의 교류에서 오경석이 여러 중사의 '서화를 요구하는 모습'⁶⁷⁾을 볼 수 있으며,

67) ①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51. "張啟泰의 서신 · 囑辦書畫各件 古玉章一方 扇匣一個 統希檢入是荷 (그려달라고 부탁한 서화 여러 점, 고옥장 한 방, 부채갑 하나도 말려 보냅니다. 같이 받아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②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p.7-8. "程祖慶의 서신 · 頃鄭齋交來求畫之件附呈 (선생이 정암 선생에게 그려달라고 부탁하신 그림을 얼마 전 정암 선생이 가져왔습니다. 말려 보냅니다.)"

③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9. "程祖慶의 서신 · 少暇或作一圖奉贈 (조금 겨를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 선생에게 드리겠습니다.)"

④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42. "程祖慶의 서신 · 托仁山所作畫 尚未交來 石章不日可了手矣 (인산 선생에게 부탁한 그림은 아직 까지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석장은 며칠 후면 완성될 것 같습니다.)"

⑤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51. "程祖慶의 서신 · 曾代老弟 乞家君作畫刻石 (예전

중사들 역시 오경석의 서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77통의 편지 곳곳에 서화 교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특히 오경석의 '墨梅'⁶⁸⁾은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여 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오경석이 묵매에 능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程祖慶의 <天竹齋圖>⁶⁹⁾를 살펴보기로 한다.

<천죽재도>는 오경석이 북경에 갔을 때 정조경이 그려준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말하는 天竹齋는 오경석의 堂號이다. 신용하의 논문⁷⁰⁾에서 밝히기를 오경석의 당호 천죽재는 吳鎭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왔다고 했다. 김현권의 논문⁷¹⁾에서도 오경석의 천죽재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논문에서는 오

에 제가 선생을 대신하여 부친에게 그림을 그려서 돌에 새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吳慶錫이 中士에게 書畫를 부탁하는 내용이 『中士簡牘帖』에 많이 나온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사례만을 들어 대신하고자 한다.

68) ①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9. "楊傳第의 서신 · 弟前懇畫梅 亦希日內作就交下 中心好之 (제가 일전에 선생에게 부탁한 매화그림도 며칠 사이에 완성하여 주신다면 제 마음이 한량없이 기쁠 것입니다.)"

②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13. "何秋濤의 서신 · 以拙詩為贈 蒙賜墨煤 中心臧之 何日忘之 (선생에게 저의 시를 드렸고 저는 선생한테서 먹으로 그린 매화그림을 받았지요. 그날의 만남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③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27. "吳懷珍의 서신 · 又蒙賜畫梅一幅 摺扇五柄 (또 선생으로부터 매화 그림 한 폭과 부채 다섯 자루를 선물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④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32. "樊彬의 서신 · 如有興畫梅 尚望留賜 (만약 흥이 일어나 매화를 그릴 수 있다면 부디 한 폭 남겨두고 가셨으면 합니다.)"

⑤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36. "樊彬의 서신 · 畫梅留贈我 歸去惜匆匆 (매화를 그려 나에게 선물하고는 총망히 동으로 돌아갔으니 너무도 아쉽네.)"

⑥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37. "樊彬의 서신 · 日前承屬刻圖章五方 並題冊頁 翠因稿又惠畫梅 奉謝二詩 茲特呈上 (전에 새겨 달라고 부탁한 도장 5방, 그리고 제를 지은 책자 취인고, 또 선생한테서 매화그림을 받고 보답의 의미에서 지은 시 두 수를 여기에 특별히 올립니다.)"

⑦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39. "樊彬의 서신 · 亦梅先生惠寄畫煤 賦此奉謝 (역매선생께서 매화그림을 보내주셨기에 이 시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⑧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40. "樊彬의 서신 · 頃復遠寄畫梅 (그런데 먼 곳에서 이렇게 또 매화그림을 보내 주시다니요.)"

⑨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41. "樊彬의 서신 · 亦煤仁兄大人惠貽畫梅 作此奉謝 (역매인형대인께서 매화그림을 보내주셨기에 이 시를 지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의 인용 자료를 보면 吳慶錫이 中士에게 墨梅를 그려주었거나 中士들의 부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中士簡牘帖』에 吳慶錫의 墨梅를 언급한 서신이 많음으로 인해 위와 같은 몇 가지 사례만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69) 김현권(2011, p.220.)의 논문에서 이미 程祖慶의 <天竹齋圖>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정조경의 <천죽재도>는 오경석과 북경에 있는 중사들과의 서화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이기에 반드시 비중 있게 다루어야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중사간독첩』과 『한객시존』에 실린 자료에 근거하여 정조경의 <천죽재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고찰해 보았다.

70) 신용하.(1985)."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107), p.109.

71) 김현권.(2011)."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37), 213-237.

경석의 당호의 탄생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권의 논문⁷²⁾에서 밝히기를 '오경석의 당호 천죽재는 오경석의 자택에 어느 날 갑자기 남천죽이 자랐음을 보고 오경석이 자신의 당호를 천죽재라고 지었다'고 했다. 오경석의 당호 천죽재의 탄생은 오경석 연구에서 어찌 보면 쉽게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 한 부분이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이미 오경석 연구 선학들께서 오경석의 당호에 대해 언급은 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므로 후학인 필자는 이 같이 엇갈리는 주장들에 대해 꼼꼼한 고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얻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오경석의 당호 천죽재의 탄생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天竹齋라는 堂號는 吳鎭의 작품에서 취한 것이다.⁷³⁾

② 天竹齋라는 堂號는 오경석의 자택 마당에 남천죽이 자라났음을 보고 天竹齋라고 취한 것이다.⁷⁴⁾

중사 葉名澧가 "조선의 오역매가 말하기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 뜰 앞에 돌연 天竹 한 무더기가 자랐기에 자신 거처의 이름을 천죽재라고 지었다'한다. 太倉 稚蘅 程祖慶이 오경석을 위해 〈天竹齋圖〉를 그려주었고, 오경석은 〈천죽재도〉를 나에게 보여 주면서 시를 요구한다. 함풍 5년(1855) 정월에 쓴다."⁷⁵⁾라는 시를 지어 오경석에게 준 적이 있다.

이처럼 오경석의 당호 천죽재라는 이름은 분명히 오경석의 자택 뜰에 天竹 한 무더기가 자랐기에 천죽재라고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오경석이 말한 天竹은 吳鎭이 잘 그렸다는 그 天竹을 가리켰는지는 알 수 없다. 吳鎭은 元나라 화가로서 竹 · 梅花 · 山水를 잘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대나무를 제일 잘 그려, 당시 그가 그린 대나무는 '天竹'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다. 오경석

72) 김현권.(2011)."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37),p.220.

73) 신용하.(1985)."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p.109.

74) 김현권.(2011)."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37),p.220.

75) 董文渙(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書目文獻出版社, p.105. "朝鮮 吳亦梅言 所居庭前 忽生天竹一叢 因顏曰天竹齋 太倉 程稚蘅祖慶爲寫圖索詩 · 咸豐五年正月 · 淸 葉名澧"

의 자택 뜰에 자란 天竹이 吳鎭이 잘 그렸다는 대나무라고 가정하고 중사들이 오경석의 <천죽재도>에 지어준 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葉名禮의 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조선의 오역매가 말하기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 뜰 앞에 돌연 天竹 한 무더기가 자랐기에, 자신의 거처 이름을 천죽재라고 지었다'한다. 太倉 稚衡 程祖慶이 오경석을 위해 <天竹齋圖>를 그려주었고, 오경석은 <천죽재도>를 나에게 보여 주면서 시를 요구한다. 함풍 5년(1855) 정월에 쓴다. -淸 葉名禮-

東海有彥英 동해에 훌륭한 선비가 있는데
奉使歸復來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다시 연경에 왔구나.
為言所居地 亦梅가 말하기를 조선에 있는 자신의 집 주위엔
溪澗相縈迴 계곡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다네.
繁花媚晴昊 갖가지 꽃들이 요염함을 뽐내고 하늘은 푸르니
淸景羅高齋 아름다운 경치가 고아한 서재 주변에 펼쳐졌다네.
偃仰此朝夕 朝夕으로 그 곳에서 편안히 지내니
時間禽語諧 무시로 조화로운 새 소리 들을 수 있다네.
舉步忽有觸 亦梅가 천천히 뜰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異卉生庭階 기이한 풀이 정원에서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네.
枝葉日以長 가지와 잎은 하루하루 커가고
果實何纍纍 과실은 어찌도 주렁주렁 달리는지.
扶搖風雪中 눈바람 속에서 마구 흔들리고 있으나
豔奪千玫瑰 그 미모는 천 송이 장미의 아름다움 앗았다네.
矧乃富藏奔 하물며 소장한 것이 풍부하며
左右牙籤披 좌우로는 牙籤을 걸쳤네.
靈秀天所貺 청수한 아름다움은 하늘이 하사한 것이니
劫火不能災 劫火인들 재앙을 가져오지 못하네.
(天竹植庭中可以避火; 天竹을 뜰에 심으면 불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老屋暫云別 古宅이 뜬 구름과 떨어져 있는 것이
夢境猶邛邛 마치 꿈속 경지의 邛邛 같다네.
重以星紀感 흐르는 세월의 슬픔보다 무거운
離緒盈深杯 이별의 아쉬움은 깊은 잔을 가득 채워 찰찰 넘치고 있네.

中朝蔚楨幹 청나라 · 조선 모두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많으나
 大雅多通材 亦梅 그대는 온갖 사물에 능통한 재주를 갖추었다네.
 班荆代圖畫 뜻 맞는 벗을 만나 담론하며 그림도 그려주는데
 分手心孔悲 헤어지려니 마음 한 구석이 슬퍼지려하는구나.
 馬首鬱遙望 말은 머리 들고 쓸쓸히 먼 곳을 바라보는데,
 楊柳春方回 버들가지 늘어질 봄이 곧 찾아오겠구나.

『敦夙好齋詩集續編』 卷三76)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위에 인용한 葉名禮의 시가 존재하기에 지금 오경석의 당호의 내력에 대해 알 수 있다. 만약 시에서 지목한 대상을 대나무라고 설정한다면 이 시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아래 시 구절 "가지와 잎은 하루하루 커가고, 과실은 어찌도 주렁주렁 달리는지. 눈바람 속에서 마구 흔들리고 있으나, 그의 미모는 천 송이 장미의 아름다움 앗았다네."라는 표현은 일반 대나무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자주에는 "천죽을 뜰에 심으면 불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天竹植庭中可以避火)"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대나무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아래의 시는 馮志沂가 준 시이다.

조선 오역매가 <천죽재도>에 시를 지어주기를 청한다. 함풍 8년 淸 馮志沂.

吳子海邦彦 오역매는 조선의 선비인데
 觀光來帝州 관광하러 연경에 왔구나.
 千金購亡書千金을 주면서도 흠어진 서적들을 사 들이는데
 插架如鄴侯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은 鄴侯77)를 떠올리게 한다네.

76)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書目文獻出版社, p.105. "朝鮮 吳亦梅言 所居庭前 忽生天竹一叢 因顏曰天竹齋 太倉 程稚衡 祖慶爲寫圖索詩·咸豐五年正月·淸 葉名禮".

77) 楊立誠, 金步瀛.(1987). 『中國藏書家考略』. 上海市：上海古籍出版社, p.85. "李泌의 字는 長源이다. 唐나라 開元 10년에 태어났으며, 貞元 5년에 68세의 나이로 卒하였다. 魏나라 柱國 李弼의 六世孫이다. 그는 원래 살던 곳에서 거처를 옮겨 京兆에 와 살았다. 그는 鄴侯에 봉해졌다. 그의 집엔 소장한 책이 매우 많았는데 後人들은 그의 藏書之處를 「鄴架」라고 불렀다. 韓愈의 詩에서 이르길：「鄴侯의 집엔 책이 많은데, 서가엔 三萬軸이 있다네.」라고 하였다. (李泌, 字長源, 生於唐開元十年, 卒於貞元五年, 年六十八. 魏柱國弼六世孫. 徙居京兆, 封鄴侯, 家富藏書, 後人因稱其藏書之處爲「鄴架」. 韓愈詩云：「鄴侯家

嘉卉手親植 아름다운 초목들은 오역매 스스로 심은 것인데
 云可祛鬱攸 말하기를 그 같은 초목들은 가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네.
 青柯綴朱實 푸른 가지에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이
 掩映珊瑚鉤 산호구를 초과하였구나.
 ……下略…… ……하략……

『西喻山房全集』卷五⁷⁸⁾

위에 인용한 시는 馮志沂가 <천죽재도>를 노래한 畫題詩이다. 비록 시의 일부만을 인용했지만, 얼마 안 되는 편폭 속에 言外에 함축된 詩意는 무궁하다. "千金을 주면서도 흠어진 서적들을 사 들이는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은 鄴侯를 떠올리게 한다네."라는 시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경석이 서책 구입에 아주 열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千金을 들여서라도 귀중한 서적을 구입하고자 했던 28세의 패기에 넘치는 젊은 오경석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鄴侯에 비견할 정도라고 했으니, 오경석이 사 들인 책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아름다운 초목들은 오역매 스스로 심은 것인데, 말하기를 그 같은 초목들은 가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네. 푸른 가지에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이 산호구를 초과하였구나."라는 시구를 통해 오경석의 천죽재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열매 색상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중사 王軒이 지은 시이다.

오경석의 <천죽재도>에 시를 짓다. 함풍 8년, 淸 王軒.

……前略…… ……전략……
 嘉卉敷庭榮 아름다운 초목이 정원에 가득 자랐는데
 厭火名舊識 불을 싫어 한다는 이름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네.
 青柯婀娜條 푸르고婀娜한 가지는
 朱顆瓔珞飾 빨간색 瓔珞으로 장식되었구나.
 ……後略…… ……후략……

多書，插架三萬軸。」)”

78)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書目文獻出版社，pp.118-119. "朝鮮 吳亦梅 索題天竹齋圖·咸豐八年·淸 馮志沂".

위에 인용한 시는 王軒이 <천죽재도>에 지은 시의 일부분이다. "아름다운 초목이 정원에 가득 자랐는데, 불을 싫어 한다는 이름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 다네. 푸르고婀娜한 가지는 빨간색 瓔珞으로 장식되었구나."라는 시구를 통 해 다시 한 번 오경석의 천죽재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 대나무가 아님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대체 어떤 식물을 정원에 심으면 화재도 피할 수 있고, 열매가 빨간색 인가? 이 같은 의문을 품고 식물사전에서 확인했더니 과연 위와 같은 두 속 성을 모두 겸비한 식물을 찾을 수 있었다.

天竹, 다른 이름으로 南天竹이라고도 한다. 옛 사람들은 天竹을 심으면 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南天竹은 장수함의 상징이었고, 자식 많음의 상징 이었다. 長江유역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⁸⁰⁾

위에서 언급한 南天竹이 바로 오경석의 정원에서 자란 그 天竹임이 분명하 다. 『국어사전』에서는 南天竹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남천[南天] : 【명사】 [식물] 매자나뭇과(科)에 속한 상록 관목. 높이는 3미 터 정도이고, 잎은 딱딱하고 깃꼴 겹잎이다. 6~7월에 흰색의 작은 꽃이 피고, 가을에 둥근 열매가 빨갭게 익는다. 주로 관상용으로 심지만 줄기와 열매는 약 용한다. 학명은 *Nandina domestica*이다. 유의어: 남촉(南燭), 남촉목(南燭木), 남 촉초(南燭草), 문촉(文燭) 원어: 남천죽(南天竹), 남천촉(南天燭)⁸¹⁾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南天竹은 다른 이름으로 南天燭이라고 불

79) 董文煥(清)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 社, p.121. "天竹齋圖 為朝鮮 吳亦梅題 · 咸豐八年 · 清 王軒".

80) 胡一民. (1992). "歲寒二友". 中國花卉報. 검색일자: 2013.10.10.

"天竹, 又名南天竹, 古人認為栽種天竹可以避火, 且作為長壽、多子之象徵、在長江流域栽 培極為廣泛." http://news.china-flower.com/paper/papernewsinfo.asp?n_id=119827

81) 남천[南天]. 『국어사전』. 검색일자: 2013.10.10.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47275&q=%EB%82%A8%EC%B2%9C>

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김현권이 주장한 "오경석이 집의 정원에 南天燭이 자란 것을 보고 당호를 천죽재라고 했다."⁸²⁾는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다.

북경에 가서 중사들을 만난 오경석은 자신의 서재 정원에 어느 날 갑자기 天竹이 자랐기에 서재 이름을 천죽재라 지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중사 정조경에게 <천죽재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림을 얻은 후 또 여러 중사들에게 題詩를 부탁했던 것이다.

현재로선 <천죽재도>가 그려진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葉名澧가 오경석에게 써준 시 "조선의 오역매가 말하기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 뜰 앞에 돌연 天竹 한 무더기가 자랐기에 자신의 거처 이름을 <천죽재>라 지었다'고 한다. 太倉 稚蘊 程祖慶이 오경석을 위해 <천죽재도>를 그려주었고, 오경석은 <천죽재도>를 나에게 보여 주면서 시를 요구한다. 함풍 5년(1855) 정월에 쓴다."⁸³⁾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리해 보면 <천죽재도>는 1855년 정월 이전에 그려진 것이 확실하다. 오경석이 사행 역관으로 북경에 가서 정조경을 만난 후 그려졌음이 확실한데,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확증할 수 없다. 그러나 오경석에게 보내 온 정조경의 서신을 근거로 대체적으로나마 그 시간대를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아래 오경석에게 보내 온 정조경의 서신 한 편을 보도록 하겠다. 서신의 내용을 통해 오경석과 정조경의 첫 번째 서신 교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조경의 이 서신은 『중사간독첩』 277통의 서신 가운데서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제일 처음으로 오경석에게 보내온 서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서신임을 알 수 있다. 이 서신은 또한 오경석의 근 21년 사행의 첫 시작을 고하는 순간이기에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선생께서 보내주신 문안인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귀중한 물품도 절하고 잘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선생의 마음을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선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선생께서 저를 칭찬하셨는데, 실재를 너무 과대평가 하셨더군요. 아직 저를

82) 김현권.(2011)."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37),p.220.

83) 董文渙(淸) 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書目文獻出版社, p.105. "朝鮮 吳亦梅言 所居庭前 忽生天竹一叢 因顏曰天竹齋 太倉 程稚 蘊祖慶爲 寫圖索詩 · 咸豐五年正月 · 淸 葉名澧".

완전히 알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의 그 같은 칭찬에 저는 부끄럽기만 하여 땀이 비 오는 듯 흐릅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선생께서 기거가 다복하고 문장은 대길하시기를 송축 드립니다. 선생의 스승이신 藕船 李尙迪께서 북경에 오신 적이 있기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오경석 선생은 젊은 나이임에도 학업에 노력하여 정진하였기에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江左의 樗材(무용지물)가 선생과 같은 현자와의 사귀를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선생의 성근한 문안까지 받은 상황에서 제자신의 추함을 스스로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말하자면 정말 답답합니다. 과거시험장에서 떠 돈지가 벌써 20년이나 됩니다. 경술년(1850)에 상경하여, 京兆 벼슬을 하려고 두 번이나 시험을 보았는데, 번번이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부끄럼을 느꼈으며, 공부하는 그 자체를 업신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무런 명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여 먼 곳 知己에게는 고할 바가 못 됩니다. 다만 그림은 제가 머리를 묶을 때부터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직 옛 사람들의 붓과 먹의 사용법을 따를 뿐입니다. 만약 선생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으신다면, 근간에 제가 그린 그림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박식하고 덕을 갖추신 오경석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松壺 선생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북경 성내에 松壺 선생의 필묵이 전해 내려온 것이 극히 적습니다. 조금 기다려 江浙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가 도착한 후 그들에게 여쭙어 한 두 건을 구입한 후 선생께 드리겠습니다만 급히 요구하신다면 그 역시 얻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저에게 근래 어떤 저작들이 있냐고 물어 보셨죠. 시골벽적인 현 상황에 몸을 담고 쌀을 구해 가면서 살아가기란 참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글 쓰는 흥취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뜻하지 아니하게 모은 자료로 『隸通』이란 책을 엮었습니다. 이 책은 秦·漢으로부터 魏·晉 시기 金石文字 가운데의 '문자는 같으나 음이 다른 자',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자'들만 골라서 취하였습니다. 『說文』의 편방에 의거하여 그 곁에 유형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經書와 史書에 의거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대략 15권 정도 됩니다.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손보아 고칠 곳이 많습니다. 후일에 凡例를 적어 선생께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보시고 서문을 적어 주십시오. 또한 秋史 선생의 서문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졸저에 무게를 실을 수 있게 말

입니다. 선생께서 저의 부탁을 잊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께 찾아달라고 부탁한 그 진귀한 조선 서적은 바라건대 쉽게 보내 주실 수 있는지요? 오래전부터 얻고 싶었지만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에 거할 때 자료를 수집하여 엮은 책이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완성 상태입니다. 오직 『練水文徵』 백권, 『邑先哲象傳』 십여 권만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겨우 고향의 것들을 수집하는 데 머무른 문헌일 뿐입니다. 象傳刻本은 상자 속에서 보이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친구에게 부탁하여 한 부를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秋翁 선생께 부쳐 보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집에 간 후 친구가 대신 각을 해준 저의 『吳郡金石目』 한 부를 선생께 부쳐 보내겠습니다. 또 畫屏 한 쌍, 印譜 두 책도 팔려 보냅니다. 바라건대 이상의 물품들을 받아 주십시오. 전에 제가 선생께 그러달라고 부탁한 그림 두 권은 겨를이 있을 때 붓을 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시구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엔 六法에 능한 자로 선생과 형당(衡塘:劉在韶)·위공(瑋公:田琦) 선생 외에도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제 자신의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그 선생들께서 모두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劉·田 두 선생 모두 진실로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두 선생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을 바라건대 선생께서 저를 대신하여 전해 주십시오. 겨울철에 만약 북경으로 오는 인편이 있다면 선생께서 부디 편지를 팔려 보내 주십시오. 먼 곳에서 선생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大著도 적어 보내 주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을 그리워하는 마음 너무도 지극하여 감당이 안 됩니다.

癸丑年(1853) 7월 20일. 嘉定 弟 程祖慶 머리 숙입니다. 역매인형대인각하게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글씨를 잘 못 씁니다. 하지만 감히 대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편지글이 아주 난잡합니다. 공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⁸⁴⁾

84)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p.1-4. “程祖慶 書信·枉嘉問 並拜厚賜 五中銘泐 莫可言宣 惟獎飾過情 省覽未竟 顏汗雨淋 伏承興居多福 文章大吉 式符私頌 頃令業師藕船先生入都具稔 閣下英年力學精進 正未不量 以弟之江左樗材 獲交賢哲 忻幸奚如 乃蒙垂詢 殷拳 猶敢自匿其醜耶 故? 罷耗 踴躍名場者 二十年 庚戌入都兩試京兆 復遭擯斥 自慚蔑學作 將四十 無聞 不堪為遠方知己告也 至於畫學 束髮即事塗抹 迄今無勝人處 惟於古人用筆 用墨之法 或不致背戾 附上近作 就正有道 幸賜教言 松壺先生久歸道山 筆墨流傳 都門絕少 容當信至 詢之江浙友人 購奉一二 恐急切亦未易得耳 荷詢近箸 軟紅托足 索米良難 了無意興 去秋 偶輯隸通一書 取秦漢迄魏晉金石文字之 文同音異 音同義異者 依說文偏傍旁分別部居 證以經史 計十有五卷 將次了手 尚未繕出 它日當先以凡例錄呈 求作弁言

程祖慶은 오경석에게 위와 같은 長文의 편지를 보내왔다. 서신에서 정조경은 자신의 상황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해내 · 외를 아우르는 폭 넓은 교유관계를 자랑하였으며, 자신의 특장과 취미, 그리고 끊임없는 탐구정신도 보여 주었다.

정조경은 "선생의 스승이신 藕船 李尙迪께서 북경에 오신 적이 있기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李尙迪과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癸丑年(1853)이면 오경석이 첫 번째 사행을 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오경석이 정조경에게 서신을 보낼 때 기필코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것이며, 그 속엔 李尙迪의 문하생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전제가 있었기에 오경석에게 보낸 정조경의 위의 서신에서 "李尙迪과 잘 알고 지내는 관계다."라는 표현이 가능했다고 본다. 오경석의 스승 李尙迪이 맺어 놓은 前代의 인연이 대를 넘어 제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연의 연속으로 인해 북경에서 중사와의 교류는 기타 正使 · 副使 · 書狀官과 비교했을 때 한 층 더 쉬웠을 것이며, 교류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서신에서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조금 기다려 江浙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가 도착한 후 그들에게 여쭙어 한 두 건을 구입한 다음 선생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을 통해 해내에서 북경뿐만 아니라, 江浙 지방에까지도 자신의 친우가 많음을 과시하였다. 이는 오경석에게 더 많은 중사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정조경은 또 "지난 가을 뜻하지 아니하게 모은 자료로 『隸通』이란 책을 엮었습니다. 이 책은 秦 · 漢으로부터 魏 · 晉 시기 金石文字 가운데 '문자는 같으나 음이 다른 자',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자'들만 골라서 취하였습니다."라

並乞秋史先生序之 以爲拙著增重 預告勿忘 索毛羅麗琳瑯 尚易致否 久欲得之而未見也 家居時 亦畧有輯錄 率多未竟 惟練水文徵百卷 及呂先哲象傳十餘卷 皆已藏事 僅足徵梓桑文獻而已 象傳刻本 篋中久無之 茲向友人索還一分 已呈秋翁 俟家中寄出奉呈近友代刻 吳郡金石目 附上一分 並畫屏一對 印譜兩冊 均乞賜存幸幸 前之兩圖 暇希命筆 並題佳什 貴處擅六法者 所見閣下及衡塘瑋公外 尚復不少 均轉乞作圖 以廣眼界 更感更感 劉田兩君 洵皆名隼之品 並希代致欽仰 冬間有便務望惠書以慰遠念 並錄示大著盼切盼切 肅請文安 未罄萬一 無任神馳之至 癸丑七月廿日 嘉定 弟 程祖慶頓首 狀上亦樸仁兄大人閣下 弟无拙於書 惟不敢倩代以致 艸率不恭 乞恕之幸幸”

고 오경석에게 자신의 서적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취미는 金石에 있다'라는 표현이었다.

정조정은 또 "다만 그림은 제가 머리를 묶을 때부터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특징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오경석이 정조정에게 그림을 부탁했을 것이 분명하다. 혹시 이 서신을 받고 난 후 오경석이 정조정에게 〈天竹齋圖〉를 부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없지 않다.

정조정에게서 〈천죽재도〉를 선물 받은 오경석은 여러 중사들에게 부탁하여 題詩를 받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명의 중사로부터 題詩를 받았는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현존하는 몇 몇 자료에 〈천죽재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나마 사건의 윤곽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 ① 葉名禮의 詩 : "조선의 오역매가 말하기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 뜰 앞에 돌연 天竹 한 무더기가 자랐기에 자신의 거처 이름을 천죽재라고 지었다'고 한다. 太倉 稚衡 程祖慶이 오경석을 위해 〈천죽재도〉를 그려 주었고, 오경석은 〈천죽재도〉를 나에게 보여 주면서 시를 요구한다. 함풍 5년(1855) 정월에 쓰다."⁸⁵⁾
- ② 朱琦의 詩 : "조선 오역매가 〈천죽재도〉에 시를 지어달라고 요구한다. 함풍 6년(1856)."⁸⁶⁾
- ③ 馮志沂의 詩 : "조선의 오역매가 〈천죽재도〉에 시를 지어달라고 요구한다. 함풍 8년(1858)"⁸⁷⁾
- ④ 王軒의 詩 : "조선 오역매를 위해 〈천죽재도〉에 시를 짓는다. 함풍 8년(1858)"⁸⁸⁾

85)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05. "朝鮮 吳亦梅言 所居庭前 忽生天竹一叢 因顏曰天竹齋 太倉 程稚 衡祖慶爲 寫圖索詩·咸豐五年正月·淸 葉名禮".

86)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10. "朝鮮 吳亦梅 索題天竹齋圖·咸豐六年·淸 朱琦".

87)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18. "朝鮮 吳亦梅 索題天竹齋圖·咸豐八年·淸 馮志沂".

- ⑤ 吳昆田의 詩 : "조선 오역매의 『天竹齋圖冊』에 시를 짓는다. 함풍 9년 (1859)"⁸⁹⁾

위에 열거한 자료들은 『韓客詩存』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천죽재도>의 題詩는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 중사들이 동시에 題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근거해 보면 <천죽재도>에 시를 지은 중사로는 葉名禮 · 朱琦 · 馮志沂 · 王軒 · 吳昆田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사간독첩』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 <천죽재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천죽재도>를 언급한 서신들이다.

- ① 역매선생대인각하. 어제 선생의 심부름꾼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다가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 江都 符葆森 머리 숙입니다. 선생께서 天竹齋記를 지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아마도 上元 이후에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또 머리 숙입니다. 桐齋선생께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⁹⁰⁾
- ② 역매선생좌우. 열흘 동안 만나지 않으니 선생을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은 마치 갈증에 목이 마르듯 합니다. 선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교제왕래가 많습니다.……外弟가 天竹齋記 한 편과 詩 한 수를 지었는데 함께 보내 드립니다. 전부 받아 주신다면 저의 영광이겠습니다.……葆森 머리 숙입니다. 桐齋선생께도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정월19일.⁹¹⁾
- ③ 역매종형선생께서는 보십시오. 어제 서로 만나 마음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대단히 기뻐합니다. 선생께서 저에게 부탁하여 <天竹齋圖>에 題를 써 달라고 하셨죠? 이미 탈고를 마쳤습니다. 장편의 글인데 모두 66韻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보충하여 그 글을 옮겨 적는 즉시 선생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88)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21. "天竹齋圖 為朝鮮 吳亦梅題 · 咸豐八年 · 淸 王軒".

89) 董文煥(淸)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25. "題朝鮮 吳亦梅 天竹齋圖冊 · 咸豐九年 · 淸 吳昆田".

90) 吳慶錫. 『中土簡牘帖 · 賤束』, p.28. "符葆森 서신 · 亦梅先生大人閣下 昨尊使往返 未值 歉歉 …… 江都符葆森頓 屬作尊齋記 須上元後 方能報來命也 又頓 桐齋先生 統此候安"

91) 吳慶錫. 『中土簡牘帖 · 鎮齋』, pp.4-5. "符葆森 서신 · 亦梅先生左右 旬日不晤 渴思殊甚 想同之也 頃以酬應太繁 …… 外弟撰天竹齋記一篇 詩一帋 并呈統乞檢入幸甚 …… 葆森頓 桐齋先生 統此頌福 正月十九日"

귀국하는 날을 정했습니까? 초 2일에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선생의 기거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小弟 鴻恩 머리 숙입니다. 29일 巳刻.⁹²⁾

- ④ 지난달 26일에 특별히 선생을 방문했었습니다. …… 浙西 弟 福清 머리 숙입니다. 얼마 전 <天竹齋圖>에 題를 지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그리고 印章도 새겨달라고 하셨는데, 지은 題와 印章 3方을 穉衡 선생께 맡겨 놓았습니다.⁹³⁾
- ⑤ 선생께서 <天竹齋圖>에 題를 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그럼 그 冊頁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엔 추위가 두려워 바깥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매인형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綬 머리 숙입니다.⁹⁴⁾
- ⑥ <天竹齋圖>의 題를 이미 지었습니다. 선생께 드리오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珠葉茶 두 병, 스스로 만든 떡 한 접시를 보냅니다. 바라건대 웃으면서 받아 주십시오. 역매인형대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綬 머리 숙입니다.⁹⁵⁾
- ⑦ 어제 高句麗石刻을 저에게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 역매인형대인께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綬 머리 숙입니다. 선생의 <天竹圖>에 題를 짓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 번 보여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⁹⁶⁾
- ⑧ 선생의 심부름꾼이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물품에서 저에 대한 선생의 두터운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선생께서 저에게 <天竹齋圖>에 詩를 지어 달라고 하셨죠? 얼마 전에 이미 완성하였습니다. 冊 가운데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孔繡山 선생께 드렸습니다. 그곳에 모았다가 선생께 드릴 겁니다. 桐齋 선생께 드릴 詩도 한 수 지었습니다. 그 역시 孔君 선생께 드렸습니다. ……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晚'이라고 겸손하게 낮은 글자는 선생께 돌려 드립니다. 小弟 高繼珩 머리 숙입니다.⁹⁷⁾

92) 吳慶錫, 『中士簡牘帖·晤王蓮生』, p.44. “吳鴻恩 서신·亦梅宗兄先生如晤 日昨聚談快暢之至 奉命題天竹齋圖業已脫藁 長言六十六韻 補頁錄就 即以奉繳 榮旋已定期否 初二日能圖一晤更好 此請吟安 愚小弟鴻恩頓 廿九日巳刻”

93)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21. “孫福清 서신·前月二十六日 專誠奉候 …… 浙西 弟 福清頓 前囑題天竹齋圖 及囑鐫印章三方 均交穉衡處 又行”

94)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26. “潘曾綬 서신·屬題天竹齋圖 祈將冊頁 付下為妙 近尚畏寒 不出戶 此頌 亦梅仁兄即安 綬頓”

95)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25. “潘曾綬 서신·天竹齋圖已題 即請清正 外珠葉茶二瓶 自製糕一盤 乞哂納 此頌 亦梅仁兄大人近安 綬頓”

96) 吳慶錫, 『中士簡牘帖·晤王蓮生』, p.7. “潘曾綬 서신·昨承惠高句麗石刻 謝謝 …… 此頌 亦梅仁兄大人吟社 綬頓 天竹圖想題者 更多 付一祝幸幸”

97)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先生』, p.2. “高繼珩 서신·佻來奉到種種 具見摯愛 …… 天

⑨ 역매인형대인죽하. 어제 선생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기회에 그저 듣기만 해 왔던 선생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 〈天竹齋圖〉에 題를 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겨우겨우 韻을 맞춰봤습니다. 정말로 詩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 冊은 저의 兄께서 四截句를 지었습니다. 詩翁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弟 溫忠翰 머리 숙입니다.⁹⁸⁾

⑩ 역매존형선생시사. 13일에 선생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때 마침 다른 일로 외출 중이라 즉시 선생께 회신 못해 드렸습니다. 또 요즘 연일 잔병에 시달리면서 지냈기에 선생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 同人들이 지은 〈天竹齋詩冊〉 가운데서 먼저 4쪽을 보내 드립니다. 제 친구가 扇面素冊을 보내왔는데, 그 친구가 선생의 그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제가 대신 전합니다. 함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씁니다.⁹⁹⁾

이처럼 여러 편지 곳곳에서 〈천죽재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중사간독첩』과 『한객시존』의 내용에 근거하여 〈천죽재도〉에 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죽재도〉는 정조경이 오경석의 부탁을 받고 그린 그림이다.

둘째, 〈천죽재도〉의 제작 시기는 함풍 5년(1855)정월 이전에 그려진 것이다. 오경석의 첫 사행이 1853년 4월에 이루어 졌기에 〈천죽재도〉의 제작 시기는 분명히 1853년 4월~1855년 정월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셋째, 『중사간독첩』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결과 아래와 같은 중사가 〈천죽재도〉에 詩 · 題 · 記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竹齋圖 前已成小詩 題于冊間 交孔繡山滙呈 並贈桐齋一詩 亦交孔君矣 …… 如此請箸安 並璧謙晚 小弟高繼珩頓

98)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1-4. “溫忠翰 서신 · 亦梅仁兄大人足下 昨辱承枉顧 得遂識荆 …… 委題天竹齋圖 勉強拈韻 殊不成詩 另一冊 家兄為題四截句 幸詩翁有以教我 …… 泐此 順頌吟安 諸維心照 弟 溫忠翰頓首”

99)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37-38. “孔憲彝 서신 · 亦梅尊兄先生侍史 十三日奉手畢 適他出未即復啓 比日又小疾未克走訪 悵甚悵甚 …… 同人題天竹齋詩冊先呈四頁 又扇面素冊 代求法畫 並乞照入 又行”

- ① 符葆森은 <천죽재도>記를 지었다.¹⁰⁰⁾
- ② 符葆森의 外弟는 <천죽재도>記 한 편과 詩 한 수를 지었다.¹⁰¹⁾
- ③ 吳鴻恩은 <천죽재도>에 66韻의 題를 지었다.¹⁰²⁾
- ④ 孫福淸은 <천죽재도>에 題를 지었다.¹⁰³⁾
- ⑤ 潘曾綬는 <천죽재도>에 題를 지었다.¹⁰⁴⁾
- ⑥ 高繼珩은 <천죽재도>에 詩를 지었다.¹⁰⁵⁾
- ⑦ 溫忠翰은 <천죽재도>에 詩를 지었다.¹⁰⁶⁾
- ⑧ 溫忠翰의 兄은 <천죽재도>에 詩를 지었다.¹⁰⁷⁾

『한객시존』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면 葉名澧¹⁰⁸⁾ · 朱琦¹⁰⁹⁾ · 馮志沂¹¹⁰⁾ · 王軒¹¹¹⁾ · 吳昆田¹¹²⁾ 등 중사가 <천죽재도>에 詩를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孔憲彝 역시 <천죽재도>에 題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면 符葆森 · 符葆森 外弟 · 吳鴻恩 · 孫福淸 · 潘曾綬 · 高繼珩 · 溫忠翰 · 溫忠翰의 兄 · 葉名澧 · 朱琦 · 馮志沂 · 王軒 · 吳昆田 · 孔憲彝 · 程祖慶 등 15명에 달하는 중사가 『天竹齋圖題詩冊』의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중사는 15명이지만,

-
- 100) 吳慶錫, 『中士簡牘帖 · 賤束』, p.28. 符葆森 서신.
 - 101) 吳慶錫, 『中士簡牘帖 · 鎮齋』, pp.4-5. 符葆森 서신.
 - 102)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44. 吳鴻恩 서신.
 - 103) 吳慶錫, 『中士簡牘帖 · 賤束』, p.21. 孫福淸 서신.
 - 104) 吳慶錫, 『中士簡牘帖 · 賤束』, p.25. 潘曾綬 서신.
 - 105)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先生』, p.2. 高繼珩 서신.
 - 106)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1-4. 溫忠翰 서신.
 - 107)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1-4. 溫忠翰 서신.
 - 108) 董文煥(淸) 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05. "朝鮮 吳亦梅言 所居庭前 忽生天竹一叢 因顏曰天竹齋 太倉 程稚 蘅祖慶 爲寫圖索詩 · 咸豐五年正月 · 淸 葉名澧".
 - 109) 董文煥(淸) 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10. "朝鮮 吳亦梅 索題天竹齋圖 · 咸豐六年 · 淸 朱琦".
 - 110) 董文煥(淸) 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18. "朝鮮 吳亦梅 索題天竹齋圖 · 咸豐八年 · 淸 馮志沂".
 - 111) 董文煥(淸) 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21. "天竹齋圖 爲朝鮮 吳亦梅題 · 咸豐八年 · 淸 王軒".
 - 112) 董文煥(淸) 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p.125. "題朝鮮 吳亦梅 天竹齋圖冊 · 咸豐九年 · 淸 吳昆田".

이외에도 중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여러 중사들이 지은 <천죽재도> 詩 · 題 · 記는 모두 먼저 孔憲彝의 거처 韓齋로 보내졌으며, 韓齋에서 孔憲彝가 잘 정리한 후 다시 오경석에게 전해 주었다.

현재 오경석의 『天竹齋圖題詩冊』은 찾을 수 없다. 분명히 오경석의 천죽재에 보관되었을 것인데, 언제 어떻게 유실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오경석의 인생에서 『천죽재도제시책』은 오경석과 중사와의 생생한 교류의 흔적이다. 비록 지금으로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중사간독첩』과 『한객시존』이라는 중요한 자료가 있었기에, 그나마 세월 속에 영원히 묻힐 뻔한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천죽재도제시책』이 오경석이 중사에게 부탁하여 제작한 작품이라면 중사가 오경석에게 부탁하여 제작을 요청한 것도 있다. 『중사간독첩』에 중사 溫忠翰이 오경석에게 그림 제작 및 題詩 등을 요청하는 대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래는 그 원문이다.

역매인형대인죽하. 어제 선생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기회에 그저 듣기만 해 왔던 선생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여기에 자그마한 선물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저의 성의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웃으면서 받아 주십시오. 그 외 素宣 한 권을 보내는데 선생의 그림을 얻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涵碧園圖>를 그려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정원은 바로 저의 집에 있는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집 정원은 형식은 갖추지 않았습시다만 竹·石·林木 등이 있음으로 하여 간략하게나마 정원으로서의 대개를 갖추었을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이 素宣 한 권을 선생의 天竹齋에 가지고 가서서 천천히 그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명하신 昆仲께서 합필을 하시던가, 아니면 각자 좋은 생각을 내어 한 종이 위에 따로 따로 한 토막씩 적으시던가, 아니면 여러 昆季께서 함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래 도성에 있는 명필들로부터 題를 광범하게 수집한 후 그림과 함께 잘 꾸며 <涵碧園圖長卷>을 만들 생각입니다. 훗날 선생께서 다시 사신으로 북경에 오신다면 친구들과 함께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이 그림을 펼쳐 놓고 예전에 만났었던 그때 상황들을 떠올

리는 겁니다. 생각건대 〈함벽원도장권〉의 글씨와 그림은 마땅히 해내 · 외 으
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림 창작을 통해 墨緣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께서 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명
하셨죠? 연못에 임하여 열심히 배웠습니다만, 方家의 비웃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기타 건과 함께 선생
께 드립니다. 검사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弟 溫忠翰 머리 숙입니다. 편지와 함께 아래 물품들을 보냅니다. 畫筆 5자루,
金瑣表套 1매, 詞人이 이별의 선물로 드리는 鏡拓本 한 종이, 白玉書別 한 부.

요즘 만약 연일 琉璃廠에 오신다면 검사검사 저의 집을 방문하여 얘기를 나
눌 수 있는데 괜찮으신지요?

다시 올립니다. 저의 형께서 재삼 선생의 안부를 묻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
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생께 題를 지어달라고 한 건이 있으시죠. 만약 이미
완성하였다면 바라건대 제가 심부름꾼을 보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¹¹³⁾

이 편지에는 중사 溫忠翰이 오경석에게 〈涵碧園圖〉 그림과 題詩 등을 요
청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韓 · 中 서화 교류
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 자료가 증명하듯이 韓
· 中 인사가 서로 만나 교류할 때 일방적으로 韓士가 中士에게 서화를 요구
한 것이 아니라, 中士 역시 韓士의 서화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韓士
가 그려준 그림과 지어준 題詩는 응당 해내 · 외 으뜸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는 조선 화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중사로부터 이 같이 높은 평가
와 긍정을 받은 오경석은 분명히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희열을 만끽했을
것이다. 韓士와 中士 사이, 서로에 대한 긍정 · 믿음 · 신뢰가 있었기에 그들
의 서화 교류는 기예의 고저와 신분의 귀천을 뛰어넘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113)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1-4. “溫忠翰 서신 · 亦梅仁兄大人足下 昨辱承枉
顧 得遂識荆 …… 茲呈微物數種 聊達鄙忱 伏維笑納 外素宣一卷 敬求法繪 為我寫涵碧園
圖 是園即在敝寓中 不求形似 但竹石林木 略具園亭之概而已 可帶歸天竹齋中 緩緩圖之 如
能得賢昆仲合筆 或各出新意於一紙之中 各寫一小段 或諸昆季共作一圖 則尤感甚 將來並擬
於都中 廣徵名筆 合裝一涵碧園圖長卷 他日吾兄 重策星輶 依依話舊 出此圖相與審定 不惟
法繪當推巨擘 亦正可於繪事中 結一段墨緣也 命畫之件 強學臨池 知不免為方家所笑 極甚
茲並附呈 祈檢及泐此順頌吟安 諸維心照 弟 溫忠翰頓首 伴函 畫筆五枝 金瑣表套一枚 詞
人贈別鏡拓本壹冊 白玉書別一付 連日如到琉璃廠仍可順到敝齋一談何如 再家兄囑候行社
求題之件 如題就 望付去收”

5.2 金石

오경석은 자신의 『天竹齋筭錄』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서화를 좋아했다. 돌아 보건대, 이 좁은 나라에 태어나서 별로 볼 만한 것이 없어서 매양 중국 감상가의 저술을 열람할 적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그 쪽으로 달려갔다. 계축·갑인년(철종4:1853~철종5:1854)에 처음 청나라에 유람 가서 그 곳 동남(東南)의 박아(博雅)한 선비들을 만나 본 다음 견문이 더욱 넓어지게 되어 차츰차츰 원·명(元明)이래의 서화 백여 점과 삼대(三代:夏·殷·周)와 진·한(秦漢)의 금석과 진·당(晉唐)의 비판(碑版)을 사 들인 것이 또한 수백여 종이 넘었다. 비록 당·송(唐宋)인의 진적을 얻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이만하면 스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랑할 만하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얻은 것은 모두 수십 년 동안의 오랜 세월과 천만리 밖을 다니며 크게 심신을 허비한 결과이니,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 나와 더불어 이런 벽(癖)이 있는 사람은 전군(田君) 위공(璚公:田璚)인데 그는 불행하게도 일찍 죽어서 내가 수집하여 보관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위공을 지하에서 되살아나게 하여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쓸 적에 흐르는 눈물을 더더욱 금할 수가 없었다.(천죽재차록)¹¹⁴⁾

위의 인용문은 오경석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적은 회고록이다. 1853년~1854년 첫 청나라 사행 때 받은 충격을 가감 없이 적고 있다. 여기서 그는 어렸을 때 서화를 좋아하였다고 했다. 그러다 첫 청나라 사행 때 동남의 박아한 선비들을 만남으로 인해 갑자기 식견이 넓어져, 元·明 이래의 서화 백여 점과, 三代와 秦·漢의 金石과, 晉·唐의 碑版을 사들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사간독첩』을 보면 여러 편지에서 오경석이 중사와 書畫·金石·碑版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의 소절에서 이미 오경석과 중사와의 서화 교류를 살펴보았기에, 여기에서는 오경석과 중사와의 금석 교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14) 오세창 편저, 洪贊裕 감수, 東洋古典學會 국역.(2007).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 p.1013.

신용하는 논문¹¹⁵⁾에서 『삼한금석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래 글은 『삼한금석록』 이해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해본다.

吳慶錫의 『三韓金石錄』은 <吳慶錫이 28세 때인 1858년에 완성한 우리나라 金石文의 集成이다. 모두 156쪽의 비교적 방대한 분량이다. 三國時代부터 高麗時代까지의 金石文 146종을 수록하여 해설을 붙이고 있다. 그는 1853~54년에 北京에 가서 중국의 金石學 전문가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金石文의 정리의 필요를 절감한 위에 程祖慶의 권고도 있어서 귀국하자 바로 각지의 碑石과 遺蹟을 踏査하고 金正喜의 『金石過眼錄』을 대폭 발전시켜서 당시까지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소상한 高麗末期까지의 金石文集成을 편찬하였다. 그는 이것을 1858년 北京에 갈 때 가지고 가서 중국 金石學者에게도 보여 序文을 얻고 있다. 題·跋文은 그의 스승 李尙迪이 쓰고, 序文은 중국의 何秋濤, 後序는 중국의 潘祖蔭이 썼다. 『三韓金石錄』에 수록된 金石文의 總目은 「高句麗故城刻子二種」부터 시작하여 「圓悟大師碑」에 이르기까지 三國時代로부터 高麗時代末期까지의 모두 146개이다. 吳慶錫의 『三韓金石錄』은 金石學 상에 획기적 저술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저술된 후 原稿本을 중국에 그 자신이 갖고 가서 중국의 金石學者들 사이에도 필사되어 다투어 읽히었다.¹¹⁶⁾

위의 인용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한금석록』은 조선 금석학 역사상 획기적인 저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인사들까지도 다투어 읽고자 했던 저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오경석의 인생에서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의의 있는 대작임이 틀림없다.

『중사간독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한금석록』에 관한 정보가 여러 편지에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편지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삼한금석록』의 제작 동기·발행·보급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제작 동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程祖慶의 한 편지에는 오경석에게 "조선에 있는 金石物을 총집합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고 건의하는 대목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115)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107-187.

116)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117.

전에 선생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 韓齋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 보셨죠?……조선의 모든 碑刻舊輯이 서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까? 만약 總目提綱을 얻을 수만 있다면 검색 또한 쉬울 텐데 말입니다. 선생은 어찌하여 『金石萃編』의 법식을 모방하여 지금까지 모은 것을 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역시 불후의 업적일 것입니다. …… 정월 초9일夕. 無礙筆談. 조리 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마십시오. 전에 몇 번의 筆談紙도 인편에 딸려 보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¹¹⁷⁾

위의 편지 내용을 보면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제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동안 모아왔던 金石物에 대해 편집 · 정리 · 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경석에게 제시해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金石萃編』의 법식을 모방하면 좋을 것이라고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결국 오경석에게 있어 不朽의 명작인 『삼한금석록』의 탄생을 가능케 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금석학 연구에서 실사구시 태도와 정밀한 탐구 정신을 갖고 있으며, 금석학에 해박한 오경석에 대한 중사의 인정임을 알 수 있다. 『삼한금석록』이 정조경의 한 마디 제의로 인해 출간되었는지는 확증한 자료가 없지만 정조경의 그 한 마디가 오경석에게는 엄청난 동력이자, 격려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정조경의 제시를 받은 오경석은 몇몇 중사들과 금석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아래 편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오경석은 이 몇몇 중사 가운데서도 유독 한 중사와 금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오경석과 금석교류를 진행했던 중사들의 편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들 동안 서로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립습니다. 〈武氏祠〉 전부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시켜 하나하나 대조해 보고 있습니다. 題가 적혀 있는 것들은 모두 완전합니다. 그리고 6종 가운데 〈魯孝王石刻〉이 있던데, 이것은 西漢 시기의 古物입니다. 비석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潛研全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裝訂한 것 10틀입니다. 바라건대 모

117) 吳慶錫, 『中土簡牘帖 · 枉嘉』, pp.11-12. “程祖慶 서신 · 前書下詢 韓齋座客姓名……貴邦所有碑刻舊輯 有成書否 倘得總目提綱 稽查亦易 兄何勿仿 金石萃編之例 輯成一書 亦不朽事也 跋而望之……正月初九夕 無礙筆談 拉雜書 此幸勿示人 前數次談昏 遇便擲還為荷”

두 검사하고 받아 주십시오. 鄭庵(潘祖蔭)은 근래에 『海東金石錄』을 모으고 있습니다. 鄭庵은 麟角 · 興法 두 비석이 어느 시대의 물건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선생께 여쭙봐 달라'면서 저에게 부탁해 왔습니다. 바라건대 편지를 보내 알려 주십시오. 선생에게 만약 그것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바라건대 한 번 읽어 볼 수 있도록 빌려 주십시오. 이후에 李尙迪 선생과 선생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詩經』에서 말하는 '將伯之助'라는 것이지요.……정월20일석. 無礙筆譚. 亦梅吾兄大人께 드리오니 보시기 바랍니다.¹¹⁸⁾

정조경의 편지를 보면 오경석이 정조경에게 부탁하여 〈武氏祠〉 등 금석 자료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경석의 요청에 정조경 또한 전심전의로 도와주고 있다. 정조경과 오경석의 첫 만남은 1853년에 이루어 졌는데, 첫 만남에서 정조경은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막 4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1831년생인 오경석은 1853년에는 22살에 불과한 나이 어린 조선의 젊은 학자였던 것이다. 젊은 학자가 금석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본 정조경은 감탄했을 것이고, 대견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정조경이 자신의 친구이며 금석학자인 潘祖蔭을 오경석에게 소개시켜줬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위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鄭庵 潘祖蔭이 당시에 『海東金石錄』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알려줬으며, 반조음이 '麟角 · 興法 등에 대해 알고 싶다'는 사실도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전달해 주었다. 오경석이 반조음과 금석학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계기는 정조경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아래 편지에서도 반조음이 정조경을 매개로 하여 오경석과 금석학에 대해 토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의 심부름꾼이 총망히 돌아갔기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 鄭庵 선생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자신에게 〈劉仁願碑〉全文이 있다고 합니다. 그 '全文을 고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생께 여쭙보랍니다.

118) 吳慶錫, 『中士簡牘帖 · 枉嘉』, p.17. “程祖慶 서신 · 兩日未通音問 甚念之 武氏祠全分不易得 已代為逐一校對 其有題字者皆完備 又六種中 有魯孝王石刻 為西漢古物 石今不存 潛研全書已易得 裝訂者十套 均乞督入 鄭庵日來輯海東金石錄 托詢麟角興法 兩碑是何代物 乞示之 尊處如有叙錄之本 乞借一閱 他日欲求藕老 及閣下 為將伯之助也 …… 正月二十夕 無礙筆譚 亦梅吾兄大人賜覽”

저들이 있으실 때 편지를 보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지 못한 말들은 만나서 하도록 하시죠. 亦樸仁兄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如弟 祖慶 머리 숙입니다.¹¹⁹⁾

위의 편지 내용에서 중사 반조음은 금석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학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劉仁願碑〉全文에 대한 고증을 오경석에게 의뢰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韓士 오경석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반조음은 오경석에게 직접 서신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정조경을 통해서 오경석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정조경을 통해 오경석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편해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니면 오경석과 반조음의 관계가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정조경의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다. 결국 오경석과 반조음의 만남을 성사시켰던 것도 역시 정조경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대목을 실은 편지가 있는데, 아래의 편지가 바로 그것이다.

연 며칠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립습니다. 선생께서 기거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 어제 鄭龠 선생을 만났습니다. 선생께 대신 문안인사를 전해 달라고 합니다. 며칠 후 좋은 만남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그날 서로 만나 海東金石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싶어 합니다. …… 亦梅仁弟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以兄 선생께서도 역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小兄 祖慶 머리 숙입니다. 12일.¹²⁰⁾

위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1일에 반조음이 정조경을 만났으며 정조경에게 '오경석을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조경은 오경석과 반조음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조음이 오경석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오경석과 『海東金石』에 대해 토론해 보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두 인사의 만남은 정조경의 노력으로 인해 성사됐다. 아래의 편지 내용을 통

119) 吳慶錫, 『中士簡牘帖 · 枉嘉』, p.18. “程祖慶 서신 · 使回勿率 未罄欲言 …… 鄭庵書來詢 劉仁願碑 有全文可攷否 便乞示復 餘面宣不盡 即請亦樸仁兄大人吟安 如弟祖慶頓”

120) 吳慶錫, 『中士簡牘帖 · 枉嘉』, p.31. “程祖慶 서신 · 積日未晤良念 惟起居安吉為頌 …… 昨晤鄭龠 屬致拳拳 遲日當圖良覲 並欲商榷海東金石也 …… 亦梅仁弟大人吟安 以兄均此請安 愚小兄 祖慶頓 十二日”

해 오경석과 반조음, 조선과 청나라 양국을 대표하는 두 금석학 거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인사는 금석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을 것이다. 그들의 토론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금석학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다.

아래 편지를 보면 금석학에 대한 오경석과 반조음의 열띤 토론의 열기를 피부로 감지할 수 있다.

徐市の石刻과 黔의 紅巘碑는 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徐市은 秦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 땀 이미 小篆이 있었습니다. 紅巘碑는 商나라의 武丁이 鬼方を 토벌할 때 刻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이 또한 아주 억측일 수 있습니다만, 夏 · 商 · 周 三代 이후의 물건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紅巘碑를 또 箕子 시기에 刻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억지로 꿰어 맞춘 느낌이 듭니다. 조금 기다렸다 계속 이어 보내 드리겠습니다.¹²¹⁾

위의 편지는 편폭이 짧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난해하다. 전부 옛 石刻에 대한 얘기뿐이다. 이 편지는 오경석의 물음에 반조음이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금석학에 대한 오경석의 실사구시적 연구태도를 엿볼 수 있다. 금석학 연구에서 반조음 역시 오경석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아래 편지가 그 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에 그 全文을 실어 보도록 하겠다.

冊頁은 선생께 돌려 드립니다. 선생께서 요구하신 畫幅은 시간이 얼마 지나 제가 편할 때 부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보내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생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집에서 刻한 것을 함께 보냅니다. 선생의 배낭 중에 〈薛仁貴祠壇碑〉와 〈孤雲〉 · 〈金生〉 · 〈雙溪〉 · 〈白蓮社〉石刻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제가 선생께 보여드린 저의 拙著를 돌려주십시오. 亦梅尊兄께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弟 蔭 머리 숙입니다.¹²²⁾

121) 吳慶錫, 『中土簡牘帖 · 晤王蓮生』, p.20. “潘祖蔭 서신 · 徐市石刻 與黔之紅巘碑 極相似 但徐市係秦時人彼時已有小篆 紅巘或定為商武丁時 伐鬼方所刻 釋又亦殊牽強 然必非三代以下物 則此碑以為箕子時所刻亦可釋 又恐當穿鑿 容再續呈又行”

위의 편지에서 반조음은 오경석에게 〈薛仁貴祠壇碑〉와 〈孤雲〉·〈金生〉·〈雙溪〉·〈白蓮社〉石刻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조선과 청나라 금석학자들은 금석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조음 뿐만 아니라, 기타 중사들도 오경석의 『삼한금석록』 편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반조음처럼 오경석과 금석학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구에 필요한 참고서적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었다. 아래 여러 편지들에서 그 같은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友石·桐齋 선생께도 올립니다.拙作은 며칠 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友石 선생께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亦某尊兄先生 箸安.小弟 楊傳第 머리 숙입니다.선생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어제『海東金石存攷』를 인쇄발행한 후 보내드리고자 했었습니다.〈緣石鼓賦〉는 잠시 얻을 수 없으니 友石형의 바램에 어긋나서 두렵기만 합니다.선생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제가 공교롭게도 일로 외출하였기에 회답이 늦어졌습니다.죄송합니다.여기에『金石攷』를 함께 보내니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恩誦堂稿』는 子衡에게 보냈습니다.……123)

위 편지에서 楊傳第는 오경석에게 『海東金石存攷』를 전해줬다. 이 책을 본 후 오경석이 『삼한금석록』 편찬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했을지도 모른다.

아래 편지 역시 중사 한명이 오경석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그 편지를 아래에 실어본다.

요즘 며칠 사이에 저의 肝 질환이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회를 베풀어 선생을 맞이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20일에 廣盛局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지금 肝 질환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2) 吳慶錫, 『中士簡牘帖·晤王蓮生』, p.21. “潘祖蔭 서신·冊頁奉繳 所要畫幅須 將來得便奉寄 遲緩之愆 恕之為荷 家刻附呈 篋中有薛仁貴祠壇碑 及孤雲 金生 雙溪 白蓮社石刻否 見惠 尤荷 拙著祈發還為要 亦梅尊兄吟安 弟蔭頓”

123)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7. “楊傳第 서신·友石 桐齋 均此致矣 拙作緩日奉上 望告知友翁也 亦某尊兄先生箸安 小弟 楊傳第 頓 海東金石存攷 本擬昨日印行呈覽 緣石鼓賦 一時未曾 檢得 恐辜友石兄之望 書來又適值他出遲後為罪 茲將金石攷奉去 即察收 恩誦堂稿 當即交子衡也 ……”

정말 아쉽습니다. 『張叔未集』 2冊 중엔 金石題詠이 아주 많습니다. 선생께 드립니다. 살펴보시고 채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亦梅仁兄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弟 葉名澧 머리 숙입니다.¹²⁴⁾

위의 편지에서 葉名澧는 오경석에게 『張叔未集』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있다. 이 역시 오경석의 『삼한금석록』 편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경석은 이상 몇몇 중사의 도움에 힘입어 『삼한금석록』 초고를 완성했을 것이다. 금석록 초고는 반드시 교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오경석은 『삼한금석록』 초고를 한 중사에게 맡겼는데, 그가 바로 반조음이었다. 『삼한금석록』 편찬 초기 오경석과 반조음은 금석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던 사이이다. 오경석은 자신의 『삼한금석록』 초고를 반조음에게 보내면서 교정을 보아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반조음은 연일 바쁜 일과로 바로 교정을 보지 못했다. 대신 반조음은 『삼한금석록』 초고를 한 부 베껴 놓았고 원래의 초고는 오경석에게 돌려보낸다. 시간이 얼마 지나 반조음은 『삼한금석록』 초고에 대한 교정을 끝냈으며 자신이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을 오경석에게 알려준다. 반면 오경석은 반조음에게 교정뿐만 아니라 『삼한금석록』의 서문도 부탁한다. 오경석의 이 같은 요청을 반조음은 거절하지 않고 넉넉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상의 모든 내용들이 아래 편지에 여실히 실려 있다. 서술의 신빙성을 위하여 아래에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실어 보도록 하겠다.

元柅尊兄大人閣下. 관청의 일을 처리하느라 겨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前에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으나, 즉시 회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일 년 내내 공적인 사무와 사적인 일로 바빠 돌아치다 보니 조금의 겨를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선생의 『金石』 저서는 높은 누각 위에 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저의 知己이신 선생께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선생의 『金石』 저서를 옆에 두고 읽고자 합니다. 제가 사람을 찾아 筆寫해두려고 하는데, 혹시 선생께 副本이 있으신지요? 만약 副本이 없으시다면 제가 베껴 두고는 原本을 그대로 고스란히 선생께 돌려 드리겠

124)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仁兄』, pp.13-14. “葉名澧 서신·連日肝疾甚劇 頗以應接為苦 二十日廣盛之約 竟不能踐悵悵 張叔未集二冊中 多金石題詠 奉贈以供鑒采 即請 亦梅仁兄吟安 弟 名澧頓”

습니다.……선생의 기거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조급하게 쓴 편지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弟 蔭 머리 숙입니다. 13일.¹²⁵⁾

위의 편지에서 오경석이 반조음에게 보낸 『삼한금석록』은 반조음의 다망한 사무로 미처 교정을 보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미안한 마음에 반조음은 『삼한금석록』을 한 부 베끼어 놓고 보겠다고 한다. 아래의 편지는 위 편지 다음으로 보낸 편지임이 확실하다.

亦梅仁兄大人閣下. 공 · 사 간 일로 바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선생을 방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선생의 대저 『金石錄』은 제가 이미 한 부 베끼어 놓았습니다. 하여 原稿는 여기에 그대로 선생께 돌려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선생께서 이미 선생이 머문 곳에서 刻을 業으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다면서요? 아직 이 같은 소문은 듣기만 했고 확인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선생께 묻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刻을 마친 刊本이 있으시다면, 바라건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각 조목을 보면 그 고증이 참말로 精密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 140여 종을 일일이 고증하고 바로잡는다면, 이는 진실로 여태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라 매우 굉장한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六一居士가 集靈宮의 자초지종에 대해 묻기만 했던 상황처럼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序文을 쓰라고 하셨죠? 하지만 대충대충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조선으로 가는 인편이 있으면 부쳐 드리거나 혹은 선생께서 다시 북경에 오시면 그 때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 또 올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선생께서 귀국하는 일자는 언제입니까?……弟 蔭 머리 숙입니다.¹²⁶⁾

위의 편지에서 반조음이 『삼한금석록』 한 부를 베껴 놓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렵 반조음은 교정도 보았을 것이다. 반조음은 오경석을

125)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p.17-19. “潘祖蔭 서신 · 元柅尊兄大人閣下 從公眇暇 前得手書 未及即發為罪 …… 一載以來 因公私冗雜 竟無片暇 金石一書 幾束高閣 愧我知己 大著擬留閱 覓人一抄 未知有副本否 如無副本即當奉趨耳 …… 此頌著安 勿勿不盡欲言 弟蔭頓 十三日”

126)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p.25-27. “潘祖蔭 서신 · 亦梅仁兄大人閣下 人事碌碌 竟不及一候 向為歉 大著金石錄 弟已錄得其副 茲特原稿奉趙 聞已在此地 付手民 未審確否 如已有刊本祈付一閱是荷 考證各條 精審之至 將來此百四十種 一一考訂 洵前人未有之偉觀也 斷不至如六一居士集靈宮之譏矣 命作序文 未能草率了事 以後遇人便 或閣下來都 必當報命 今冬能復來否 榮行在何日耶 …… 弟蔭頓”

六一居士(歐陽脩)와 비기면서 오경석의 재능에 대해 다시 한 번 감탄했다. 반조음이 말하기를 만약 140여종에 대해 일일이 고증하고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이는 누구도 못했던 것을 해내는 것이기에 대단한 업적이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반조음의 교정을 받은 『삼한금석록』 원고를 오경석이 자신이 머문 곳에서刻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刻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경석의 편지가 있었더라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 현재로선 알 방도가 없다.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만, 오경석 역시 스승 李尙迪처럼 청나라에서 『삼한금석록』을 출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중사간독첩』을 아무리 확인해 보아도 『삼한금석록』을 청나라에서 출간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계속하여 아래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아래 편지를 보면 반조음이 오경석의 『삼한금석록』 교정을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亦梅大兄大人閣下. 갑자기 선생의 편지와 선생의 大著를 받고 읽었습니다. 그로 인해 너무도 기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城南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선생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선생을 그리워함이 정말 깊습니다. 『金石錄』은 확실히 巨作입니다. 고증한 것이 특별히 정밀하고 상세합니다. 제가 교정을 보았으나, 교정을 보는 과정에 몇 군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오차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정을 볼 당시 제가 너무 경솔했나봅니다. 하여 앞뒤가 부합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실 두 跋文은 삭제해도 됩니다. 겨를이 있으시다면 제가 선생을 요청하여 한 번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월 초순에는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 편지를 빌어 선생의 평안함을 송축 드립니다. 弟 蔭 머 리 숙입니다.¹²⁷⁾

위 편지에서 반조음은 다시 한 번 『삼한금석록』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신의 실수를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였다. 의심

127) 吳慶錫, 『中士簡牘帖・晤王蓮生』, pp.10-12. “潘祖蔭 서신・亦梅大兄大人閣下 忽奉衆雲 並捧讀大著 為之喜而不寐 惜咫尺城南 不獲即挹清芬 實深葭溯 金石錄一書洵是鉅觀 考證尤為精審 為鄙人訂誤數條感甚 弟當時草率 為之遂多謬戾 其實兩跋可刪去也 得暇擬奉邀一叙 未識正月初旬 有暇否 …… 先此布頌頤安 弟蔭頓”

할 여지없이 금석교류에서 오경석의 지기는 바로 중사 반조음이었던 것이다.

반조음과 정조경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삼한금석록』은 당시 청나라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널리 보급되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아래 편지들을 보면 당시 중사들이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 편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

亦梅尊兄大人執事. 27일 본래 저는 子衡과 약속하여 선생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作故하신 汪仲穆 선생의 시신을 殮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일을 도와주느라 선생을 찾아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선생께서 『海東金石存攷』를 이미 다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 돌려받고자 제가 심부름꾼을 보내겠습니다. 선생의 大著 『三韓金石錄』은 지금 어느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제가 大著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귀국하는 길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小弟 楊傳第 다시 절합니다. 음력 2월 朔日(초하루)¹²⁸⁾

위 편지는 楊傳第가 보내온 것이다. 편지내용으로 보아 오경석에게 『海東金石存攷』를 전해준 사람은 양전제이다. 그 역시 오경석의 금석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줬던 인물이었다. 양전제 역시 금석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위 편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전제는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을 한 번 보려고 애타게 찾고 있다. 이는 『삼한금석록』이 당시로서는 상당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서적임을 입증한다. 또 다른 중사는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을 불후의 명작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함께 그 중사의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葉名禮의 편지이다.

亦梅詞兄閣下. 서로 헤어진지도 벌써 일 년이 되어갑니다.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로 힘듭니다. …… 선생의 저작 『金石考』는 지금 楊汀鷺 선생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副本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제가 副本을 가지

128)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p.9-10. “楊傳第 서신·亦梅尊兄大人執事 廿七日 本約子衡奉訪 緣先師汪仲穆先生出殯 弟為經紀其事 未獲偕詣 極以為憾 …… 海東金石存攷 想已閱竣 即交去僕帶還 大著三韓金石錄 現存何所 許一窺其體例否 肅此布意 敬頌行安 候示不具 小弟 楊傳第 再拜 狀上 二月朔”

고 남쪽의 江浙 일대를 돌려고 합니다. 돌면서 많은 金石學者를 만나 연구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선생의 저서는 가히 많은 金石學者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선생의 저서는 반드시 世世代代로 傳할 만한 작품입니다. 汪仲穆의 詩 한 冊을 선생께 드립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고 진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弟 葉名澧 머리 숙입니다. 2월 3일. 桐齋 형께도 문안인사 올립니다.¹²⁹⁾

위 편지에서 葉名澧는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이 세세대대로 전할 만한 저작임을 확신하고 있다. 葉名澧는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을 한 부 베끼어 副本을 만들었으며, 그 副本을 가지고 남쪽 江浙 일대를 돌면서 그 지방 금석 학자들과 토론해 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葉名澧는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이 많은 금석학자들로부터 인정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같은 확신을 얻은 오경석은 무한한 긍지를 느꼈을 것이다.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은 당시 청나라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금석학 저작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작이 아직까지 번역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에는 모두 140여 조목이 수록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을 확인해 보니 그 속엔 8조목 밖에 없었다. 그 8조목은 〈高句麗故域刻字二種 · 眞興王定界碑 · 平百濟塔碑銘 · 劉仁願碑 · 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銘 · 興法寺眞空大師碑 · 弘慶寺碣記 · 眞樂公文殊院記〉 등이다. 이와 같은 8조목만을 수록한 『삼한금석록』이 원본인지, 아니면 140여 조목을 모두 실은 『삼한금석록』이 원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만약 8조목만을 실은 『삼한금석록』이 원본이라면 다행이지만, 140여 조목을 실은 『삼한금석록』이 원본이라면 아마 그 원본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엄청난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오경석과 중사와의 금석 교류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해 보았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금석 교류에서 오경석은 중사 반조음과 가장 많은 교

129)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28-30. “葉名澧 서신 · 亦梅詞兄閣下 相別一載 思想為勞 …… 尊作金石考 存楊汀驚處 弟別寫副本 將來携之南行江浙 多講求金石學者 尊書可以採入 誠必傳之作也 汪仲穆詩一冊奉贈 即惟珍重 不盡欲言 弟 葉名澧頓 二月三日 桐齋兄並問”

류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성사시켜주었던 중사는 바로 정조경이었다. 당시 청나라에서 오경석의 『삼한금석록』은 세세대대로 전해질 수 있는 저작으로 평가되었다. 오경석 『삼한금석록』에는 중사 何秋濤의 서문, 중사 潘祖蔭의 서문, 韓士 李尙迪의 題가 실려 있다. 韓士 · 中士들 중에서 각각 한 인사만을 선택하여 『삼한금석록』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자. 아래 중사 何秋濤의 서문과 韓士 李尙迪의 題를 실어 보도록 하겠다. 중사 何秋濤의 서문은 아래와 같다.

三韓金石錄序 : 吉金樂石之刻은 自古로 重하였다. 그러다 宋代로부터 卷帙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近代의 通儒들은 古義에 대한 研精을 實事求是之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여 經史羣籍을 비롯하여 그 외의 것, 특히는 金石 자료에 대해 考證을 진행하고 있다. 하여 혹 어떤 이는 목록을 撰하기도 하고 혹 어떤 이는 圖譜를 著하기도 하고, 어떤 大者는 蒐羅한 것이 繁富한데 囊括包舉하였으며, 鉅細靡遺하였다. 또한 어떤 著錄은 비록 少하지만 더욱 精함을 講求하였다. 刀布 · 戈翟 · 甄甃 · 瓦當 등과 같은 一器一物의 微한 부분에 대해서도 疏通證明함이 없지 않았다. 각자의 所見을 抒하였는데 모두가 言之綦詳하였다. 하지만 天下之寶는 日出無窮인지라, 九州를 두루 訪하고자할 뜻은 있었으나, 미치지 못할 뿐이었다. 만약 好古之士들이 각자 머무른 鄉에서 구하거나 혹은 遊宦輶車하여 이른 곳에서 采摭表章한다면 鉅문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여기 關中の 山左諸志는 지역을 나누어 이미 編으로 만들어졌는데 참으로 體例가 훌륭한 것이다. 朝鮮은 「禹貢」에서 말했듯이 青州之域이다. 聲名文物이 著於東方이다. 하지만 金石 방면에 유독 아직까지 專書가 없다. 吳君 亦梅는 博雅嗜古함으로인해 개연히 일어나 이 같은 중임을 맡았다. 吳亦梅는 通都大邑에서의 鑒藏衰集之家가 되었다. 그는 海濱 · 山陬 · 叢祠 · 破冢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詢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豐碑 · 鉅製를 索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는 반드시 손으로 직접 臨摹하거나, 혹은 그 곳에 직접 찾아가 椎搨하고는 裝治하였다. 심지어 片語單詞에 대해서도 또한 반드시 輾轉하면서 구입하였다. 그의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여기에 수록한 것이 상당히 풍부하였는데 그 수가 十百種에 달하였다. 東國의 古蹟 · 環聞 등이 두루 갖추어졌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이 散佚되어 攷할 수 없음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것들을 勒하여 書로 만들었는데 모두 몇 권 정도가 된다. 책 이름은 『三韓金石錄』이라고 하였

다. 間以 나에게 보여주면서 序를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亦梅의 用心之勤은 歐·趙와 비겼을 때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 그리고 鑒別에 있어서 더욱 精識함을 갖추었다. 『三韓金石錄』에 수록되어있는, 예를 들어 「平百濟碑」·「朗空大師塔銘」등을 볼 때 이들은 이미 『金石萃編』을 비롯한 많은 서책에 수록되어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吳亦梅는 그것들을 고증함에 있어서 극히 精審함을 추구하였다. 그는 前人의 牙慧를 줍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여 그의 『三韓金石錄』에는 諸家들이 신지 않은 遺文들이 수록되었는데 琳琅滿目하였으며, 細大不捐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의 시대를 訂할 수 있으며, 당시의 法制와 事蹟에 대해 考核할 수 있다. 따라서 東邦의 掌故에 대해 增添하기에 족하다. 이로부터 義仲이 살던 宅, 箕子가封한 朝鮮에 金石之學이 卓然히 成家하게 되었다. 同志之士로서 먼저 보고서 기분 좋다고 여기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그리하여 작품의 뜻을 잘 밝혀내어 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바이다. 時 咸豐戊午(1858)春正月 光澤 何秋濤 序¹³⁰⁾

중사 何秋濤의 위 서문을 통해 금석학에 대한 오경석의 열정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하추도가 말했듯이 조선은 靑州之域으로 聲名文物이 동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금석 방면에 유독 아직까지 專書가 없었는데, 博雅嗜古했던 오경석이 그 중임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끈기가 필요했던 작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오경석이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이었다. 오경석은 반드시 직접 臨摹하거나, 혹은 답사지에 직접 찾아가 椎搨하고는 裝治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그

130) 吳慶錫. 哲宗8(1858). 『三韓金石錄』. 국립중앙도서관. 위창古2102-44. “三韓金石錄序·吉金樂石之刻 自古重之 宋以來 始成卷帙 近代通儒 研精古義爲實事求是之學 自經史羣籍之外 尤以金石資考證 於是 或撰目錄 或著圖譜 其大者蒐羅繁富 囊括包舉 鉅細靡遺 亦有著錄雖少 講求益精 若刀布 若戈罍 若甗鬯 若瓦當 一器一物之微 罔不疏通證明 各抒所見言之蓋藎詳矣 然天下之寶 日出無窮 徧訪九州 有志未逮 誠使好古之士 各求之於其鄉 或遊宦輅車 所及采摭表章 聞見益廣 此關中 山左諸志 分地域以成編 洵體例之善者也 朝鮮爲禹貢靑州之域 聲名文物著於東方 而金石獨未有專書 吳君亦梅博雅嗜古 慨然起而任之 通都大邑鑒藏衰集之家 靡不詢 海濫 山陬 叢祠 破冢之間 靡不索 豐碑 鉅製 必手自臨摹 或親至其下 椎搨而裝治之 至於片語 單詞 亦必輾轉購致 收錄之富 至數十百種 東國之古蹟 環聞備於是矣 慮其散佚而無攷也 勒爲成書 凡若干卷 名之曰三韓金石錄 間以示余屬爲序 余惟亦梅用心之勤 不減歐趙 而鑒別尤具有精識 觀其所錄 如平百濟碑 朗空大師塔銘之屬 爲萃編諸書 已著錄者 而攷證務極其精審 不肯拾前人牙慧 至諸家未載之遺文 琳琅滿目 細大不捐 訂其時代 稽其法制 事蹟 足裨於東邦掌故者不少 從此義仲所宅 箕子所封 金石之學 卓然成家 同志之士 有不以先睹爲快者哉 爰發其述作之意 以諗觀者 時咸豐戊午 春正月 光澤 何秋濤序”

누구도 쉽게 해 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아래 계속하여 오경석의 스승 李尙迪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다.

題三韓金石錄後：右쪽의 『三韓金石錄』은 吳君 亦梅가 편집한 것이다. 나는 평소 ‘亦梅는 書畫에 癖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얼마 전 그가 『古博拓文』冊子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序를 부탁하였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金石을 좋아함도 알았다. 그리고 오늘 이 錄을 보니 蒐訪함이 勤하였으며 攷訂함이 博하였다. 그러므로 洪·趙 諸家들과 비교한다 해도 거의 부끄럼이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우리 東邦을 놓고 볼 때 羅·麗 이래의 金石法物類들은 모두 刊泐해졌으며, 沉埋하였다. 그 누구도 그것들에 대해 護惜之餘한 사람이 없었다. 아~ 이러하기에 亦梅의 그 進함은 쉽게 해아릴 수 없구나. 亦梅는 여러 차례 日下에 다녀오면서, 많은 東南의 博雅之士들과 사귀었다. 그들과 함께 藝文에 대해 商確하였으며, 자신의 心目을 發皇하였다. 그러면서 海內金石著錄들을 힘써 구하였는데 家藏한 것이 심히 풍부하였다. 아마도 이와 같은 까닭으로 慨然히 東邦舊蹟에 뜻을 두게 된 것 같다. 매번 〈彭吳古碑〉를 얻어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근간에 嶺南 錦山の 摩崖篆刻을 획득하였으나, 字體가 奇詭하여 분별할 수가 없었다.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何願船 比部가 반복적으로 攷釋한 결과 '徐市起禮日出'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六字는 반드시 秦나라 때의 유적인데 彭吳片石으로 보인다. 거의 武陵人이 漢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마땅히 이 刻을 三韓金石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秦嶧之罘의 殘字와 함께 後世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어찌 위대한 업적이 아니겠는가. 咸豐戊午易月之望 老藕 李尙迪이 海鄰書屋에서 적는다.¹³¹⁾

李尙迪 역시 『삼한금석록』을 보고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오경석의

131) 吳慶錫. 哲宗8(1858). 『三韓金石錄』. 국립중앙도서관. 위창古2102-44. “題三韓金石錄後·右 三韓金石錄 吳君亦梅所編輯也 余素稱亦梅之癖於書畫 而曩者承示古博拓文冊子囑為之序 始知其嗜金石 而今見此錄 則蒐訪之勤 攷訂之博 庶無愧於洪趙諸家 而況我東邦 羅麗以來 金石法物類 皆刊泐沉埋 無人護惜之餘乎 於戲 其進未易量也 蓋亦梅屢游日下 所交多東南博雅之士 商確藝文 發皇心目 而力購海內金石著錄之書 家藏甚富 於是慨然有志於東邦舊蹟 每以不得見彭吳古碑為憾焉 近獲嶺南錦山之摩崖篆刻 字體奇詭 不可辨 乃質諸何願船比部 反復攷釋 得徐市起禮日出 六字 定為秦時遺蹟 其視彭吳片石 殆若武陵人 不知有漢者也 當以此刻為三韓金石之冠 而將與秦嶧之罘殘字 并傳于天下後世矣 豈不偉哉 咸豐戊午易月之望 老藕 李尙迪 識於海鄰書屋”

근면함과 세심한 고증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李尙迪이 말하기를 "新羅 · 高麗 이래 한반도의 金石文物들은 모두 방치된 채, 누구 하나 그것들을 아끼고 보호한 적이 없었는데, 오경석이 이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으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였다.

中土 何秋濤와 韓土 李尙迪의 평가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오경석의 근면함과 세심함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삼한금석록』이 당시 청나라에서 최고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오경석의 피나는 노력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오경석은 옛 金石文物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印章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북경에 가서 중사들을 만났을 때 꼭 중사들에게 印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래 小節에서는 印章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오경석과 중사들과의 교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3 印章

사신으로 북경에 간 오경석은 중사들과 서화 · 금석 방면의 교류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중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인장을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인장에 대한 연구는 혹시 '금석학 연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오경석은 程祖慶 · 孔憲彝 · 樊彬 · 樊觀玉 · 徐志涸 · 許春榮 · 孫福清 · 高繼珩 · 濮森 · 周棠 · 葉名澧 등 여러 중사들에게 인장을 새겨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중사간독첩』을 아무리 확인해 보아도 오경석이 어찌하여 중사들에게 인장을 새겨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오경석에게 보내온 중사들의 편지를 보면 인장에 대해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탁한 인장을 완성했으니 지금 보낸다' 또 '지난 번 보낸 돌의 재질이 좋지 않기에 다른 것으로 바꿔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전부이다.

인장 교류는 오경석으로 하여금 모르던 중사를 알 수 있게 하는 橋梁 역할을 하였다. 아래에 인장 교류를 통해 오경석이 모르던 중사들을 알게 되는 과정을 여실히 담고 있는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다.

繡山(공헌이) 선생께서 저에게 石印 7方을 보내왔습니다. 하여 제가 樊珪山(樊觀玉)에게 부탁하여 대신 새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繡山 선생께서 그 石印 7方을 樊珪山 선생께 보냈을 겁니다. 珪山 부친의 이름은 彬이고 자는 文卿입니다. 詩에도 역시 능합니다. 父子 모두 선생의 筆墨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선생의 筆墨이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돌을 줄 수 없는지요. …… 珩(高繼珩) 또 절합니다.¹³²⁾

위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高繼珩이 樊彬과 樊觀玉(樊珪山)을 오경석에게 소개해 줬음을 알 수 있다. 편지에는 실려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경석은 분명히 먼저 孔憲彝를 찾아가서 인장을 의뢰했었다. 오경석의 의뢰를 받은 공헌이는 자신의 친구 고계형을 찾았고, 고계형은 다시 변빈과 변근옥(변규산)을 공헌이에게 추천해 주었다. 하여 인장 하나로 인해 오경석은 변빈과 변근옥을 알게 되었고, 오경석의 청나라에서의 인맥은 차츰차츰 넓어지게 되었다. 아래 편지가 바로 공헌이가 변근옥을 오경석에게 소개시켜주는 내용이다.

亦某尊兄大人께서 또 보십시오. 어제 선생께 편지를 드렸으나,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樊文卿(樊彬) 少尹께서 詩 한 수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대신 선생께 보내 드립니다. 文卿의 아들 珪山도 刻印에 능한 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먼저 보낸 편지에 다 있기에 다시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弟 彝 또 올립니다. 安桐齋 兄의 근황은 어떠합니까? 저 대신 문안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2월 초4일.¹³³⁾

위 편지에서 변빈은 공헌이를 통해 자신의 시를 오경석에게 전하고 있다. 동시에 공헌이는 변빈의 아들 변근옥(변규산)을 오경석에게 소개시켜 준다. 오경석에게 부탁한 인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도 있다. 오경석은 본래 변빈이 직접 각한 인장을 얻고 싶었지만, 매번 변빈에게

132)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先生』, p.3. “高繼珩 서신 · 繡山交石印七方 弟轉託樊珪山代為鑄製 已由繡山繳呈矣 珪山父名彬 字文卿 亦工詩 喬梓均思得尊處筆墨 以爲寵 可惠一二否 …… 珩再拜”

133)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48. “孔憲彝 서신 · 亦某尊兄大人再覽 昨泐布未盡所懷 樊文卿少尹 奉寄一詩 茲代呈正 文卿之子珪山 即工刻印者也 餘詳前函 不復多及 弟彝又啓 安桐齋兄近況如何 乞為致聲 二月初四日”

의뢰한 인장은 아들 번근옥이 대신 각을 하였다. 그만큼 번빈 역시 아들 번근옥의 실력을 믿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아래 편지내용에 마침 번빈이 아들 번근옥에게 임무를 맡기는 대목이 있다.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후한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印章은 조금 기다렸다 아들을 시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 6일에는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 亦梅先生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弟 彬 머리 숙입니다. 초3일.¹³⁴⁾

위 편지를 본 후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오경석이 樊彬이 새긴 인장을 얻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번빈은 아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있다.

아래 편지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편지와 동일한 날에 보냈음을 알 수 있다.

亦樸先生閣下. 보내주신 푸짐한 선물을 좀 전에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 끝 없습니다. 印章은 이미 아들에게 주어 빨리 새기라고 시켰습니다. 선생이 떠나 가시는 날 전에는 완성될 것 같지 못합니다. 인편에 딸려 부쳐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선생께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弟 彬 머리 숙입니다. 초 3일.¹³⁵⁾

이날 번빈은 오경석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내심 걱정했던 모양이다. 같은 날 두 번째 편지를 오경석에게 보내 오경석이 귀국하는 날 전까지는 인장을 완성하기가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번빈은 인장을 다 새긴 후 인편에 딸려 보내겠다고 하면서 오경석을 안심시키고 있다. 번빈은 오경석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들의 우정은 인장으로 인하여 오경석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이어졌다. 아래 편지에는 번빈이 오경석에게 완성된 인장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였다.

134) 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35. “樊彬 서신·拜讀手書 並承厚賜叩領感謝 圖章容命 兒子刻鑄 恐初六日 未能成也 …… 亦梅先生行安 弟彬頓 初三日”

135) 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31. “樊彬 서신·亦樸先生閣下 頃承厚賜 銘感無已 圖章已送交兒子 速鑄 榮行前 恐不成就 只可附便寄呈不悞 …… 此請吟安 弟彬頓 初三日”

亦梅仁兄大人閣下. 선생께서 여러 차례 저를 방문해 주셔서 저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빌어 그동안 쌓인 답답했던 마음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매번 선생의 충애를 받아 많은 귀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마움과 부끄러운 마음은 배가 됩니다. 저에게 부탁하신 印章은 이미 새겼습니다. 그리고 拙詩 몇 수도 같이 드리오니 선생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觀玉도 따라 문안 인사 올립니다. 愚弟 樊彬 머리 숙입니다.¹³⁶⁾

이렇게 오경석과 변빈은 인장으로 인해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둘의 인연은 오경석과 변근옥의 인연으로까지 이어졌다. 변근옥은 변빈의 아들이기에 오경석과 변근옥과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 처음에 오경석은 변빈하고 인장을 새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뒤로 오면서 차츰 변근옥에게 인장을 새겨달라고 의뢰한다. 오경석 역시 변근옥의 실력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편지는 변근옥이 오경석에게 완성한 인장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亦棧先生閣下. 전일에 선생을 만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새겨주기를 부탁하신 印章은 며칠 후 완성하는 즉시 선생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선생께 질 좋은 淸心丸藥이 있으신지요? 만약 몇 丸을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께서 근간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樊觀玉 머리 숙입니다. 新正 10일.¹³⁷⁾

樊觀玉은 자신이 새긴 인장을 오경석에게 보내면서 질 좋은 淸心丸을 달라고 요구한다. 효도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복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 다른 경우 인장을 새겨줬기에 그 대가로 淸心丸을 달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중사간독첩』에 실린 변근옥의 모든 편지를 확인해 봤으나, 인장을 새겨줬기에 그 대가로 돈이나 기타 물

136)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49. “樊彬 서신·亦梅仁兄大人閣下 屢承枉顧暢聆教言 藉抒積悶 良深欣慰 復荷寵惠多珍倍增感愧 囑鑄圖章茲已刻就 並拙詩數首統呈教正 …… 敬請道安 觀玉兒隨叩 愚弟 樊彬頓首”

137)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52. “樊觀玉 서신·亦棧先生閣下 日前暢聆大教 快何如之 承囑刻印章 容鑄就即當奉上 尊處如有上好淸心丸藥 敢祈惠賜數丸為感 此請近安 樊觀玉頓 新正十日”

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 아래 편지에도 번근옥이 자신이 새긴 인장을 오경석에게 보낸다는 내용이 있다.

亦梅先生閣下. 孟冬下旬에 선생께서 보내온 편지를 받고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고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또 귀중한 물품들을 보내주셨는데 절하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 감사의 마음에서 이렇게 씁니다. 선생께서 기거가 평안하신지를 묻습니다. 禮書를 읽으면서 여유 있게 지내는 사이 內典을 전심전의로 연구하셨지요. 새로 간행한 『甘露』 서적을 저에게 보내주셨지요. 그 서적은 慧業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이미 同人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탄복합니다. 새겨달라고 부탁하신 印章 3方은 급급히 완성하였습니다. 선생께 드리오니 바라건대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樊覲玉 머리 숙입니다. 11월 초 10일. 令弟와 令郎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선생께서 겨를이 있으시다면, 갖고 계시는 淸心丸 몇丸을 보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께서 지금 계시는 곳의 주소를 상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편지를 실수 없이 보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¹³⁸⁾

위 편지를 통해 번근옥이 인장을 오경석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경석에게 『甘露』라는 저서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甘露』라는 서적을 찾은 후에야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 편지에서도 번근옥은 청심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청심환이 청나라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음을 보여준다.

아래 편지에도 역시 번근옥이 오경석에게 자신이 새긴 인장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번근옥의 기타 편지에 비해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오경석에게 보내온 시간 때문이다. 편지의 끝에 적힌 일자를 보면 '戊寅年(1878) 新正 10일'로 되어 있다. 오경석이 세상을 떠난 날은 1879년 8월 22일이다. 즉 오경석과 번근옥의 평생에 걸친 돈독한 우정을 엿볼 수 있다. 1874년 10월부터 1875년 4월까지의 冬至兼謝

138)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p.53-54. “樊覲玉 書信·亦梅先生閣下 孟冬下旬 接奉手書 備承綺注 並荷惠寄多珍 拜登嘉貺感泐奚如 卽審起居安善 讀禮之暇 究心內典 承賜新刊甘露一書具徵慧業 已分贈同人曷勝欽感 囑刻印章三方勿勿鑄就奉上 祈教之是幸 …… 樊覲玉頓 十一月 初十日 令弟暨令郎均此請安 如有便乞將上好淸心丸 賜付數丸感甚感甚 閣下住址 祈詳示寄書庶不致浮沈也”

恩使가 오경석에게는 마지막 사행이 되었다. 만약 오경석이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 4월에 풍증이 생겨 반신불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오경석의 사행은 몇 차례 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그의 사행은 막을 내렸다. 중사들은 오경석을 그리워하였고 오경석의 건강을 萬里 밖에서 걱정해 주었다. 그중 한 중사가 바로 번근옥이었다. 아래 1878년 新正 10일, 오경석에게 보내온 번근옥의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亦梅先生閣下. 년 말에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먼 곳에서 저에게 紫蓓을 보내주셨는데, 인사하고 잘 받았습니다. 고마운 이 내 마음을 어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선생께서 기거가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선생께서 건강을 되찾아 일찍이 약을 끊었음도 알았습니다. 진실로 박수치면서 기뻐할만하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선생께서 숲 아래에서 한가하게 지내면서 書畫를 즐기고 계시니 마음은 즐겁고, 풍아지사는 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로 족히 같이 기뻐할만합니다. 매번 화려한 광채를(선생을) 떠올릴 때마다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했던 옛 일들을 생각하면서 선생을 그리워합니다. 선생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선생께서 北京에 오셔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새겨달라고 부탁하신 印章은 충망히 다 새겼습니다. 선생께 드립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심사하고 받아 주십시오. 선생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선생께서 겨를이 있으실 때면 좋은 말씀을 한 수레 가득 실어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郎蘇門 그림 한 폭, 楹聯 한 부를 보냅니다. 바라건대 웃으면서 받아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께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골고루 비추지 못했습니다. 樊觀玉 머리 숙입니다. 戊寅年(1878) 新正10일. 선생의 동생과 아드님에게도 문안 인사 올립니다.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¹³⁹⁾

위 편지에서 오경석을 그리워하는 번근옥의 애타는 모습을 가히 떠올릴 수

139) 吳慶錫, 『中土簡牘帖・承惠』, pp.58-60. “樊觀玉 서신・亦梅先生閣下 歲杪接奉手書 備承記注遠荷惠寄紫蓓謹已拜領 感泐奚如 敬審起居安善 履祉綏亨 並悉尊體康和 早占勿藥 尤為忭慰 優游林下 書畫怡情雅人深致 洵足樂也 每憶芝暉 時深葭溥停雲落月 諒有同情 惟盼使節來京 藉得侍聆大教 是所盼禱 囑刻印章勿勿鑄就 奉上 伏祈鑒入 尚望誨正 風便惟乞 時賜鍼車 藉資韋佩 是所感禱 附呈郎蘇門畫一幅 楹聯一副 祈晒存是荷 肅此佈謝 祇請頤安 諸惟垂照不一 樊觀玉頓 戊寅新正十日 令弟及令郎均此請安 不另啓”

있다. 변근옥에게 보낸 편지에 오경석이 자신의 상황을 기필코 알려줬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경석이 풍증으로 쓰러졌음을 변근옥은 잘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거동이 불편한 오경석이지만, 그는 힘든 몸을 이끌고 변근옥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편지와 함께 紫薇도 보내 주었다. 그러면서 변근옥에게 인장을 새겨달라고 또 부탁했다. 오경석이 인장에 대해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변빈 · 변근옥 외의 다른 중사들도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줬다.

吳大人, 弟 制 許春榮 머리 숙입니다. 선생께서 보십시오. 며칠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움에 목이 마릅니다. 전에 선생께서 저에게 印章을刻해 달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여 아직까지 刻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건대 저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亦翁先生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선생께서 내일 떠나시죠? 그런데 제가 배웅해 드리지 못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¹⁴⁰⁾

위 편지를 확인하니 오경석이 許春榮에게도 인장을 부탁했음을 알 수 있다. 허춘영은 오경석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의 다망함으로 인해 아직 새기지 못했다면서 많이 죄송해하고 있다. 그러다 며칠 후 허춘영은 부탁한 인장을 모두 새겼다면 오경석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아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며칠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움에 목이 마릅니다. 오늘 제가 刻을 한 印章 3方을 선생께 드립니다. 선생의 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웃으면서 받아 주십시오. 亦翁先生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弟 制 許春榮 머리 숙입니다.¹⁴¹⁾

140) 吳慶錫, 『中土簡牘帖 · 賤柬』, p.19. “許春榮 서신 · 吳大人 弟制 許春榮 頓首 啓者 數日未面 渴想之至 前令刻圖 弟實無間暇故不及刻 幸勿見罪為要 此請 亦翁先生大人行安 再者閣下明日走 弟亦不安送 勿見怪切切”

141) 吳慶錫, 『中土簡牘帖 · 賤柬』, p.20. “許春榮 서신 · 數日未晤 渴想之至 今奉上刻得圖章三方 不免見齒 尚祈哂存 此請 亦翁先生大人皆安 愚弟 制 許春榮頓”

오경석은 孫福淸에게도 인장 부탁을 했다. 오경석의 부탁을 받은 손복청은 최선을 다해 오경석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아래 편지가 바로 손복청이 오경석에게 인장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지난달 26일에 특별히 선생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廣盛'이라고 쓴 곳을 찾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엔 장소는 찾았지만 또 마침 두 선생께서 공적인 사무로 밖에 나갔었습니다. 왜 이렇게도 저에겐 선생과 한 번 만나는 인연이 없는지요. 저녁쯤 기다렸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선물 한 두 가지를 선생께 드립니다. 李·吳 두 선생각하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浙西 弟 福淸 머리 숙입니다. 얼마 전 <天竹齋圖>에 題를 지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그리고 印章도 새겨달라고 하셨죠? 제가 지은 題와 印章 3方を 釋衡 선생께 맡겨 놓았습니다.¹⁴²⁾

위 편지를 확인하니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孫福淸이 특별히 오경석을 방문하고자 오경석 일행이 머문 廣盛局으로 찾아 갔다. 그런데 광성이라는 곳을 찾을 수 없어 허탕치고 돌아왔다고 한다. 손복청 개인에 관한 사소한 일일지는 몰라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바로 조선 사행단이 북경에 머물러 있던 곳은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없던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손복청 역시 처음 방문 땀 허탕치고 돌아왔던 것이다.

오경석과 程祖慶과의 인연은 깊고 깊었다. 오경석의 부탁을 받고 <天竹齋圖>를 그려준 중사가 정조경이고, 오경석의 『삼한금석록』 편찬을 도와준 중사도 정조경이었으며, 『삼한금석록』 교정을 보았던 潘祖蔭을 오경석에게 소개시켜 줬던 인물 역시 정조경이었다. 오경석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인장에서도 정조경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북경에서 오경석과 중사들과의 교류는 정조경을 핵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조경은 회화 방면에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정조경은

142) 吳慶錫, 『中土簡牘帖·賤束』, p.21. “孫福淸 서신·前月二十六日專誠奉候 却覓不見廣盛字號悵悵而返 今日覓至又值兩君公出 何緣慳一面耶 晚間容再走候 尚有一二微物奉贈也 留頌 行社不具 李吳兩先生閣下 浙西 弟 福淸頓 前囑題天竹齋圖 及囑鑄印章三方 均交釋衡處又行”

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장이었다. 인장을 새기는 정조경의 기예는 당시 가히 일품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아래 편지를 보면 정조경 역시 인장에 타고난 癖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연 며칠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립습니다. 선생께서 기거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石章을 새기라고 명하셨죠? 먼저 몇 方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새겨놓고 보니 완벽한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印章에 대한 嗜癖之癖이 아주 심합니다. 하여 印章의 醜한 면을 보고는 스스로 숨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印匱 등 기타 물품들도 印章과 함께 선생께 드립니다. 바라건대 웃으면서 받아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직 새기지 못한 印章이 몇 方 있는데, 이미 친구에게 부탁하여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비겼을 때 그 친구가 훨씬 더 잘 새깁니다. 그 친구가 다 새기면 곧 이어 선생께 드리겠습니다. …… 亦梅仁弟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以兄 선생께서도 역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小兄 祖慶 머리 숙입니다. 12일.¹⁴³⁾

위 편지에서 오경석은 정조경에게도 인장을 새겨달라고 부탁하였다. 정조경은 오경석의 부탁을 받고 성심성의껏 인장을 새겨줬다. 정조경은 자신의 솜씨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이 새긴 인장을 오경석에게 전해주었다. 또한 정조경은 실력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한 친구에게 오경석이 부탁한 인장을 새겨달라고 의뢰한다. 오경석에 대한 최선의 배려라고 판단된다. 정조경이 부탁받은 모든 인장을 刻한 후 오경석에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정조경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다. 그로선 먼 조선에서 힘들게 온 젊은 학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우를 해준 셈이었다.

아래 계속하여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준 다른 중사를 만나 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 중사의 편지를 보겠다.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梅

143) 吳慶錫, 『中土簡牘帖·枉嘉』, p.31. “程祖慶 서신·積日未晤良念 惟起居安吉為頌 命刻石章先成數方 了無佳處 重以嗜癖之癖 不敢自匿其醜 茲並印匱等件呈上 乞晒存是幸 尚有數方已轉屬友人刻矣 較勝不佞萬萬也 當續呈 …… 亦梅仁弟大人吟安 以兄均此請安 愚小兄 祖慶頓 十二日”

花 그림은 예스러운 품위를 나타냄이 정말로 지극합니다. 탄복하고 탄복합니다. 저에게 印章을 새겨달라고 부탁하셨죠? 선생께서 저에게 보내신 印章 가운데 黃色 新江石 4方이 있습니다. 새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여 4方을 원래대로 돌려보냅니다. 다른 4方으로 바꿔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간 기타 印章들은 며칠 후 새김을 마치면 선생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즉시 선생의 가르침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亦梅先生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小弟 濮森 머리 숙여 절합니다.¹⁴⁴⁾

오경석에게 보내온 濮森의 편지를 보면 기타 중사가 오경석에게 보내온 편지와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중사들은 오경석의 부탁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 인장을 새긴 후 오경석에게 보내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복삼은 달랐다. 복삼은 오경석이 보내온 돌에 대해 아주 까다로웠다. 먼저 인장 새기기에 적합한 돌인가를 판단한 후 신중하게 새기는 전문가였다. 원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복삼은 오경석이 보내온 黃色 新江石에 대해 인장 새기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후 과단성 있게 오경석에게 편지를 보내 다른 돌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경석이 매번 중사에게 인장을 새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인장 돌은 스스로 마련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럼 중사가 오경석의 부탁을 받고 인장을 새겨주는데 '無償으로 새겨줬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오경석과 그동안 쌓아 왔던 친분이 있기에 당연히 無償으로 새겨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다음 편지에서 확인된다.

아래 편지 역시 복삼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것인데 조선과 청나라 선비문화 교류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임이 틀림없다. 복삼의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다.

弟 森 머리 숙여 절합니다. 저에게 蘇合妙藥 · 箋帑 등을 많이 보내셨더군요. 선생의 마음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게 새기라고 부탁한 印章 가운데 몇 方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생각건대 조금 더

144) 吳慶錫, 『中土簡牘帖 · 亦梅先生』, p.20. “濮森 서신 · 捧讀手示一切知悉 多承賜法繪梅花 古潑之至 拜倒拜倒 委篆圖章內有黃色新江石四方 難以湊刀奉趙 另換四方為鈔 昨所携回各章 容日再請圖章篆就呈上 即為求教可也 即請亦梅先生大人台安 小弟 濮森頓首拜”

기다렸다 3일 후에 제가 직접 선생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 제가 印章을 새겼습니다만, 그 새긴 가격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훗날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눕시다. …… 亦梅先生大人閣下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弟 濮森 머리 숙여 또 다시 절합니다.¹⁴⁵⁾

위의 편지에서 복삼이 오경석의 부탁을 받고 인장을 새겨줬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복삼이 말하기를 "제가 인장을 새겼습니다만 그 새긴 가격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훗날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눕시다."라는 말을 남겼다. 결국 오경석이 복삼에게 돈을 지불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복삼의 이 편지 속에 처음 인장을 새긴 데 대한 대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아래 계속하여 복삼의 기타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제가 직접 새긴 印章 33方を 선생께 드립니다. 박식하신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생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 亦梅先生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小弟 濮森 머리 숙여 다시 절합니다.¹⁴⁶⁾

위 편지에서 濮森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인장 개수를 보면 그 量이 어마어마하다. 33방이라고 하면 이는 정조경이 한 번 새기는 인장 개수의 11배에 달하는 量이다. 기타 중사들도 오경석에게 인장을 보낼 때면 보통 3방 정도를 보낸다. 그러나 복삼은 달랐다.

周棠 역시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줬다. 아래 편지를 보면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제 선생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고결한 덕을 갖추신 선생을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 저에게 쓰라고 부탁한 楹聯 두 쌍, 橫披 한

145)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先生』, pp.21-22. “濮森 서신・弟森頓首拜謝 承賜 蘇合妙藥 箋帑若許弟心印謝謝 委刻各章 尚有數方未刻 望容三日後 弟當親奉上可也 …… 刻章之價 弟難以開口 容日面談 …… 叩請亦梅先生大人閣下台安 弟 濮森頓首 再拜”

146)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先生』, pp.23-24. “濮森 서신・奉上拙作圖章三十三方 並求 濃家指教 前接手示 …… 叩請亦梅先生大人台安 愚小弟 濮森頓首 再拜”

폭은 훗날에 붓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印石은 刻을 완성하려면 대략 이번 달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 亦梅先生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弟 少白 周棠 머리 숙입니다. 正月 17일.¹⁴⁷⁾

葉名澧 역시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줬다. 아래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亦梅尊兄閣下. 저에게 부탁하여 새겨달라던 石印을 선생께 드립니다. …… 선생께서 진중하시기를 바랍니다. 弟 葉名澧 머리 숙입니다. 30일.¹⁴⁸⁾

徐志涸도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줬다. 아래 편지를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亦梅仁兄大人閣下. 어제 푸집한 선물을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印章을 새겨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선생께서 주신 돌이 지나치게 연해서 새긴 글자가 理想的이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이 씁니다. 선생의 기거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변치 못함을 양해해 주세요. 愚弟 徐志涸 머리 숙입니다.¹⁴⁹⁾

위 편지를 확인하고 보니, 濮森이 기타 중사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복삼은 오경석에게서 인장 돌을 받은 후 먼저 그 재질에 대해 판단한 후 새겼다. 반면 徐志涸은 인장 돌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오경석이 보내 온대로 인장을 새겼다. 새겨 놓고 보니 印章石 강도의 약함으로 인해 글자가 理想的이지 않다고 오경석에게 알려준다. 어쩌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복삼의 간간한 성품과 프로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47) 吳慶錫, 『中土簡牘帖・亦梅先生』, pp.37-40. “周棠 서신・日昨承枉駕快挹清芬 …… 委書楹聯二對 橫披一紙 日後勉筆 並印石 刻好 大約月底可以交卷也 …… 敬請亦梅先生館祺不一 愚弟 少白周棠頓 正月十七日”

148) 吳慶錫, 『中土簡牘帖・亦梅仁兄』, pp.24. “葉名澧 서신・亦梅尊兄閣下 屬刻石印奉上 …… 諸惟珍重不一 弟葉名澧頓 卅日”

149) 吳慶錫, 『中土簡牘帖・鎮齋』, p.44. “徐志涸 서신・亦梅仁兄大人閣下 昨承厚賜謝 惟囑刻圖章緣石性過軟 難見刀法 …… 此泐 佈臆即請 台安諸希 亮督不具 愚弟 徐志涸頓”

이상과 같이 오경석과 중사와의 인장 교류 상황을 살펴보았다. 오경석은 인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程祖慶 · 孔憲彝 · 樊彬 · 樊觀玉 · 徐志洵 · 許春榮 · 孫福清 · 高繼珩 · 濮森 · 周棠 · 葉名澧 등 많은 중사들이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줬다. 인장을 매개로한 교류 역시 오경석에게 새로운 중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5.4 人蔘

주지하다시피 조선 인삼은 청나라에서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 매번 조선사행단이 북경에 갔을 때 중사들은 서로 경쟁하듯 조선 인삼을 요구하였다. 중사들이 사행단이 갖고 온 인삼을 선호했던 원인은 북경 인삼국에서 파는 인삼과 비교했을 때 값은 저렴하지만, 그 상품성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오경석에게 편지를 제일 많이 보내온 정조경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인삼에 관해 제일 많이 언급했고, 그 외 孔憲彝 · 李炳勳 · 劉景澤 · 樊觀玉 · 濮森 · 吳鴻恩 등 중사의 편지에서도 인삼에 관해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아래 몇몇 중사들의 편지를 직접 보면서 그 당시 중사들과 오경석 사이에 인삼을 둘러싸고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다른 중사들과 비교했을 때 편지에서 인삼을 제일 많이 언급했던 정조경부터 보겠다.

亦梅老弟大人閣下. 어제 제가 선생께 편지와 畫冊을 보냈습니다. 생각건대 이미 읽어보셨겠지요. 선생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정월 초 2일에 저의 고향 친구가 남쪽으로 돌아갑니다. 선생을 번거롭게 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人蔘 파는 곳에서 저를 대신하여 三樞(人蔘) 8兩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입하는 데 사용한 가격을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 심부름꾼에게 명하여 그 가격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돈을 선생께 부쳐 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회답을 합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如小兄 祖慶 머리 숙입니다. 除夕 呵凍(입김을 불면서 씁니다.)¹⁵⁰⁾

150) 吳慶錫, 『中士簡牘帖 · 賤束』, p.15. “程祖慶 서신 · 亦梅老弟大人閣下 昨奉數行並畫冊 想覽及 茲懇者 正月初二有同鄉回南 奉煩向賈人處 代購三樞八兩 該價示明 至安至安 少頃

위 편지 내용을 보면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인삼을 구입해 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조경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요청을 했다. 비록 내용은 많지 않지만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경에 갈 때 오경석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갖고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오경석이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갖고 갔다면 정조경이 굳이 그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 직접 가격을 물어보고 구입하면 되었을 것이다.

아래 계속하여 정조경의 다른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亦梅仁兄大人閣下. 어제 약속이 있어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술에 취하여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 人蔘 가격 역시 제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선생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人蔘판매인으로부터 여러 종을 가져올 수 있는지요? 人蔘의 가격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의 심부름꾼에게 명하여 저에게로 가져다주십시오. 저의 친구가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는 그 친구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인삼 국에서 파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더욱 좋습니다. 저도 역시 조금 가지고 싶습니다. 저의 부모님께 부쳐 드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늦었다간 얻지 못할 듯 싶습니다. ……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지 못했습니다. 愚小弟 祖慶 머리 숙입니다. 초9일 辰. 漢碑 목록을 적은 종이 한 장을 보내오니 선생께서 보십시오. 오늘 저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집에 없을 수 있습니다.¹⁵¹⁾

이 편지에서도 정조경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오경석에게 인삼에 관해 문의하고 있다.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여러 등급의 인삼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며, 인삼은 돈을 주고 구입하며, 인삼의 선택은 친구가 직접 한다고 했다. 편지에는 모임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정조경의 집일 가능성이 상당히

飭紀交來 以便封寄耳 專此布瀆 並頌年安 如小兄祖慶頓 除夕呵凍”

151) 吳慶錫, 『中士簡牘帖 · 枉嘉』, pp.9-10. “程祖慶 서신 · 亦梅仁兄大人閣下 昨赴友人之約 晚間醉歸 讀手示具悉 …… 侵價亦係友人托詢 或向賈人處取數種 開明所值 領尊使交來 敝友所需何種 令其自擇之 較肆中所售 定價廉而物美也 弟亦欲得少許 寄奉堂上 且稍遲之頃 尚無及也 …… 即請吟安 未盡一一 愚小弟 祖慶頓 初九日辰 漢碑目一紙附覽 今日弟不他出 明日或又不在家”

크다. 정조경은 오경석 일행이 직접 조선에서 갖고 온 인삼은 북경 인삼국에서 파는 것보다 저렴하지만, 품질이 아주 뛰어나다고 표현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인삼의 품질을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다. 편지에서 정조경의 친구가 인삼을 구입한 후 자신이 먹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경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면서 오경석에게 인삼을 조금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당시 조선 인삼이 청나라에서 효자상품 노릇을 제대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편지에서도 정조경이 친구를 대신해 오경석을 통해 인삼을 구입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좀 전에 선생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 韓齋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 보셨죠. …… 얼마 전 제 친구가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편지에서는 오늘에 人蔘 값을 보내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그 친구가 돈을 보내오면 그 돈을 저에게 맡겨 두십시오. 그 돈으로 글씨와 帖의 값을 갚으십시오. 그러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돈의 사용 내역을 적은 명세표를 선생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과 저에게 제일 편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정월 초9일 夕. 無礙筆談. 조리 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마십시오. 전에 몇 번의 筆談紙도 인편이 있거든 보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¹⁵²⁾

위 편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보내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편지에서는 오늘에 인삼 값을 보내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그 친구가 돈을 보내오면 그 돈을 저에게 맡겨 두십시오. 그 돈으로 글씨와 帖의 값을 갚으십시오." 이 내용에 근거해 보면 정조경의 친구는 아직 인삼 값을 오경석에게 치르지 않았

152)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p.11-12. “程祖慶 서신·前書下詢 韓齋座客姓名 …… 書約今日送來侵值 敝友亦尚未交出 俟其交來後 或即存弟處 以酬書及帖之值 以省往還周扎 他日開呈除支清單最爲兩便然否 …… 正月初九夕 無礙筆談 拉雜書 此幸勿示人 前數次談 昏 遇便擲還爲荷”

다. 이 상황에서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그 친구가 인삼 값을 가져 오면 그 돈으로 글씨와 첩의 값을 갚으라고 알려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해 보면 정조경의 친구는 분명히 외상으로 인삼을 가져갔던 것이다. 태어나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비싼 인삼을 오경석이 외상으로 주었다는 말이 된다. 오경석이 낯선 외국인에게 인삼을 외상으로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정조경이 소개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정조경에 대해 오경석은 깊이 신뢰했다. 아래 편지 역시 정조경이 친구를 대신하여 인삼을 구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吳亦梅先生閣下. 程祖慶 머리 숙입니다. …… 전에 보여주신 두 종류의 人蔘을 보고 구입하고자하던 제 친구가 말하기를 품질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만약 한 근에 5-6金하는 조금 차한 것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먼저 보좌인에게 물어봐주실 수 있는지요. 내일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 합시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딸려 보냅니다.¹⁵³⁾

위 편지를 보면 '세상에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라는 생각이 든다. 정조경의 부탁을 받은 오경석은 여러 등급의 인삼을 가지고 정조경과 정조경 친구를 만났다. 상품을 본 정조경 친구가 하는 말이 인삼의 품질이 너무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싼 가격의 인삼이 없냐고 물어본다. 오경석은 정조경과의 친분을 봐서 최상급 인삼을 가져 왔건만 정조경 친구는 이를 물리치고 있다. 북경 인삼국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상급 인삼이었건만, 정조경 친구가 이를 물리치는 데는 모종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아래와 같은 생각은 비록 추측이지만, 그럴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에 간단하게 적어본다. 당시 조선 인삼이 청나라에서 효자상품 노릇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즉 그 당시 청나라사회의 상류계층에서 조선 인삼은 사치품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을 것이며, 청나라 인사를 비롯한 청나라 상인들 사이에서도 조선 인삼은 상품성이 높기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이로 인해 조선 인삼은 돈벌이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자신이 인삼

153) 吳慶錫, 『中土簡牘帖·枉嘉』, p.15. “程祖慶 啓 吳亦梅先生閣下 程祖慶 頓 …… 前所示蔘兩種 前途? 其太佳 若有次者勛約五六金 祈先問之佐人 明日面悉 此請刻安 藉呈”

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정조경 친구의 선택은 상리에 어긋난다. 정조경 친구의 선택으로부터 혹시 그가 고의로 싼 가격의 조선 인삼을 구입한 후 비싼 가격으로 되팔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추리해본다. 즉 정조경 친구는 "조선산 인삼"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과감하게 던져본다. 계속하여 아래 편지를 보면 정조경 자신도 오경석에게 인삼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亦樸老弟大人閣下. 어제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뜻이 서로 맞는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 저는 큰 人蔘이 조금 필요합니다. 편지를 부치실 때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箋紙도 필요합니다. 藍色이 필요한데 색깔이 제일 짙은 것으로 해서 여러 장 보내 주십시오. 만약 그 같은 箋紙를 얻을 수 있다면 泥金佛像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兄 祖慶 머리 숙입니다.¹⁵⁴⁾

위 편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조경은 조선 인삼뿐만 아니라, 조선 종이도 요구했었다. 아래 편지 역시 정조경이 친구를 대신해 인삼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을 담은 편지이다.

선생께서 보내주신 물건들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일들은 며칠 후 계속 이어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에 선생께서 보내주신 人蔘 2꾸러미 있죠? 그걸 구입하겠다는 저의 친구가 마침 일이 생겨 都城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여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봉한 채로 선생께 돌려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생께서 돌아감이 너무 급하기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亦弟如手 兄祖慶 머리 숙입니다.¹⁵⁵⁾

154) 吳慶錫, 『中士簡牘帖 · 枉嘉』, p.22. “程祖慶 서신 · 亦樸老弟大人閣下 昨獲暢談並銘苔岑之契何幸如之 …… 他時有信惠寄 並須乞大蔘丁少許 及箋紙藍色之至深者數張 得其可以畫泥金佛像也 …… 肅請行安不盡 愚兄 祖慶頓”

155) 吳慶錫, 『中士簡牘帖 · 枉嘉』, p.33. “程祖慶 서신 · 來件一一收悉 容續報命 …… 前來蔘二包 敝友適有他故 匆匆出都 未及買 原封藉繳 于續悚悚 人回匆率 不罄萬一 即請吟安

위 편지에 의하면 오경석은 인삼을 정조경에게 보냈고, 정조경 친구가 정조경 집에 와서 인삼을 구입하고자 계획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정조경 친구가 일로 인해 성 밖을 나가게 되어 이번 교역은 무산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程祖慶의 6통 편지를 일일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경 사행 당시 오경석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가져가지 않았다.

둘째, 중사가 조선 인삼을 구입하고자 할 때면 먼저 오경석과 친분이 있던 정조경을 찾았고, 정조경이 친구를 대신하여 조선 인삼을 구입해주는 역할을 했다.

셋째, 조선 인삼의 교역 장소는 정조경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오경석이 인삼을 정조경에게 보내면 정조경 친구가 정조경 집으로 가서 인삼을 보고 구매 여부를 확정지었다.

넷째, 당시 조선 인삼은 청나라 상류계층에서 선호의 대상이고, 조선 브랜드 효과를 노리는 청나라 상인들 사이에서는 돈벌이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정조경만을 대상으로 하여 내린 결론이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여 기타 중사들의 편지를 좀 더 참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아래 李炳勳 · 孔憲彝를 비롯한 몇몇 중사들의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편지는 李炳勳이 오경석에게 보낸 편지이다.

尊老爺. 愚弟 李炳勳 머리 숙입니다.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와 稜匣 · 印石 · 紙卷 등을 모두 잘 받았습니다. 人蔘은 마땅히 人蔘을 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본 후 다시 선생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亦某尊兄大人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¹⁵⁶⁾

亦弟如手 兄祖慶叩頓”

156) 吳慶錫, 『中土簡牘帖 · 鎮齋』, p.46. “李炳勳 서신 · 尊老爺 愚弟 李炳勳 頓 奉手教並稜匣 印石 紙卷 均已收到 稜須詢之前途 再行報命 …… 此復敬請 亦某尊兄大人升安”

위 편지를 보면 李炳勳 역시 자신의 친구를 대신하여 조선 인삼을 구입해 주고 있었다. 계속하여 이병훈의 다른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亦梅仁兄大人左右. 전 해에 선생께서 北京에 행차하셨을 때, 고상한 품격을 갖추신 선생을 뵈 수 있었습니다. 선생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로 새겼는데, 그것을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겨울 · 여름이 눈 깜빡할 새에 바뀌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新正 8일 선생의 동생 芷菴 四兄께서 北京에 오셨습니다. 보내온 편지와 紫蓼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약하다고 불쌍히 여겨 허약한 몸을 보양하라고 인삼을 주셨습니다. 진귀한 물품을 무릎 꿇고 받았는데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선생의 기거가 평안하시고 저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선생께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변변치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愚弟 李炳勳 머리 숙입니다. 음력 2월 朔日(초하루)¹⁵⁷⁾

위 편지 내용을 확인하고 보니 이때 오경석은 북경에 사신으로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경석은 芷菴에게 紫蓼를 건네면서 이것을 북경에 있는 친구 이병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오경석의 부탁을 받은 芷菴은 紫蓼를 이병훈에게 전했고, 이병훈은 萬里 밖 조선에서 전해오는 오경석의 따뜻한 관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오경석과 이병훈의 우정은 萬里를 떨어져 있어도 훈훈했다. 오경석은 조선 인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정의 표시로 여겼다.

아래 편지는 孔憲彝가 오경석에게 보낸 편지이다.

亦梅尊兄先生侍史. 13일에 선생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다른 일로 외출하였습니다. 하여 즉시 선생께 회신 못해 드렸습니다. 또 요즘 연일 잔병에 시달리면서 지냈습니다. 하여 선생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 繡翁은 연세가 많아 몸이 아주 허약합니다. 항

157)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p.48-50. “李炳勳 서신 · 亦梅仁兄大人左右 前歲旆莅都門 獲瞻雅範 中心藏寫非言可宣 荏苒流光 不覺寒暄倏易 新正八日 令弟芷菴四兄至京 接奉手箋並承惠賜紫蓼 憐我清癯 錫以補羸 妙品下拜登受慚感交深 就諗台候勝常 著述宏富 …… 祇請文安 餘惟朗鑒不備 愚弟 李炳勳 頓 二月朔日”

상 병을 몸에 달고 사십니다. 하여 繡翁께서는 질 좋은 人蔘을 얻고 싶어 합니다. 人蔘을 먹고 몸조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人蔘을 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병이 조금 나아지면 즉시 선생을 찾아뵙고, 그동안 못다 나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과 같이 적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愚弟 孔憲彝 머리 숙입니다. 25일.¹⁵⁸⁾

위 편지 내용을 보니 繡翁을 대신하여 공헌이가 오경석에게 인삼을 요구하고 있다. 공헌이가 오경석에게 인삼을 요구할 때 가격을 물어 보지 않았고, 단지 '줄 수만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다'고만 한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오경석과 친분이 있는 중사가 오경석에게 직접 인삼을 구해 달라고 했을 땐 가격을 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정조경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매번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인삼 가격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 같은 경우를 보면 오경석이 자신과 함께 사행 온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삼을 구해야 하기에 부득이 인삼 가격을 지불했었던 것이다.

아래 편지 역시 공헌이가 오경석에게 보내온 편지다. 이 편지에만 유독 중사가 오경석에게 인삼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여 관심을 요하는 바이다. 함께 원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亦梅尊兄大人侍史. 藕船 李尙迪께서 선생의 편지를 전해 왔습니다. 편지를 읽고 그동안 일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의 편지를 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옆드려 간청 드리옵건대 선생께서 병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세속을 떠나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잠시 관청의 업무를 사양하시길 바랍니다. 근일엔 마땅히 건강을 회복하셨겠지요.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恒山黨侵 한 函을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실 텐데 약 주머니 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陝碑 탁본 4장 역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적었으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

158)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仁兄』, pp.37-38. “孔憲彝 서신·亦梅尊兄先生侍史 十三日奉手畢 適他出未即復啓 比日又小疾未克走訪 悵甚悵甚 …… 繡翁衰年扶病欲得佳參調理 倘荷分惠何幸如之 弟日內小愈 當即走談面雪種種 先此布頌 大安惟希 亮簪不具 愚弟 孔憲彝 頓 廿五日”

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愚弟 孔憲彝 머리 숙입니다. 己未 仲春 2일.¹⁵⁹⁾

위의 편지를 보면 공헌이는 오경석에게 恒山黨蓼를 선물하였다. 이 편지를 오경석에게 보낼 때 오경석은 조선에 있었다. 편지의 내용에 근거해 보면 당시 오경석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中士가 오경석에게 몸조리를 잘 하라고 청나라 향산당삼을 보냈던 것이다.

아래 편지는 劉景澤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것이다. 함께 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亦梅老伯大人閣下. 발돋움하고 목을 길게 빼고 선생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생께서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글은 성의를 담아 수직하였더군요. 제가 이 같은 영광을 입다니요. 그리고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人蔘도 보내셨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선생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회신을 드리나, 글로는 저의 마음을 모두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살피지 못했습니다. 世愚姪 劉景澤 머리 숙입니다. 2월 초3일.¹⁶⁰⁾

위의 편지를 보면 오경석이 유경택에게 인삼을 보냈으며, 오경석이 친구에게 인삼을 보낼 때에는 가격에 대해 언급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오경석이 중사와의 교류에서 인삼을 우정의 표시로 사용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경석이 아무리 북경 행을 수차례 했다고 해도 낯선 사람하고는 절대 인삼교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경석은 항상 程祖慶 · 孔憲彝 · 李炳勳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중사를 통해 이루어진 교역에서만 인삼 교역을 진행하였다.

159)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59-60. “孔憲彝 서신 · 亦梅尊兄大人侍史 藹翁來携到手書 具悉壹是 備承記注奉之三復 曷勝感銘 伏診養疾 深居暫謝塵事 邇日定已占勿藥矣 頌念無任 …… 附寄上恒山黨蓼一函 聊佐藥籠之需 陝碑四拓 均乞簪入是幸 泐此不盡 縷 藉頌 大安不具 愚弟 孔憲彝頓 己未仲春二日”

160) 吳慶錫, 『中士簡牘帖 · 承惠』, pp.27-28. “劉景澤 서신 · 亦梅老伯大人閣下 正深鶴企 適奉鴻緘 備蒙藻飾之殷拳 並荷人侵之寵錫 寅衷感泐 子墨難宣 …… 即請台安不備 世愚姪 劉景澤頓 二月 初三日”

아래 편지는 樊觀玉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것이다. 이 편지에서도 오경석은 친구에게 인삼을 선물로 보냈다.

亦梅先生閣下. 년 말에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먼 곳에서 저에게 紫蓼를 보내주셨는데 인사를 하고 잘 받았습니다. 고마운 이 내 마음을 어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선생께서 기거가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선생께서 건강을 되찾아 일찍이 약을 끊었음도 알았습니다. 진실로 박수치면서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숲 아래에서 한가하게 지내면서 書畵를 즐기고 있으니 마음은 기쁘고, 풍아지사(楓阿士)는 그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족히 같이 기뻐할만합니다. …… 선생께서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비추지 못했습니다. 樊觀玉 머리 숙입니다. 戊寅年 新正 10일. 선생의 동생과 아드님께도 문안 인사 올립니다.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¹⁶¹⁾

이 편지는 변근옥이 戊寅年 新正 10일에 쓴 편지이다. 戊寅年이라고 하면 1878년이다. 바로 오경석이 세상 떠나기 전 1년 조금 더 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때 오경석 자체도 이미 풍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임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경석은 변근옥과 계속 연계를 취하면서 우정을 이어갔다. 오경석은 몸이 불편함에도 萬里 밖에 있는 친구를 걱정하여 紫蓼까지 보내주는 배려를 하였다.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는 기타 敷衍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계속하여 아래 濮森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濮森 머리 숙입니다. 선생께서 저에게 보내온 蓼과 丸藥은 절하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생의 편지를 읽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후일에 선생께서 귀국하신다면서요. 제가 내일 선생 계신 곳으로 찾아 가겠습니다. 선생을 만나 여러 印章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尊老爺 小弟 森 또 인사 올립니다.¹⁶²⁾

161) 吳慶錫, 『中士簡牘帖 · 承惠』, pp.58-60. “樊觀玉 서신 · 亦梅先生閣下 歲杪接奉手書 備承記注遠荷惠寄紫蓼謹已拜領 感泐奚如 敬審起居安善 履祉綏亨 並悉尊體康和 早占勿藥 尤為忭慰 優游林下 書畫怡情雅人深致 洵足樂也 …… 祇請頤安諸惟垂照不一 樊觀玉 頓 戊寅新正十日 令弟及令郎均此請安 不另啓”

162) 吳慶錫, 『中士簡牘帖 · 賤柬』, p.37. “濮森 서신 · 濮森頓首 承賜蓼並丸藥 弟拜領 叩謝 叩謝 弟讀來示 後日榮行 弟明早造貴館 親將各章當面呈上可也 即請 升安 尊老爺 小弟 森 再拜”

위 편지에서도 역시 오경석이 복삼에게 선물로 인삼과 丸藥을 보냈다. 복삼이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준 것에 대한 답례일 수도 있고, 우정의 표시일 수도 있다. 허나 인장을 새겨준 것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복삼은 기타 중사와는 달리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주고, 그 대가에 대해 처음으로 편지에서 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래 편지는 吳鴻恩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것이다. 이 편지에는 상당히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亦梅宗大兄大人閣下, 前年에 선생과 악수하고 헤어진 후부터 겨울 · 여름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움으로부터 밀려오는 슬픔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 근간 저의 몸 상태는 理想的이지 못합니다. 건강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죠. 매번 감기 · 풍한은 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 겨울 초에 감기에 걸렸는데, 벌써 몇 달째입니다. 하여 여러 곳에 수소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기가 약하고, 근육의 무늬가 뻣뻣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 마땅히 丸藥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 처방을 지어 주었는데 朝鮮 人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년 이래 조선에서 건너오는 人蔘이 아주 적습니다. 本色인 것들은 냄새가 좋지 못합니다. 關東에서 들어온 모든 人蔘은 眞僞 여부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이 宗親이라는 명목으로 홀륭하신 선생과 우의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知己이신 선생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선생을 번거롭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를 대신하여 외딴 가지에 氣가 厚한 朝鮮 人蔘 두 근을 구매해 주십시오. 그것을 단단히 봉한 후에 인편에 부쳐 보내 주십시오. 人蔘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銀兩은 제가 편지와 물품을 받는 즉시 심부름꾼에게 실수 없이 지불하겠습니다.……愚小弟 鴻恩 머리 숙입니다. 己未年 정월 26일 北京에서.¹⁶³⁾

위 편지는 오홍은이 己未年 정월 26일 북경에서 조선에 있는 오경석에게

163)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p.55-56. “吳鴻恩 서신 · 亦梅宗大兄大人閣下 自前歲握別 裘葛屢更 思慕之哀 與日俱永 …… 惟是 弟近體不甚強時 每感冒風寒 去冬初染患 幾及多月 始愈探 醫者言 氣弱湊理不密之 故須服丸藥 所開方以貴處人侵為矣 奈近年貴處所來之貨甚少 其本色者氣味不佳 所有關東之貨 眞僞難辨 叨在宗誼 為兼至好 敢煩代買貴處所產 獨支氣厚者貳斤 封固交妥使人寄來 其買價實銀若干信到 即兌付原人不誤 …… 愚小弟 鴻恩 頓 己未正月二十六日 京中”

보낸 편지다. 己未年이라면 1859년이 된다. 오홍은의 이 편지를 보면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청나라 醫學界에서조차 환자가 기가 약하고 몸이 허할 때는 우선 처방으로 조선인삼을 추천해 주었다. 그만큼 조선인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둘째, 당시 청나라는 일정한 量의 조선인삼을 수입하였다.

셋째, 당시 청나라에 들어온 조선인삼은 대부분 關東으로부터 들어왔다.

넷째, 조선인삼의 효능이 인정받음으로 인해 당시 북경 인삼시장에는 眞僞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조선인삼이 많이 유통되었다.

이상과 같이 인삼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 상황을 살펴보았다. 아래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북경 사행시에 오경석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가져가지 않았다. 중사와의 교류에서 인삼은 우정의 표시로만 사용되었다.
- ② 중사가 조선인삼을 구입하고자 할 때면 먼저 오경석과 친분이 있던 정조경 · 공헌이 · 이병훈 등 중사들을 찾았고, 정조경 · 공헌이 · 이병훈 등 중사들은 친구를 대신하여 오경석으로부터 조선 인삼을 구입해주었다. 오경석은 자신이 인삼을 가져가지 않았기에 함께 사행을 간 조선 인삼상에게서 인삼을 구했다.
- ③ 조선인삼의 교역 장소는 대체로 오경석과 친분이 있는 중사들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오경석이 인삼을 친분이 있는 중사들에게 보내면, 그 중사들이 친구를 자기 집으로 불러 친구가 직접 인삼을 보고 구매 여부를 확정하게 했다.
- ④ 당시 조선인삼은 청나라 상류계층에서 선호의 대상이었으며, 조선 브랜드 효과를 노리는 청나라 상인들 사이에서는 돈벌이 대상으로 자리매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⑤ 당시 청나라 醫學界에서조차 만약 환자가 기가 약하고 몸이 허할 때

면 우선 처방으로 조선인삼을 추천해 주었다. 그만큼 조선인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 ⑥ 당시 청나라는 일정한 量의 조선인삼을 수입하였다.
- ⑦ 당시 청나라에서 유통한 조선인삼은 대부분 關東으로부터 들어왔다.
- ⑧ 조선인삼의 효능이 인정받음으로 인해 당시 북경 인삼시장에는 眞僞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인삼이 유통되었다.

이상과 같은 까닭으로 말미암아 중사들은 조선 사행단이 직접 갖고 온 인삼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당시 인삼만이 유일한 교역 대상은 아니었다. 기타 물품들도 조선과 청나라 인사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다. 아래 소절에서는 당시 교역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5.5 交易 狀況

지금까지 오경석이 북경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書畫 · 書冊 · 金石拓本 · 骨董品 · 印章 등을 구입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오경석이 북경에서 書畫 · 書冊 · 拓本 등을 많이 수집한 후 귀국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 같은 물품의 수집은 '중사들의 증송'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과연 오경석이 북경에서 갖고 온 물품들이 모두 중사의 증송으로 얻은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사온 것인가라는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 아래의 자료들을 고찰했다.

『중사간독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에 관해 언급한 편지들만 모아 보았다. 그중에서 역시 程祖慶의 편지에서 돈에 대해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사간독첩』 총 277편의 편지 가운데 정조경의 편지가 53통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정조경을 비롯한 여러 중사들의 편지를 보면서 위에 제기한 물음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조경의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다.

尊少老爺. 程祖慶 머리 숙입니다. 선생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선생이 요구하는 것들을 두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신하겠습니다. …… 얼마 전 선생께 書帖을 써 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보수는 언제 주냐'고 묻더군요. 선생께서 편하실 때 지불해야 할 돈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선생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고, 마음은 선생께 있습니다.¹⁶⁴⁾

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오경석의 부탁을 받고 書帖을 써준 중사가 그 대가를 빨리 지불해 달라는 내용이다. 쉽게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보통 알기로는 오경석이 중사에게서 글씨를 받을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위 편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글씨를 써 줬다면 보수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조경이 다른 중사에게 부탁하여 글을 받아 왔다면, 이런 경우 오경석은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했던 것이다.

아래 계속하여 정조경의 다른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亦梅仁兄大人閣下. 어제 약속이 있어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술에 취하여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 저에게 일부 책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죠? 종이에 적혀있는 책이름 가운데서 이미 찾은 책들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들을 모두 밑에 적었습니다. 나머지 책들은 가게에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 밑에 적은 책값들보다 만약 가게에서 파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 가게에서 얻으십시오. ……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지 못했습니다. 愚小弟 祖慶 머리 숙입니다. 초9일 辰. 漢碑 목록을 적은 종이 한 장을 보내오니 선생께서 보십시오. 오늘 저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집에 없을 수 있습니다.¹⁶⁵⁾

164)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5. “程祖慶 서신・尊少老爺 程祖慶頓 手諭具悉 當即轉索再復 …… 書帖各值 前途曾來問及 遇便付來 附向”

165)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p.9-10. “程祖慶 서신・亦梅仁兄大人閣下 昨赴友人之約 晚間醉歸 讀手示具悉 …… 承屬詢各書 所有者即於單上圈出 值俱列下其餘肆中當有之照圈所有價 倘更廉 則就肆中買之為得耳 …… 即請吟安 未盡一一 愚小弟 祖慶頓 初九日 辰 漢碑目一紙附覽 今日弟不他出 明日或又不在家”

위 편지를 보니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경석이 북경에서 서책을 구입하고자 할 때 직접 책방에 가서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경석은 먼저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책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후 정조경에게 도움을 청한다. 오경석의 부탁을 받은 정조경은 책 목록을 가지고 자신 주위의 친구들에게 물어 본다. 그리고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자신의 친구들이 책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에 대해 일일이 알려 주었다. 그러면서 책방에서 파는 가격과 비교해 보고 더 저렴한 것을 사라고 조언까지 해주었다. 조선에서 오경석의 멘토가 李尙迪이라면 북경에서 오경석의 멘토는 어찌 보면 정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조경에게 친구가 많다함은 이미 앞 장절에서 언급했다. 정조경을 찾아와 책을 팔아달라는 친구, 조선 인삼을 사고 싶다는 친구 등 아주 많다. 아래 계속하여 정조경의 다른 한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蔣霞翁의 『墨林今話』에는 모두 乾隆・康熙 시대의 화가들만 실었습니다. 이 책은 道光20년(1840)전에 완성되었습니다. …… 저의 집은 靈淸宮 井兒胡同에 있습니다. 刑部尚書 許선생께서 선생께 편지를 전해 주라고 합니다. 실수 없이 전합니다. 금방 저의 친구가 저에게 『潛研堂全集』을 팔아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혹시 선생께서 갖고 싶으신지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여 선생께 감히 물어 보는 것입니다.¹⁶⁶⁾

위 편지에서 정조경의 한 친구가 『潛研堂全集』을 갖고 와서는 팔아달라고 한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살 의향이 있는가고 물어본다. 이에 대해 오경석은 살 의향이 없다고 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정조경의 친구가 다시 정조경을 찾아와 『잠연당전집』을 팔아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담은 편지가 있어 증거자료로 인용해 보겠다.

좀 전에 선생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 韓齋에서 같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166)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束』, pp.7-8. “程祖慶 서신・蔣霞翁墨林今話 所載皆乾嘉以來畫家 書成於道光二十年以前 …… 敝廬在 靈淸宮 井兒胡同 刑部尚書 許宅有函件 ? 送不悞 頃有友人托售 潛研堂全集倘欲得之 值尚不昂 敢以附問”

물어 보셨죠. …… 저는 같이 사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며칠 전 선생께 人蔘가격을 물어보던 친구, 종이를 물어보던 친구, 書籍碑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자, 또 파는 물건을 사겠다고 교역을 원하는 자 등 아주 많습니다. 이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아와 번거롭게 하는데 싫으신 건 아닌지요. …… 『潛研堂全書』는 저의 친구가 고향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제 또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자신이 파는 가격이 상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비석 목록을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면서 찾아 달라고 부탁하셨죠. 절반이 넘는 것들은 가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기다려 친구가 하나하나 검사하고 정리한 후 보내오면 즉시 선생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古碑는 오직 직접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구를 하지 않은 單片은 가격 역시 저렴합니다. 만약 표구를 한다면 글자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호한 글자가 잘려 나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목록에는 〈魯峻碑〉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重複本 全副가 있습니다. 선생께 드립니다. …… 정월 초9일 夕. 無礙筆談. 조리 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라건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마십시오. 전에 몇 번의 筆談紙도 인편이 있거든 보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¹⁶⁷⁾

정조경의 이 편지는 본 논문의 여러 장절에서 모습을 나타낸다. 그만큼 내용이 풍부하다는 뜻이다.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첫 번째로 『잠연당전서』를 사고 싶은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오경석이 거절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사겠다고 했다면 이 편지에서 또 다시 물어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역시 『중사간독첩』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내용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통해 당시 조선 사행단을 바라보는 중사들의 시각을 추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조경의 친구가 『잠연당전서』를 갖고 와서 팔아달라고 했을 때,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사겠냐고 물어본 상황은 극히 평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경석이 안 사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거절한 상황에서 두 번

167)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p.11-12. “程祖慶 서신·前書下詢 韓齋座客姓名 …… 弟同居之友甚多 故前數日有奉詢侵值者 有詢紙貨者 托售書籍碑版 並有願交易其事者 得勿憎其煩瑣耶 …… 潛研堂全書 係此友家鄉帶來 昨又來向云 與敝肆所售價廉也 讀來碑目大半可得 已札交敝友 俟其逐一檢出 齊集呈上 鄙意 古碑只宜購 未裱單片價亦廉 若經裱工字便走樣 並有截去模糊之字之弊 目錄中有魯峻碑 弟有重複本全副奉贈 …… 正月初九夕 無礙筆談 拉雜書 此幸勿示人 前數次談話 遇便擲還為荷”

째로 물어 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처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조경의 친구는 『잠연당전서』를 꼭 팔고 싶다는 의지를 정조경에게 보였을 것이다. 다른 중사에게 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조선 인사에게 팔겠다고 한다. 이 같은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중사들은 조선 사행단을 단순한 외교적 사행단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일반 상품을 고가에 팔아넘길 수 있는 고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중사들은 조선 사행단의 개개 인원이 많은 금화를 가지고 북경에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끈질기게 자신의 상품을 고가에 팔려고 애썼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조경 친구가 오경석에게 『잠연당전서』를 팔았을까? 결론은 팔았다. 『中士簡牘帖·枉嘉,p17』 정조경의 편지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潛研全書』는 이미 裝訂한 것으로 10틀 바뀌 왔습니다. 바라건대 모두 검사하고 받아 주십시오." 이는 정조경이 오경석에게 책을 보내는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짧은 내용 속에도 또 다른 내용이 숨어 있다.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裝訂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알려 준다. 이것이 뜻하기를 원래 오경석에게 보내온 것은 裝訂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된다. 裝訂하지 않은 책을 받은 오경석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裝訂한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오경석은 본디 『잠연당전서』를 사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구입하였다. 오경석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책을 구입했던 것은 바로 정조경 때문이었다. 북경에서 자신의 일을 적극 돕는 사람인데 이 같은 분이 두 번씩이나 간절하게 부탁해 오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오경석의 성품이 본디 착해서일 수도 있지만, 추후 청나라에서 자신의 원활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전략으로 행했을 수도 있다. 비록 사적인 교역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중사들과 얼굴을 익힐 수도 있고, 따라서 청나라에서의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경석은 조선과 청나라 인사들이 공식적인 만남에서 국가적인 대사를 논의할 때 사적인 친분이 전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개인의 자산에 조그마한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손실이 국가적 측면에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오경석은 파악했던 것 같다.

오경석이 금석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부분에서 언

급했었다. 위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오경석이 정조경을 멘토로 생각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古碑 구입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준다. 정조경은 고비는 직접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언하면서 표구를 하지 않은 單片 고비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알려 준다. 만약 표구를 한다면 글자에 변형이 생기고, 모호한 글자가 잘려 나가는 폐단이 있다는 등 상식들도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분명히 오경석에 대한 정조경의 애정인 것이다. 혈기왕성한 조선 청년이 북경에서 불량 상인에게 사기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을 정조경이 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조경을 오경석 또한 신뢰하고 잘 따랐다.

북경에 있을 때 얻고 싶은 물품이 있으면 오경석은 제일 처음 정조경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조경 역시 얻고 싶은 拓本 · 書冊이 있으면 목록으로 작성하여 오경석에게 주어 오경석으로 하여금 얻어다 주게 하였다. 아래 편지가 이 같은 상황을 담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다.

亦樸老弟大人閣下. 어제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뜻이 서로 맞는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기에 『松壺翁集』과 제가 그린 그림 4幀을 보냅니다. 바라건대 검사하고 받아 주십시오. 일전에 구해달라고 부탁하신 印泥를 찾고자 여러 곳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품질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南中에 가서 구입한 후 선생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며칠 정도 필요할 겁니다. …… 사야하는 碑와 쓰는 목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선생이 계시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얻어 주십시오. 가격 또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미리 선생께 보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兄 祖慶 머리 숙입니다.¹⁶⁸⁾

위 편지를 보면 인장을 얻고 싶을 때 오경석은 역시 정조경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 품질 좋은 인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정조경은 멀리에 가서라도 부탁

168) 吳慶錫, 『中士簡牘帖 · 枉嘉』, p.22. “程祖慶 서신 · 亦樸老弟大人閣下 昨獲暢談並銘苔岑之契何幸如之 茲呈上松壺翁集及拙畫四幀乞察入 日前所詢印泥曾覓數處無佳者 當更於南中購奉 惟稍需時日耳 …… 所需購碑及書開單 拜兄處遇便拾得 價且不昂並無須預留值也 肅請行安不盡 愚兄 祖慶頓”

받은 인장을 구해왔다.

앞에서 정조경의 친구가 『잠연당전서』를 성공적으로 오경석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중사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는지 정조경의 또 다른 친구가 책을 팔아달라고 정조경을 찾아왔다. 오경석이 이번에도 책을 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조경의 부탁이기에 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정조경의 친구가 이번엔 또 어떤 책을 팔려고 하는가를 알려면 다음 편지를 보면 된다.

亦某老弟大人閣下. 어제 급히 몇 줄 적은 편지를 선생께 보냈습니다. 생각건대 이미 받아 보셨지요. 정월 3일 선생과 桐翁 선생을 요청합니다. 서로 만나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로 하여금 일 년 동안 쌓인 그리움을 풀 수 있게 말입니다.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의 요청을 절대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 전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王廉州冊』을 팔아 달라고 저에게 부탁해 왔습니다. 비록 좀먹은 부분이 크지만 진실로 진품이 맞습니다. 가히 구입하여 소장할 만 합니다. 그 친구가 요구하는 가격은 10金입니다만 새해를 맞이하여 쓸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것이랍니다. 내일 오후까지 즉시 편지를 보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급히 회신합니다. 선생께서 새해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祖慶 머리 숙입니다. 小除日 未刻. 桐兄 선생 역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藕船 李尙迪선생께서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까? 여쭙봅니다.¹⁶⁹⁾

위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조경의 친구들은 오경석을 비롯한 조선 사행단 단원들을 고가상품 판매 대상으로 생각했다. 정조경의 친구가 『王廉州冊』을 급히 팔려고 하는 원인을 보면 참으로 희한하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새해를 맞이할 경비가 없어 책을 판다고 한다. 가격 또한 10金이라고 한다. 새해를 맞이할 경비가 부족하여 책을 판다는 이유는 어쩐지 납득하기 힘들다.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친구가 팔고자하는 『왕림주책』은 비록 상당부분

169)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27. “程祖慶 書信·亦某老弟大人閣下 日昨率復數行想經達覽 月正三日奉邀大駕暨桐翁過談 俾一叙經年離索之悵 何幸如之 度勿卻也 頃適有友人以王廉州冊求售 雖然大蝕頗是的筆尚可留也 實價十金 其人因度歲所需 明午即希示復 艸艸布臆 並頌年安不具 祖慶頓 小除日未刻 桐兄均此請安 藕老昆仲有書來否並問”

좀이 먹었지만 진품이라고 하면서 책을 사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 당시 오경석에게 이 같은 책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경석은 정조경을 생각해서라도 책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래 계속하여 정조경의 다른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墨林今話』에는 朝鮮 畫家 申紫霞 한 사람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줄 밖에 없습니다. 상세하게 적지 못한 듯합니다. 선생께서 편하실 때 상세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霞竹丈선생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刻을 완성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霞竹丈선생에게 아들이 있는데 仲籬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蒨生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壬子年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으로 刻을 하여 板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袁浦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만약 얻기가 쉽다면 훗날 한 두부를 얻어 선생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彭咏莪司空으로부터 한 부를 빌려 왔습니다. 먼저 선생께 드리오니 읽어 보십시오. 다 보신 후엔 돌려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본래 저 역시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친구가 빌려 갔는데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仲籬가 근간에 續集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 교류했던 친구들의 자료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선생과 秋翁은 예전에 자신의 경계를 대략 써서 보내셨죠. 만약 續集에 수록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편지를 보내 알려 주십시오. 훗날 만약 刻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불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仲籬 역시 빈곤한 寒士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붓이 가는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언급했습니다.¹⁷⁰⁾

정조경에게는 霞蒨生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하채생은 霞竹丈의 아들이다. 하채생은 『墨林今話』의 續集을 만들고자 교류했던 친구들의 자료를 모집한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정조경은 오경석에게도 전해준다. 정조경은 오경석을 비롯한 훌륭한 조선의 화가들의 이름도 이 책에 수록됨으로써 길이길이 남기를 기원했던 것이 분명하다. 정조경은 하채생이라는 중사는 寒士라고 소

170)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36. “程祖慶 序·墨林今話中載貴國畫家只有申紫霞一人 且寥寥數行似未盡其概 便中尚敢詳示 霞竹丈久歸道山 刻未及竣 其哲嗣 仲籬 名蒨生 於壬子年始集資 刻成板片在袁浦刷印 尚易他日當奉寄一二分 頃從彭咏莪司空處借得一部 先奉閱 閱後仍望擲還 僕本亦有之 久為友人借沒耳 仲籬近輯續集 書來徵及交游 閣下及秋翁曾略書梗概付去矣 如更有欲列入者可開示 他日倘稍資其剞劂之費 則更善 因仲籬亦一寒士 志在表彰 非有餘力也 信筆附及”

개하면서, 하채생이 續集을 출간할 때 드는 경비를 오경석이 조금 부담해 주면 양측 모두 좋은 일일거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오경석이 기타 조선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하채생에게 건넸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정조경의 편지 내용에 근거해 보면 오경석과 秋翁이 개인정보를 정조경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하채생이 편찬한 『墨林今話續集』을 보면 오경석을 비롯한 기타 조선 화가들은 한 명도 수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경은 조선 종이를 특별히 좋아했다. 한 두장씩 기념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몇 백장씩 요구하였다. 아래 편지는 그 같은 상황을 엿 볼 수 있다.

亦梅吾弟大人閣下. 전날에 좋은 만남을 가져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선생께 복이 넘쳐나고, 기거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 전에 제가 선생께 부탁했던 單層 東昏를 기억하시죠? 만약 아직 商人하고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면 200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얘기를 나눴다면 제가 원래 요구했던 수량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종이의 가격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祖慶 머리 숙입니다. 24일.¹⁷¹⁾

위 편지를 보면 정조경은 오경석에게 부탁하여 單層 東昏를 얻어 달라고 한다. 한 두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0장씩이나 요구한다. 편지 내용을 보면 원래 요구했던 수량은 200장을 넘었음을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오경석이 종이를 갖고 북경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조경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오경석은 함께 사행을 간 다른 조선 인사로부터 종이를 얻어 정조경에게 주었다. 그리고 정조경은 거기에 알맞은 대가를 지불하였다. 조선 종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경석이 중사에게 인장을 새겨달라고 했을 때, 인장을 새겨준 청나라 인사가 돈을 요구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중사간독첩』 모든 내용을

171) 吳慶錫, 『中土簡牘帖·枉嘉』, p.41. “程祖慶 書信·亦梅吾弟大人閣下 前獲晤譚 欣慰無量 辰維吟祉清佳為頌 …… 前所云單層東昏 倘未與賈人說定 則二百張足矣 若已定局 仍以前數付來 務乞示值為要 率此布達 並請時安不具 祖慶頓 廿四日”

확인해 보아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돈 얘기를 편지에서 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돈 얘기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행스럽게도 아래 두 편지가 존재하여 위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아래에 그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弟 森 머리 숙여 절합니다. 저에게 蘇合 妙藥 · 箋帋 등을 많이 보내셨더군요. 선생의 마음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게 새기라고 부탁한 印章 가운데 몇 方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생각건대 조금 더 기다렸다 3일 후에 제가 직접 선생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 제가 印章을 새겼습니다만 그 새긴 가격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훗날 서로 만나서 얘기 나누시다. …… 亦梅先生大人閣下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弟 濮森 머리 숙여 또 다시 절합니다.¹⁷²⁾

위 편지를 보니 濮森이 오경석의 부탁을 받고 인장을 새겨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삼은 오경석에게 인장 새긴 가격에 대해 편지에서 얘기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훗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다. 비록 편지에서는 돈 얘기가 오가지 않았지만, 복삼이 오경석에게 보낸 아래 편지를 보면 오경석이 인장 값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亦梅先生大人閣下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 차례 선생께서 妙藥 · 寶墨 등 물품을 저에게 보내주셨죠. 감사합니다. 선생께 저는 있는 힘을 다 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印章들의 보수를 응당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어 선생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帙帖은 숫자대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愚小弟 濮森 머리 숙여 또다시 절합니다.¹⁷³⁾

172)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先生』, pp.21-22. “濮森 서신 · 弟森頓首拜謝 承賜 蘇合妙藥 箋帋若許弟心印謝謝 委刻各章 尚有數方未刻 望容三日後 弟當親奉上可也 …… 刻章之價 弟難以開口 容日面談 …… 叩請亦梅先生大人閣下台安 弟 濮森 頓首 再拜”

173)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先生』, p.28. “濮森 서신 · 亦梅先生大人閣下如見 屢承賜妙藥 寶墨種種 感謝不盡 弟在閣下前毫無盡心之處 弟愧在愧在 委刻各章 實不當領價 見笑大方 承賜帙帖如數收到 拜謝拜謝 叩請台安 愚小弟 濮森 頓首 再拜”

위 편지에서 복삼의 "인장 새긴 값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 말을 통해 결국 오경석이 인장 값을 지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는 후 매년 복삼이 인장을 새겨주면 오경석이 돈을 지불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오경석이 복삼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는 꼭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고 물었던 것 같다. 아래 편지를 보면 그 같은 상황을 알 수 있다.

亦梅先生大人足下. 선생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신 모든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께서 보내신 푸짐한 선물을 받았는데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졸렬한 재주를 부린 작품을 제가 선생께 드렸지요. 그런데 선생께서 저에게 '보수는 얼마 드려야 되는가'고 물었습니다. 그 같은 보수는知己의 사귄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또 한 번 졸렬한 재주를 부려 조금이나마 저의 진심어린 성의를 표합니다. …… 小弟 濮森 머리 숙입니다. 여러 令弟와 四兄께 문안인사 전해 주십시오. 따로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다.¹⁷⁴⁾

위 편지에서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라는 오경석의 물음에 복삼은 미안한 나머지 '친구의 사귄에는 돈을 얘기하지 말자'고 대답한다. 혹시 예전에 인장 새긴 값을 받고 너무 미안해서 이 같이 처신했을지도 모른다.

아래 편지는 周棠이 오경석에게 보내온 편지이다. 많은 조선 사행단 인사들이 주당을 찾아가 그림을 요구했었다. 韓土가 그림을 요구하면 주당이 無償으로 그림을 그려줬을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과연 주당은 조선 인사에게 無償으로 그림을 그려줬을까?' 아래 주당의 편지를 확인해 보면 이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亦梅尊兄先生文席. 선생께서 보내신 편지를 심부름꾼이 가지고 왔더군요. 宣紙 24폭 가운데서 橘翁 선생의 8폭 雙款을 제외한 기타 16폭은 모두 은 8兩입니다. 매 폭은 5錢입니다. 그 같은 수량이라면 25일 정도면 가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완성하면 와서 찾아 가십시오. 만약 선생께 薑片

174) 吳慶錫. 『中土簡牘帖・亦梅先生』, pp.25-26. “濮森 서신・亦梅先生大人足下 前奉手書 敬聆種切 今邀寵錫 欣忭良殷 以拙工而詢潤筆 殊非知己交情用 再塗鴉聊申瓊報 …… 小弟 濮森 頓首 拜上諸令弟及四兄均此致候道謝 不另”

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완성한 그림을 선생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書生의 허름한 삶은 근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선생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히 회신합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少白 弟 棠 머리 숙입니다. 卽午.¹⁷⁵⁾

위 편지를 확인해 보니 주당은 매번 그림을 그려줄 때 명확한 가격을 오경석에게 알려줬었다. 그러면서 오경석이 薑片을 보내줄 수 있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림을 완성한 후 배달까지 해 드리겠다고 한다.

아래 주당의 다른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亦梅仁兄先生閣下. 세월은 흘러가고 그리웁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 먼 곳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서로 만나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새해에 행복하시고 안락하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일이 기울지 않으면서 평안하고 길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보내신 橘山선생의 서신은 잘 받았습니다. 며칠 후 橘山선생께 드릴 회신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생께서 저의 그림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 서재에 있는 상자엔 종이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선생께서 별도로 紙絹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훗날 준비하신 紙絹을 꼭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 하여 그리겠습니다. 선생께서 어떤 크기의 그림을 요구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특별히 묻는 것입니다. 선생께서 만약 屏幅 그림을 요구하신다면 큰 폭은 대략 一金이고, 작은 폭은 대략 半兩입니다. 선생께서 주신 사랑에 비해 저의 이 같은 처신은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원래 이 같은 말은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용속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그리는 그림 외에 제가 선생께 선물로 한 두 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少白 弟 周棠 머리 숙입니다.¹⁷⁶⁾

175)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先生』, p.35. “周棠 서신・亦梅尊兄先生文席 倅至讀書 並宣紙廿四幅 內除橘翁八幅雙款外 十六幅共計銀捌兩 每紙五錢 之數約二十五可以畫成來取也 如有薑片 乞付少許 弟當格外送畫 書生寒乞似亦近情 務希諒之 專此復泐 順候旅安不盡 少白 弟 棠 頓 卽午”

176)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p.39-40. “周棠 서신・亦梅仁兄先生閣下 經年渴想 又聞驛從遠臨 可以把晤中心快慰之至 卽詮新祉恬熙 諸凡安吉莫傾頌祝 橘山先生書件謹領 日後再具復件 其要畫之件 匣內並無紙幅 想或囑兄台另具紙絹 日後擲付為要 弟之盡情 紙片恐未合式因此專詢也 尊如囑畫屏幅 大約 大紙一金 小紙半兩 叨在惠愛本不敢出此言 祇為糊口 鄙拙率意直告 但於本件外 弟亦當酬謝一二 …… 少白 弟 周棠 頓”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주당의 처량한 모습이 떠오른다. 청나라 최고의 石畵工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 그림의 돈을 받는다'고 한다. 진담인지 거짓인지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 오경석이 주당에게 그림을 요청했을 때, 주당이 답하기를 자신의 상자 속에 좋은 종이조차 없으니, 오경석더러 종이를 마련해 갖고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폭 그림은 半兩이고, 큰 폭 그림은 一金이라고 한다.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다. 주당이 죽은 지 백년이 지난 지금,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그의 그림이 한 폭에 11.5萬圓(중국화폐)¹⁷⁷⁾이라는 거금으로 거래되니 이러한 아이러니도 없을 것이다.

아래 張世準의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장세준은 당시 북경 畵壇에서 그림 실력이 주당에 버금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장세준 역시 생계형 화가였다.

亦梅仁兄大人詩座. 이별한지도 벌써 10년이 됩니다. 그리움에 목이 마릅니다. 선생의 학업이 날로 정진하시고 저술은 날로 풍부해 지시기 바랍니다. …… 弟 張世準 머리 숙입니다. 간판의 글씨를 선생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雙魚罌』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선생께서 이렇게 써 주신다면 그 대가로 훗날 그림으로써 은혜를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水墨花卉 4尺 4폭 40千, 草書와 山水扇面 10千, 楷書와 花卉 절반 가격, 모친을 모시기 위해서 그림을 팝니다. 그림은 선물하지 않고 외상으로 팔지 않습니다. 먼저 10일은 돈을 받습니다. 다음 10일은 그림을 보내줍니다. 그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늘리거나 줄이려고 협상하지 못합니다. 보내온 종이는 받지 않습니다. 기타 건은 그리지 않습니다. 硃拓 山谷屏 12폭 50千. 墨拓과 여러 名聯 30장 큰 것은 4千, 작은 것은 3千. 따로 팔지 않습니다. 중폭은 5千, 작은 폭은 3千. 역시 따로 팔지 않습니다.¹⁷⁸⁾

177) 周棠, 〈石譜冊·冊頁·(十二開)〉絹本, LOT號: 0257, 尺寸: 27×34cm×12, 成交價: 11.5萬 (RMB 115,000), 拍賣公司: 博古齋(上海), 拍賣日期: 2012.04.28, 拍賣會: 2012春季拍賣會, 專場: 書畫文房專場, 검색일자: 2013.10.10.

<http://auction.arttron.net/paimai-art0012570257/>

위와 같이 2012년 4월 上海에서 열린 '2012春季拍賣會'에서 周棠의 〈石譜冊〉이 人民幣 115,000원에 거래되었다. 이 가격을 韓貨로 환산하면 2000만원이 넘는다. 이처럼 周棠의 그림은 현재 中國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178)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先生』, pp.55-60. “張世準 서신·亦梅仁兄大人詩座 十年之別 懷想甚渴 惟學業日精 著作日富為頌 …… 弟 張世準 頓 招牌一紙求雙魚罌書畫價吹噓 他日以畫相報何如 水墨花卉四尺四幅四十千 草書同山水扇面十千 楷書同花卉取半價 養母賣畫不贈不賒 先十日收錢 後十日發畫 畫不准挑選 價不議增減 送紙不收 別件不畫 硃拓山谷屏十二幅五十千 墨拓同各名聯三十付 大者四千 小者三千 不零賣 中幅五千 小橫參千 亦

위 편지에 이미 장세준이 그림 가격대를 상세하게 적었기에 다시 서술하지 않겠다. 여기에는 장세준만의 상도가 보인다. 이 자료에서 오경석이 북경에서 중사들의 서화를 구입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편지는 明基和南이 보낸 것이다.

亦梅先生大人閣下. 어제 선생의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보내주신 玉符 두 枚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진귀한 물품들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마음 끝이 없습니다. 魚符는 응당 선생께 양보하여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말하기를 이 세 매를(玉符 두 매와 魚符 한 매) 사는 데 이미 100金을 썼다고 하네요. 만약 따로 판다면 본전도 못 찾고 빚까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 선생께 따로 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저의 죄를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納 明基和南. 첨언합니다. 만약 선생께서 『古玉考』를 다 베꼈으면, 바라건대 심부름꾼에게 달려 보내 주십시오.¹⁷⁹⁾

편지를 보니 명기화남은 스님임을 알 수 있다. 명기화남의 친구는 玉符 두 매와 魚符 한 매를 팔아 달라고 명기화남을 찾아왔다. 명기화남 역시 오경석에게 그 물건들을 보여준다. 그런데 오경석은 玉符 두 매만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그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고갔으나, 결국 이번 교역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오경석이 북경에서 골동품을 구입할 때 친분 있는 중사의 소개로 교역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편지는 劉銓福이 오경석에게 보낸 것이다.

介休의 馬研珊선생은 金石을 광범하게 수집하고, 참신한 생각을 내어 箋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한 묶음을 보내오니 詩를 짓고 글을 쓸 때 사용하십시오. 馬研珊선생은 오래전에 벌써 별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箋 한 묶음을 얻기

不零賣”

179) 吳慶錫, 『中土簡牘帖·鎮齋』, pp.31-32. “明基和南 서신·亦梅先生大人閣下 昨接誦教言 領悉一是 玉符二枚收到 並承惠我多珍銘謝無既 魚符本當奉讓無如 友人指此三件已用去百金 賠累未免過多 似難分售耳 方命之愆 尚祈原有為幸 …… 納 明基和南 古玉考如抄完 祈付去手又及”

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舊拓文殊院記』 한 권을 저를 대신하여 구매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徐市이 題名 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子重 재차 인사 올립니다.¹⁸⁰⁾

위 편지에서 劉銓福은 오경석에게 馬研珊이 제작한 箋 한 묶음을 보내왔다. 여기에 대한 보수는 요구하지 않았다. 유전복은 오경석에게 부탁하기를 그를 대신하여 『舊拓文殊院記』 한 권을 구매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값을 치르겠다는 말은 없었다. 어찌 보면 물물거래를 하자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내가 구하기 어려운 箋을 줬으니 당신은 내가 요구하는 책을 구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아래 편지는 高繼珩이 오경석에게 보낸 것이다.

繡山선생께서 저에게 石印 7方을 보내왔습니다. …… 제 친구가 漢나라 때의 銅印을 한 상자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10方입니다. 생활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하여 저에게 부탁하여 대신 팔아 달라고 합니다. 선생의 친구들 가운데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요. 다른 날에 선생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珩 또 절 합니다.¹⁸¹⁾

편지를 보니 고계형 역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오경석에게 물건을 팔려고 한다. 이번엔 책을 팔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장을 팔아 달라고 찾아 온 것이다. 이번 역시 생활고로 인해 부득이 파는 것이라고 한다. 매번 중사들은 그들의 그림이나 인장을 조선 인사들에게 팔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활고 때문이라고 말하니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오경석이 결국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고증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이 오경석과 중사와의 물품교역 상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오경석은 북경에서 書畫 · 書冊 · 印章 · 骨董品 등 물품들을 얻기 위해 중사들과

180) 吳慶錫, 『中士簡牘帖 · 承惠』, p.10. “劉銓福 서신 · 介休 馬研珊先生博收金石 出新意製 箋 奉寄一束供吟詩作書之用 研丈久歸道山 此箋不易得也 舊拓文殊院記 祈代購一本為幸 徐市題名能得否 子重又白”

181)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先生』, p.3. “高繼珩 서신 · 繡山交石印七方 …… 友人藏 漢銅印一篋 計十方 以乏故託弟求售 尊處有欲購者 另日呈覽 珩再拜”

밀접한 교류를 하였다. 일부 書畵 · 書冊 · 印章은 중사의 증송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경석은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야만 했다. 오경석을 비롯한 韓士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북경에 왔음을 안 일부 중사들은 생활고를 핑계로 대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書冊 · 印章 등 물품들을 韓士에게 고가에 팔아넘기려고 시도하였다. 혹 오경석이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어 마음에 드는 것만 별도로 구입하고자 하면 중사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 판매를 거절하였다. 오경석과 중사와의 물품교역 상황을 보면 당시 일부 중사들은 오경석을 비롯한 韓士들을 고가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으로 생각했다. 어떤 경우 사고 싶지도 않은 書冊을 고가에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오경석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원만하게 대처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경석은 차츰차츰 자신의 교유망을 넓혀갔던 것이다.

5.6 交流 場所

본 절에서는 『중사간독첩』에 근거하여 오경석과 중사가 교류했던 장소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5.6.1 書店

寶文齋 - 徐志洵의 책가게

- ① 寶文齋에서 만나고자 했던 약속을 제가 어겼으니, 이 미안한 마음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¹⁸²⁾
- ② 바라건대 선생께서 시간을 정하신 후 편지를 저에게 보내 알려 주십시오. 선생이 정한 시간에 맞춰 제가 다시 寶文齋로 가겠습니다. 만난 즉시 필담으로 그동안 쌓인 회포를 모조리 풀고 싶습니다.¹⁸³⁾

182) 吳慶錫, 『中士簡牘帖 · 鎮齋』, pp.19-24. “李士棻 서신 · 寶文之約 歉何可言”

183)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35. “吳鴻恩 서신 · 祈先示知 如期再詣寶文齋 頓共罄筆談”

- ③ 어제 저는 선생을 방문하고자 寶文齋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여 그곳에 저의 명함을 두고 왔습니다. 정중히 바라건대 어느 하루로 약속을 잡아 한 번 만나 얘기를 나눕시다.¹⁸⁴⁾
- ④ 얼마 전 徐滄翁 거처에서 만나질 얘기를 나누었는데 진실로 저의 목마름을 적셔주었습니다. 지난 24일엔 선생을 방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계속 중요한 사무가 있는지라 도무지 몸 뻘 겨를이 없었습니다.¹⁸⁵⁾
- ⑤ 듣기로 떠나는 날을 초 6일로 정했다면서요. 생각해 보니 선생을 만나서 얘기 해 본 것이 몇 번 되지 않는군요. 정말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선생의 결정에 따라 제가 오늘 오각 寶文齋에 갈 테니 만나서 얘기나 나눕시다. 이를 빌어 이별의 아쉬움을 풀어 봅시다. 이 역시 무료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¹⁸⁶⁾
- ⑥ 내일 점심에 저는 寶文齋書坊에 가 있겠습니다. 선생과 桐齋선생의 왕림을 바라면서 저는 그곳에서 정중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기쁘고 바라는 이 마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 내일 점심 두 선생께서 寶文齋에 꼭 오셔서 함께 얘기를 나눕시다. 바라고 바랍니다.¹⁸⁷⁾
- ⑦ 전일 寶文齋에서 서로 만나 얘기를 나누려고 했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¹⁸⁸⁾

위에 열거한 사례를 보면 寶文齋는 오경석과 중사가 만나 담화를 나누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李士棻 1통, 吳鴻恩 4통, 葉名禮 2통의 편지에서 보문재를 만남의 장소로 지정했다. 3명의 중사만이 보문재에서 만남을 시도했기에 보문재라는 공간이 韓·中 인사의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문재 주인에 관한 자료를 본다면 보문재라는 공간이 韓·中 인사들의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히 짐작해 볼

184)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36. “吳鴻恩 서신 · 昨日弟在寶文齋奉謁 未晤留有名片 敬祈訂期一談”

185)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p.41-42. “吳鴻恩 서신 · 前於徐滄翁處 作半日談 藉紓渴慕 本擬廿四日奉訪 數日內均有要務不克分身”

186) 吳慶錫, 『中士簡牘帖 · 晤王蓮生』, pp.45-46. “吳鴻恩 서신 · 聞定期於初六日 榮旋相見 無幾 悵惘殊深 謹遵命本日午刻至寶文齋一晤 藉叙離悵亦無聊時一快事耳”

187)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20. “葉名禮 서신 · 明日午正禮至寶文齋書坊 敬候吾兄暨桐齋兄見過 析企何似 …… 明日午刻祈兩兄至寶文齋一敘”

188) 吳慶錫, 『中士簡牘帖 · 亦梅仁兄』, pp.21-22. “葉名禮 서신 · 前日寶文齋竟未能晤教殊深悵悵”

수 있다. 孫殿起의 『琉璃廠小志』라는 책에서 보문재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琉璃廠 거리 북쪽엔 寶文齋가 자리하고 있다. 주인은 성씨가 徐이고, 이름은 蒼崖이다. 나이는 60을 조금 넘겼으며, 目錄之學에 아주 능했다. 徐星伯 · 苗仙麓 · 張碩舟 · 何子貞 등 여러 선생하고 가끔 만나 기문일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았다. 소장한 책 가운데서 舊志書가 제일 많았다. 『六世祖定海縣志』 · 『江陰蔡志』 · 『陳志』 등 책들은 모두 寶文齋에서 구입한 것이다. …… 조금 서쪽으로 가면 寶森堂이 있다. 寶森堂의 주인은 李雨亭이다. 琉璃廠에 있는 수많은 가게 주인들 가운데서 李雨亭과 徐蒼崖는 前輩에 속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예전에 姚文僖公 · 王文簡公 · 韓小亭 · 李芝齡 등 대가들의 글을 받기도 했었다. 이른바 말하기를 이들은 글씨를 쓰는 큰 나무판이 宋나라 때의 것인지, 아니면 元나라 때의 것인지 한 번만 보면 알아냈고, 판목이 蜀 지방의 것인지 아니면 閩 지방의 것인지는 그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五柳 陶正祥과 聽默 錢時霽와 같은 부류였다.

- 繆荃孫, 〈琉璃廠書肆後記〉에서-189)

위에 인용한 자료를 보면 보문재 주인 徐蒼崖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目錄學에 아주 박식했다하며, 舊志書를 많이 소장했다고 한다. 또 琉璃廠에서 徐蒼崖는 경험이 제일 풍부한 가게주인으로서 前輩계열에 있다고 한다. 당시 나이 60을 조금 넘은 늙은이 徐蒼崖는 벼슬아치가 아닌, 단지 책가게 주인이지만, 그가 교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당대 유명 인사들임을 〈琉璃廠書肆後記〉에서 쉽게 알 수 있었다. 인용문에서 언급한 徐星伯 · 苗仙麓 · 張碩舟 · 何子貞 등을 놓고 말할진대 徐星伯은 당대 저명한 지리학자였고, 苗仙麓은 언어학자였으며, 張碩舟는 시인이자 서예가였고, 何子貞은 시인이자 화가이며 서예가였다. 이 같은 인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가게 주인 徐蒼崖 역시 그들과 대등한 수양과 학문적 깊이를

189) 孫殿起. (2010). 『琉璃廠小志』.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78. “路北 寶文齋主人 徐氏蒼崖 年六十餘 目錄之學甚熟 猶及見 徐星伯 苗仙麓 張碩舟 何子貞 子思諸先生時說軼事藏舊志書最多 六世祖定海縣志 江陰蔡志 陳志 均購於是肆 …… 再西 寶森堂 主人李雨亭與徐蒼崖在廠肆為前輩 曾得姚文僖公 王文簡公 韓小亭 李芝齡各家之書 所謂宋槧元槧 見而即識 蜀板閩板 到眼不欺 是陶五柳(陶正祥) 錢聽默(錢時霽)一流”

갖춰움을 말해준다. 또한 徐蒼崖는 姚文僖公 · 王文簡公 · 韓小亭 · 李芝齡 등 당대 대가들의 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徐蒼崖의 폭넓은 인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아래 보문재 주인 徐蒼崖의 넓은 인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이다.

寶文齋의 주인은 徐志洵이다. 자는 蒼巖이고, 安徽 사람이다. 咸豐年間 옛 敬古齋址에 가게를 열었다. 徐蒼崖는 당시 경험이 풍부한 관료들과 주로 거래를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동업자들 중에서 널리 알려졌다. 同治年間 어느 하루 徐蒼崖가 외출을 하였다. 그날 마침 현재 五城에 재직 중인 都堂 甲이라는 자가 마차를 타고 寶文齋 앞을 지나가다 뜻하지 않게 寶文齋의 간판을 떨어뜨렸다. 寶文齋의 직원 乙이라는 자가 나와 교섭을 하였는데, 乙은 甲에게 무조건 마차에서 내려 직접 간판을 걸라고 요구했다. 옆에서 시종드는 자들이 대신 걸면 안 된다고 했다. 하여 甲은 부득이 마차에서 내려 간판을 걸어 놓고 돌아갔다. 얼마 후 徐蒼崖가 돌아왔는데, 사건의 엄중성을 대뜸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甲이라는 자가 본 지방관리이니 어찌 범할 수 있냐는 것이다. 만약 가게 문을 봉하러 오면 어찌하면 좋은가? 생각한 끝에 徐蒼崖는 사건 발생 이튿날 甲이라는 자의 스승이 되는 몇몇 人士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寶文齋에서 간단한 연회를 베풀기로 정했다. 이튿날이 되니 甲이라는 자가 정말로 사람들을 이끌고 寶文齋를 封門하러 찾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寶文齋 문 앞을 보니 마차들로 가득했고, 가게 안을 들어가 보니 자신의 스승을 비롯하여 여러 친구들이 모여 술 마심을 보고는 封門하지 못하고 화를 누르면서 돌아갔다.

- 孫殿起, 〈琉璃廠書肆三記〉 -190)

위에 인용한 자료를 보면 당시 청나라 관료들의 횡포를 실감할 수 있다. 단지 '자신이 떨어뜨린 간판을 손수 다시 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가게 문을 봉하고자 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권

190) 孫殿起, (2010), 『琉璃廠小志』,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p.98-99. “寶文齋 徐志洵字 蒼巖 安徽人 於咸豐間開設 原為敬古齋址 交易多當時老官僚 同業中盛傳 同治年間 一日徐適外出 有現任五城都堂某甲乘車由該鋪門前經過 不意將該鋪招牌碰落 鋪伙某乙出面交涉 其招牌非令乘車人下車掛之不可 從人等不得代掛 某甲不得已下車掛之而去 事後徐歸 知事不妙 因某甲為本地方官 安敢得罪 倘來封門 如何是好 遂約請某甲之老師某翁等數人 於次日在鋪中小飲 至次日 某甲果率領差人等 專為查封而來 則見該鋪前與馬盈門 入則見其師及諸朋輩皆在 未得行事 乃忍氣而去”

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徐蒼崖가 보문재를 경영하는 동안 착실히 쌓아왔던 인맥이 힘을 썼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못한 일반 가게 주인이라면 그날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이처럼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던 徐蒼崖가 오경석을 만난 것이다. 『중사간독첩』에는 徐蒼崖의 편지가 2통 실려 있다. 아래에 그 편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실어 보도록 하겠다.

① 얼마 전 선생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회포를 풀고 나니 정말 기뻐합니다. 12일 準 巳刻, 楊梅竹斜街 萬福居에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회포를 풀어 봅시다. 내일 자리에는 黃翔翁도 함께 할 것인데, 그 자리에서 서로 마음껏 얘기해 봅시다. 바라건대 천만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 대신 貴堂官 李公도 요청해 내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¹⁹¹⁾

② 어제 푸짐한 선물을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印章을 새겨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선생께서 주신 돌이 지나치게 연해서 새긴 글자가 理想的이지 않습니다. 선생의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저의 친구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겨를이 있으시다면, 바라건대 저의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¹⁹²⁾

위에 인용한 ①과 ② 두 통의 편지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徐蒼崖가 오경석을 楊梅竹斜街 萬福居에 초청하는 내용을 통해 徐蒼崖가 오경석과의 만남을 아주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徐蒼崖가 오경석에게 인장을 새겨줬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으며, 徐蒼崖가 오경석의 건강을 걱정해서 친구에게 오경석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중사간독첩』에 2통의 편지만이 실려 있고, 또 편지 내용이 극히 간단하기에 구체적으로 오경석과 徐蒼崖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오경석이 徐蒼崖의 넓은 인맥으로 더 많은 중사들을 알게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191)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43. “徐志涸 서신・一昨晤教暢談為快 十二日 準巳刻 敬請惠臨 楊梅竹斜街 萬福居一敘 在座有黃翔翁 藉以暢言 千萬勿卻為幸 並乞代邀貴堂官 李公同來”

192)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44. “徐志涸 서신・昨承厚貺謝謝 惟囑刻圖章緣石性過 輒 難見刀法 至尊恙已向敝友詢明 可以醫治 若有暇時 祈即駕臨敝齋”

5.6.2 人蔘局

『중사간독첩』을 보면 오경석과 중사와의 만남의 장소로 인삼국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廣盛人蔘局과 同順人蔘局이 바로 그것이다. 정후수는 『硯樵山房日記』와 『蘭言彙鈔』에 기록된 인삼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놓았다.

『연초산방일기』 소재 삼국 명칭

天惠參局(316면)

中和參局(317면, 318면, 321면, 322면)

天興參局(322면)

萬盛參局(337면)

廣泰參局(341면)

『난언휘초』 소재 삼국 명칭

寶寧局(5면, 8면, 89면, 99면, 101면, 107면, 112면, 116면, 126면, 134면, 158면, 161면, 206면)

中和參局(67면, 250면)

張局(97면, 210면)

廣盛局(192면)

義泰參局(254면)¹⁹³⁾

위와 같은 자료 정리에 기초하여 정후수는 당시의 인삼국 공간의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첫째, 人蔘 거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둘째, 韓中 인사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셋째, 물품 및 소식 교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넷째, 문학 작품 생성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¹⁹⁴⁾

193) 정후수.(2010). "北京 人蔘局 空間 活用 : 19世紀 韓中 人士의 交流를 中心으로". 『우리어문연구』, (38), pp.15-16.

194) 정후수.(2010). "北京 人蔘局 空間 活用 : 19世紀 韓中 人士의 交流를 中心으로". 『우리

정후수의 논문은 오경석의 스승 李尙迪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그는 논문에서 인삼국 10여 곳에 대해 거론했는데, 이는 북경에서의 李尙迪의 활동 범위가 그만큼 넓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스승 李尙迪의 청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활발한 행적은 오경석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용 자료에서 『난언휘초』 소재 蔘局 명칭 가운데서 '廣盛局'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李尙迪이 활동하던 시대에 광성국에서 조선과 청나라 인사가 서로 만났고, 오경석 시대에 와서도 두 나라 인사가 광성국에서 자주 만났다. 이로부터 인삼국은 조선과 청나라 인사들의 만남의 장소로 적합했고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경석과 청나라 인사가 인삼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사간독첩』에서 인삼국을 거론한 편지들을 모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廣盛人蔘局

- ① 지난달 26일에 특별히 선생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廣盛'이라고 쓴 곳을 찾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엔 곳은 찾았지만, 또 마침 두 선생께서 공적인 사무로 밖에 나갔었습니다. 왜 이렇게도 저한테 선생과 한 번 만나는 인연이 없는지요. 저녁쯤 기다렸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¹⁹⁵⁾
- ② 이 편지를 廣盛人蔘局을 통해 朝鮮 從事에게 전해주시시오.¹⁹⁶⁾
- ③ 26일 午刻에 서로 만납시다. 반나절의 겨를을 내어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저는 廣盛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에게 미리 알려줘서 알게 한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¹⁹⁷⁾
- ④ 15일에 만약 제가 외출하지 않는다면 식사 후 廣盛으로 가 볼까 합니다. 서

어문연구』(38), p.32.

195)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束』, p.21. “孫福清 서신·前月二十六日專誠奉候 却覓不見廣盛字號悵悵而返 今日覓至又值兩君公出 何緣慳一面耶 晚間容再走候”

196)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束』, p.43. “楊傳第 서신·廣盛蔘局轉交朝鮮從事”

197)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17. “程祖慶 서신·廿六午刻奉晤 偷得半日閒 獲聆清教 何幸如之 ? 弟於廣盛不相熟 並頌預為說知為荷”

로 약속하고 그날 만나 새벽부터 날 밝을 때까지 얘기나 나눴습니다.¹⁹⁸⁾

⑤ 내일 오후 선생께서 만약 외출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廣盛에 찾아가서 선생을 만날까 합니다. 만나질의 얘기를 나눕시다.¹⁹⁹⁾

⑥ 27~28일에 제가 廣盛에 찾아 가겠습니다. 이별하기 전에 만나서 얘기나 나눕시다.²⁰⁰⁾

⑦ 선생께서 귀국하실 날이 머지않죠? 저는 요즘 연일 공적인 일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만약 겨울이 있다면 廣盛에서 선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만날 날을 미리 정합시다.²⁰¹⁾

⑧ 어느 날 여유가 있습니까? 다시 좋은 만남을 가져 봅시다. 아니면 제가 廣盛으로 찾아가 만나질의 담화를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선생께서 마땅히 만날 날을 정한 후 저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²⁰²⁾

〈2〉 同順人蔘局

① 선생께서 겨울이 있으시다면 잠깐 同順人蔘局에 오셔서 얘기를 나눕시다. 안 되신다면 다른 날에 만납시다. 제가 마침 일이 생겨 급히 성을 나갑니다. 하여 선생을 만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눕시다.”²⁰³⁾

위에 열거한 사례들을 얼핏 보더라도 오경석과 중사들의 인삼국에서의 만남은 광성인삼국을 주로 택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조선과 청나라 인사가 여러 인삼국 가운데서 유독 '광성인삼국'을 고집했던 이유가 알고 싶어진다. 광성인삼국 자체가 좋아서 그곳을 찾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광성인삼국 주인 역시 아주 훌륭한 인사가 아니었을 가라는 추측을 해본다.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寶文齋 주인 徐蒼崖를 떠올렸기 때문

198)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30. “程祖慶 서신·飯後擬遷廣盛奉約 作半吻譚”

199)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32. “程祖慶 서신·明日午後 倘閣下不出門 擬至廣盛 作半日清譚”

200)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42. “程祖慶 서신·二十七八當過廣盛話別”

201)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仁兄』, pp.21-22. “葉名澧 서신·歸期伊迺 鄙人連日公冗 倘得暇 當于廣盛處相見 然未可預訂日期也”

202)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p.13-14. “程祖慶 서신·何日得暇 再圖良覲 或弟至廣盛 作半日清談 惟須兄示期耳”

203)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30. “李士葵 서신·頃在同順人蔘局 吾兄得閒即到此一談 否則改日再見 弟恰有事匆匆出城不及候矣 容再圖晤”

이다. 혹시 『중사간독첩』에 있는 43명 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광성인삼국 주인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도 과감히 해 본다. 당시 오경석이 수차례 광성인삼국을 찾았다면 기필코 광성인삼국 주인하고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것이고, 가끔 편지 내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사간독첩』 277통의 편지 가운데 광성인삼국 주인이 오경석에게 보낸 편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쉽게도 『중사간독첩』을 샅샅이 훑어보아도 광성인삼국 주인이 누구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夢經堂日史』에 광성인삼국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아래 『몽경당일사』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明나라 때에는 朝鮮館을 蒙古所館 가까이 두었더니, 이번에 머물러 있는 곳은 곧 會同館이었다. …… 관문 밖 좌우의 몇 백 호 문미의 판대기에 ‘天泰人蔘局’이니, ‘廣盛人蔘局’이니 하는 명칭을 붙여 놓았으니, 모두 우리나라 물화를 서로 무역하는 곳인데, 물화 중에 人蔘을 그들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중한 것만 표시해도 경한 것은 자연 포함된다 하였다. - 몽경당일사 제2편-五花沿筆 ○ 을묘년(1855, 철종 6) 11월(17일-27일)²⁰⁴⁾

위에 인용한 자료에서 광성인삼국은 會同館 바로 옆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같은 지리적 위치의 우월성으로 인해 오경석을 만나고자 했던 중사들이 광성인삼국을 찾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러나 위의 자료에서 언급한 광성인삼국이 오경석과 중사들이 만났던 그 광성인삼국과 동일한 곳이 맞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 같은 의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인용한 자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 『몽경당일사』에 관한 자료를 언급해 보겠다.

204) 徐慶淳, (朝鮮 철종), 『夢經堂日史編②·五花沿筆·七年乙卯十一月二十七日丙戌』, “皇明時. 朝鮮館近爲蒙古所館. 卽今所住乃會同館. …… 館門外左右幾百家門楣板. 揭天泰人蔘局, 廣盛人蔘局等號. 皆是交易我國物貨之所. 而物貨中人蔘最爲彼人所貴重. 故舉重以包輕云.”. <韓國古典綜合DB>자료인용. 검색일자: 2013.10.1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KO&seojiId=kc_ko_e009&gunchalId=av002&munchelId=01&finId=011&NodeId=&setid=4487290&Pos=0&TotalCount=1&searchUrl=ok

『夢經堂日史』. 朝鮮 철종 때 徐慶淳이 청나라를 다녀온 사행 기록. 1권. 필사본. 이 책은 저자가 1855년(철종 6) 청나라 宣宗의 妃 孝靜成皇后의 죽음에 대한 陳慰進香使를 따라 正使 徐熹淳의 從事로 副使 趙秉恒, 書狀官 申左模와 함께 청나라에 다녀온 기록이다.²⁰⁵⁾

위에 인용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몽경당일사』의 저자는 徐慶淳이다. 서경순은 徐熹淳의 삼종동생으로 생원시에 합격해 高山縣監을 지냈다. 그런데 이 서희순이 바로 위의 자료에서 언급한 陳慰進香使의 정사 서희순인 것이다. 위의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서희순은 정사의 자격으로 북경에 다녀왔는데, 그때가 1855년이다. 그런데 마침 1855년 진위진향사의 역관으로 동행했던 인사가 바로 오경석과 李尙健이었던 것이다. 김현권이 작성한 오경석의 사행 년대표²⁰⁶⁾를 보면 1855년 진위진향사 사행 당시 오경석이 서희순·서경순과 함께 북경에 갔음을 알 수 있다. 그 뜻은 바로 위의 인용 자료가 기록한 모든 상황 속에 오경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서경순이 『몽경당일사』에서 기록한 '광성인삼국'이 바로 오경석과 중사가 만났던 그 '광성인삼국'과 동일한 곳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광성인삼국은 會同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사들이 오경석을 만나고 싶으면 지리적으로 조선사신회관과 가까운 광성인삼국을 찾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또 다른 원인은 광성인삼국 주인이 인삼업계에서 前輩계열에 있던 인사일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아직까진 확실치 않다.

중사 李士堉이 오경석을 同順人蔘局에서 만나보고 싶다고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추측컨대 이사분 뿐만 아니라 다른 중사들도 오경석을 동순인삼국에서 만나려고 했거나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중사간독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한 번뿐이었다. 동순인삼국에 관해 언급한 기록은 다른 곳에서도 아직 찾을 수 없다. 단지 '동순인삼국 역시 조선사신회관과 가까이 있지 않았나'라는 정도로만 추측할 뿐이다.

205) 夢經堂日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검색일자: 2013.10.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6267&cid=1592&categoryId=1592>

206) 김현권. (2011). "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 (37), p.218.

5.6.3 中士의 집

『중사간독첩』을 보면 중사들이 오경석을 만나보고 싶을 땐 주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극히 평범하기에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다. 하여 아래에 어떠한 중사들이 오경석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었는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孔憲彝의 집 - '韓齋'

- ① 人日(음력 정월 초7일)에 韓齋에서 선생의 용모를 보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²⁰⁷⁾
- ② 요 며칠 사이에 선생을 찾아뵙고 간단하게 이별의 정을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만남의 장소를 繡山 선생의 거처로 정하려 하는데 선생께서 그 곳을 방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선생의 왕림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²⁰⁸⁾
- ③ 人日에 선생께서 繡山 선생이 계시는 곳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서로 만나 차를 마시면서 얘기나 나눠봅시다.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오던 선생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이 보다 더 기쁠 수 있겠습니까. 繡山 선생은 太僕寺街에 있는 衍聖公府에 계십니다.²⁰⁹⁾
- ④ 어제 몇 줄 적은 회답편지를 최선을 다해 선생께 보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이 다른 일로 외출한 탓에 보내 드리지 못했습니다. 人日에 韓齋에서 만나 차 마시며 얘기하고자 했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²¹⁰⁾
- ⑤ 금방 繡山 선생께서 시간을 정하기로 내일 午刻에 선생을 만나보고 싶다 하네요. 선생께서 韓齋를 방문해 주십시오. 일찍 오실 수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²¹¹⁾
- ⑥ 어제 潤臣 선생을 만났습니다. 人日에 韓齋에서 선생을 모시고 얘기를 하자

207)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p.27-28. “吳懷珍 서신·人日在韓齋獲挹清光幸甚”

208)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30. “方?? 서신·日內當擬圖晤畧話離懷可否 選晤光賁繡山處否 盼切盼切”

209)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p.5-6. “程祖慶 서신·謹於人日奉屈台駕至繡山兄處茗語 得遂識荆之願 幸何如之 繡兄在太僕寺街衍聖公府”

210)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p.7-8. “程祖慶 서신·昨布數行力回悉 從者他出 故未奉回 至人日在韓齋茗語 度無游移”

211) 吳慶錫, 『中士簡牘帖·枉嘉』, p.15. “程祖慶 서신·頃繡山來訂明日午刻奉邀台駕 顧韓齋 早臨為荷”

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꼭 왕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당을 쓸어
놓고 선생의 왕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선생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²¹²⁾

〈2〉 敖冊賢의 집

- ① 湯公을 방문하여 그림을 관람할 수 있도록 18일 점심 때 쯤 安君과 함께
저의 집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南橫街에 있는 圓通觀 맞은편 옆
에 자리한 寓居에서 보냅니다.²¹³⁾
- ② 바라건대 27일 辰刻에 선생께서 李·沈 선생과 함께 저의 초라한 집을 방
문해 주십시오. 차를 다려 놓고 기다리겠으니 예전에 다하지 못했던 가벼운
이야기나 계속 나눠 봅시다.²¹⁴⁾
- ③ 선생께서 다른 일 없으시다면 저의 집을 가히 방문할 수 있는데요. 언제 오
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²¹⁵⁾

〈3〉 溫忠翰의 집

- ① 어제 선생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기회에 그저
듣기만 해 왔던 선생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지도 몇
해가 됩니다. 하지만 호상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얼굴은 한 번도 뵈지 못했
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선생과 기쁜 만남을 가졌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 요즘 만약 연일 琉璃廠에 오신다면
검사검사 저의 집을 방문하여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²¹⁶⁾
- ② 지난번 선생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셨지요. 그런데 마침 제가 세속의 일로
외출했기에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29일 午刻에 제가 집에서 향
을 태우고 차를 다리면서 조용히 선생의 왕림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저의

212)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仁兄』, p.31. “孔憲彝 서신·潤臣昨約人日在韓齋候敘 是日
幸望惠臨 當掃逕以待也 即頌”

213)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36. “敖冊賢 서신·十八日希約同安君準午初過我 以便
訪湯公觀畫也 …… 自南橫街圓通觀 斜對門寓中寄”

214)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p.37-38. “敖冊賢 서신·於廿七辰刻 偕李沈三公過敝廬
煮茶清話以續前塵”

215)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47. “敖冊賢 서신·無事可過我 不此問”

216)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仁兄』, pp.1-4. “溫忠翰 서신·昨辱承枉顧得遂識荊 數載神
交一朝良覲幸何如之 …… 連日如到琉璃廠 仍可順到敝齋一談何如”

친구 한 둘을 불러 함께 반나절의 음주와 시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²¹⁷⁾

〈4〉李士棻의 집

- ① 선생께서 저를 방문했으나, 제가 외출한 탓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 12일 辰刻에 春海 선생도 함께 불러 저의 집에서 푸짐한 상을 차려놓고 선생의 왕림을 정중히 맞이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청아한 얘기 나눠 봅시다.²¹⁸⁾

〈5〉吳鴻恩의 집

- ① 며칠 전 春海선생의 집에서 모였다면서요.²¹⁹⁾

〈6〉程祖慶의 집

- ① 초 2일 만약 선생께서 겨를이 있으시다면 저의 집에 왕림해 주십시오. 그날 만나 반나절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쌓인 그리움을 한 번 풀어본다면 대단히 기쁘겠습니다.²²⁰⁾

〈7〉董文煥의 집

- ① 29일 친구들이 董研樵 선생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菊人 선생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선생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²²¹⁾

〈8〉劉景澤의 집

217)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仁兄』, pp.7-8. “溫忠翰 서신·藉請高軒過我 適以俗冗未果 茲擬擇廿九日午刻 在敝齋焚香煮茗 靜候軒車並約一二吟朋 作半日詩酒之會”

218)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17. “李士棻 서신·承枉顧恰值他出 …… 十二日辰刻 謹依盛 約招同春海 在敝寓 恭候惠臨 作半日清談”

219)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36. “敖冊賢 서신·日前春海坐上”

220)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柬』, p.9. “程祖慶 서신·初二倘得閒 乞駕顧寓齋 作半日譚 一 傾積懷幸甚幸甚”

221)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p.25-26. “徐昌緒 서신·廿九日在董研樵座中聞 菊人云 尊體違和”

- ① 29일 準午刻에 선생께서 제가 머무는 곳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함께 만나 가볍게 술잔을 기울리면서 골동품에 대해 얘기 나눠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를 빌려 마음껏 얘기해 봅시다. 절대 사양하지 말기 바랍니다.²²²⁾

〈9〉 高繼珩의 집

- ① 선생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겠다는데요? 조금 기다렸다 제가 劉君을 만나 그와 함께 토론하여 만날 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은 후 제가 선생을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²²³⁾

〈10〉 周棠의 집

- ① 어제 선생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셨지요. 고결한 덕을 갖추신 선생을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 선생이 계시는 관지는 찾아뵙고 인사 올리기 정말 불편합니다. 선생을 찾아뵙지 못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선생께서 성을 나가실 때 겨를이 있으시다면 혹 다시 저의 집에 왕림하셔서 함께 얘기 나눌 수는 없는지요?²²⁴⁾

〈11〉 劉銓福의 집

- ① 내년에 또 北京에 오셔서 유람하거나 방문하실 수 있다면 後孫公園에 자리한 저의 허술한 보금자리에서 선생의 왕림을 정중히 기다리겠습니다.²²⁵⁾

〈12〉 明基和南의 집

222) 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26. “劉景澤 서신·廿九日準午刻 奉請大駕惠臨舍間 小酌并賞識古玩 藉以暢談 萬勿推却”

223)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先生』, p.2. “高繼珩 서신·枉顧之說 俟見劉君與之約定 再為奉請何如”

224) 吳慶錫, 『中士簡牘帖·亦梅先生』, pp.37-40. “周棠 서신·日昨承枉駕 快挹清芬 …… 貴館官地 不便謁拜 恕罪恕罪 如駕出城 有暇或再臨晤否”

225) 吳慶錫, 『中士簡牘帖·承惠』, pp.1-2. “劉銓福 서신·明年如再作燕雲遊覽或訪 我於後孫公園蟄室敝廬敬以俟之”

- ① 초 8일 准未刻에 南橫街下 窪子 龍爪槐 아래에서 술 한 잔 하고자 선생을 청합니다. 선생에 대한 지방 토박이로서의 저의 정과 예의를 다 하고 싶습니다.²²⁶⁾

『중사간독첩』을 고찰해본 결과 중사들 가운데서 孔憲彝 · 敖冊賢 · 溫忠翰 · 李士榮 · 吳鴻恩 · 程祖慶 · 董文煥 · 劉景澤 · 高繼珩 · 周棠 · 劉銓福 · 明基和南 등 12명에 달하는 인사가 오경석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음을 확인했다. 기타 중사들도 자신의 집으로 오경석을 초청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을 보면 중사의 집이라는 공간은 중사와 오경석의 교류에 있어 음주담화를 나누는 가벼운 공간 정도로만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5.6.4 祠堂

『중사간독첩』을 보면 중사가 오경석을 사당에 초청한 경우는 단 한 번뿐임을 알 수 있다. 그곳이 바로 楊繼盛²²⁷⁾을 모신 사당인 松筠菴이다.

아래 송균암을 언급한 편지를 실어 보도록 하겠다.

〈1〉 松筠菴

- ① 23일 祠堂에서 공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날 정오에 선생의 행차가 順治門大街 炸子橋 松筠菴에 이르렀을 때 제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祠堂에 먼저 이르러 선생의 행차를 공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亦梅大兄大人閣下에게 바랍니다. 石查 弟 胡義贊 머리 숙입니다. 음력 정월 19일 松筠菴에서 필 들었습니다.²²⁸⁾

226) 吳慶錫, 『中士簡牘帖 · 鎮齋』, pp.31-32. “明基和南 서신 · 初八日 准未刻 奉邀在南橫街下窪子龍爪槐 小酌稍盡地主之情 萬勿見却為荷”

227) 양계성(楊繼盛:1516~1555)의 字는 仲芳이고 號는 叔山이다. 忠愍이라 追諡되었다. 그는 명나라 신하로서 몽골족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영웅 인물이다.

228) 吳慶錫, 『中士簡牘帖 · 鎮齋』, p.33. “胡義贊 서신 · 訂準於廿三日在廟恭候 務望文旌 於是日午刻徑至順治門大街 炸子橋 松筠菴中聚晤 弟當先時至廟鵠候也 此祈亦梅大兄大人閣下 石查 弟 胡義贊 頓 正月十九日 在松筠菴借筆泐”

오경석이 송균암에서 胡義贊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오경석이 송균암에 갔다면 사당에 모셔진 楊繼盛의 위패에 제를 지냈는지도 알 수 없다. 만약 여러 명의 중사들이 집단으로 송균암에 찾아가 참배를 할 때 오경석을 불렀다면 이는 분명히 정치적 색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단지 개인의 명의로 초청한 상황이기에 정치적 색채 같은 요소는 배제한다.

5.6.5 飯店

중사들이 오경석을 반점으로 여러 번 초대했음을 알 수 있다. 『중사간독첩』에 기록된 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萬福居

- ① 12일 準巳刻, 楊梅竹斜街 萬福居에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회포를 풀어 봅시다. 내일 자리에는 黃翔翁도 함께 할 것인데 그 자리에서 서로 마음껏 얘기해 봅시다.²²⁹⁾

〈2〉 蘊和店

- ① 내일 제가 술잔을 깨끗이 준비해 놓고, 선생의 왕림을 정중히 맞이하겠습니다. 만나 서로 마음 터놓고 만나질의 얘기를 나눕시다. 저는 일찍이 蘊和店에서 선생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도 빨리 오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²³⁰⁾

〈3〉 餘慶堂

229) 吳慶錫, 『中士簡牘帖・鎮齋』, p.43. “徐志沔 서신・十二日 準巳刻 敬請惠臨 楊梅竹斜街 萬福居一敘 在座有黃翔翁 藉以暢言”

230) 吳慶錫, 『中士簡牘帖・晤王蓮生』, p.37. “吳鴻恩 서신・謹于明日 潔尊奉迎台駕 暢談半日 弟一早在蘊和店恭候 尚望早臨為幸”

- ① 驪馬市大街에 있는 餘慶堂에서 만나 얘기를 나눕시다. 옆드려 바라건대 꼭 왕림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²³¹⁾

위의 사례들을 보면 오경석과 중사들은 가끔 반점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중사간독첩』에 근거하여 북경에서 오경석과 중사가 교류했던 장소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5가지 장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 ① 書店：寶文齋
- ② 人蔘局：廣盛人蔘局, 同順人蔘局
- ③ 中士の 집：孔憲彝의 집, 敖冊賢의 집, 溫忠翰의 집, 李士棻의 집, 吳鴻恩의 집, 程祖慶의 집, 董文煥의 집, 劉景澤의 집, 高繼珩의 집, 周棠의 집, 明基和南의 집
- ④ 祠堂：松筠菴
- ⑤ 飯店：萬福居, 蘊和店, 餘慶堂

위와 같은 분류는 각 장소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북경에서 오경석과 중사와의 만남은 주로 漢人이 모여 살던 宣南지역²³²⁾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교류는 극히 평범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는 오경석의 스승인 李尙迪이 북경에서 활동할 때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후수의 논문²³³⁾을 보면

231) 吳慶錫, 『中士簡牘帖・賤束』, p.43. “楊傳第 서신・奉請 驪馬市大街餘慶堂一叙 伏乞惠臨 勿辭為幸”

232) 馬建農, (2006), 『琉璃廠』, 北京市：北京出版社, p.22. “清代以後，人們逐漸將宣武門以南的地區統稱為“宣南”。清廷實行滿漢分城而居的政策以後，內城由八旗兵及其家屬居住，漢族官員、士紳和民眾等皆遷於外城。當時，在外城分為商業聚集區和士紳聚集區。以崇文門、前門一帶為主要的商業區域，而大多數漢族的官員和文人學士便主要地集中在宣南地區居住。(清代 이후, 사람들은 차츰 宣武門 이남의 地區을 통틀어 “宣南”이라 불렀다. 淸정부가 ‘滿漢分城而居’의 정책을 실행한 이후, 內城엔 八旗兵과 그들의 가족이 거주했고, 漢族官員・士紳과 민중 등은 모두 外城으로 이사 갔다. 당시, 外城은 商業聚集區와 士紳聚集區로 나뉘어졌다. 崇文門・前門 일대가 주요 상업구역이고, 대부분의 漢族 官員과 文人學士는 주요하게 宣南地區에 집중적으로 거주해 있었다.) ”

233) 정후수, (2012), 晚淸 人士들이 李尙迪에게 전해 온 無聲의 메시지：奉明反淸 意識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46), 149-170.

李尙迪이 북경에 갔을 당시 중사들은 가끔 李尙迪에게 松筠菴 · 法源寺 · 慈仁寺 등 祠堂에 모여 연회를 베풀자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의 모임은 단순한 친목 도모 모임이 아니었다. 위의 세 곳에서는 타민족의 침략과 억압에 반기를 들고 싸웠던 漢族 영웅 인사들을 모셔놓았기 때문이다. 松筠菴에는 몽골족과 싸웠던 楊繼盛을 모셨고, 法源寺 역시 몽골족과 싸웠던 謝枋得을 모셨으며, 慈仁寺에는 滿族과 싸웠던 顧炎武를 모셔놓았다. 이 세 漢族 인사가 묻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滿族에게 통치 받고 있는 漢族들이 시시각각 민족의 수모를 잊어서는 안 됨을 깨우쳐주는 곳이었다. 하여 많은 漢族 인사들은 가끔 이 세 곳을 찾아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李尙迪이 역관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조공하러 갔을 때 일부 漢族 인사들은 조선 민족의 입장 역시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는지, 李尙迪을 초청하여 함께 위 세 곳을 찾아가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정후수의 논문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기에, 그 중 한 자료를 아래에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潘玉泉太常 招同吳偉卿比部 曹良甫給諫 吳淸如中翰 翁祖庚編修 周(學源)上舍 王蓉洲比部 邊袖石編修 蔣心薌孝廉 吳冠英上舍 讌集松筠菴共賦 次偉卿韻 (반옥천 태상이 같은 친구인 오위경 비부와 조간보 급간, 오청여 중한, 웅조경 편수, 주학원 상사, 왕용주 비부, 변수석 편수, 장심향 효렴, 오관영 상사를 초대하여 송균암에서 잔치를 벌이고 글을 지었는데, 나는 오위경의 운자에 차운하였다.)〉

……上略…… ……상략……

四海苔岑追勝事 사해의 이끼처럼 정다운 친구는 멋진 일을 뒤쫓아 그렸고
千秋俎豆拜先賢 천추토록 제사 도구를 가지고 사당에서 선현에게 절을 하였다.
(庵有楊椒山祠 余燒香禮拜: 송균암에는 양초산 사당이 있는데 내가 향을 사르고 예배하였다.)

……下略…… ……하략……

『恩誦堂續集』卷一(1847)

송균암에서 이상적이 청나라 한족문인들과 만나 시주를 즐기면서 지은 시이

다. '사해의 이끼와 메뿌리처럼 정다운 친구는 멋진 일을 뒤쫓아 그렸고, 천추토록 제사그릇을 가지고 사당에서 선현들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시구를 통해서도 당시 한족문인들의 변치 않은 민족의식을 보아낼 수 있다. 그리고 시 가운데의 이상적의 自註 '송균암에는 양초산사당이 있는데 내가 향을 사르고 예배하였다.'를 보면 이상적 역시 향을 사르고 제사 지내는 의식에 한족문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참여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²³⁴⁾

위 인용문을 통해, 1847년 당시만 하더라도 中士와 韓士들의 만남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로웠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경석 대에 와서는 현저한 변화가 생겼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정후수의 논문²³⁵⁾에 따르면 『海隣尺素』에 송균암을 언급한 편지가 8통, 법원사를 언급한 편지가 3통, 자인사를 언급한 편지가 2통이다. 그런데 『中士簡牘帖』에는 1통의 편지에서만이 '송균암'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있다. 『해린척소』 285통의 편지에서 사당을 언급한 편지가 13통이라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중사간독첩』 277통의 편지에서 사당을 언급한 편지가 1통뿐이라면 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저한 변화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한다. '왜 오경석 대에 이르러 韓士와 中士의 만남은 공간적 제약을 받았을까?'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면 반드시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상세한 언급은 아래 제6장 '6.1 시대적 배경'절에서 서술하겠다.

위와 같이 제5장에서는 『중사간독첩』을 중심으로 당시 북경에서의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고찰해본 결과 북경에서 오경석은 중사들과 주로 書畫 교류, 金石 교류, 印章 교류, 人蔘 대리 구매, 骨董品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書畫 교류를 보면 당시 중사들은 오경석의 墨梅를 가장 선호하였다. 오경석을 만났던 중사들은 대부분 오경석에게 묵매를 요청하였다. 오경석도 중사를 만나면 그들에게 그림을 부탁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程祖慶의 〈天竹齋圖〉이다. 〈천죽재도〉에 程祖慶 · 王軒 · 葉名澧 등을 비롯한 15명이 넘는 중

234) 정후수.(2012). "晚淸 人士들이 李尙迪에게 전해 온 無聲의 메시지: 奉明反淸 意識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46), pp.156-157.

235) 정후수.(2012). "晚淸 人士들이 李尙迪에게 전해 온 無聲의 메시지: 奉明反淸 意識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46), 149-170.

사들이 詩 · 記 · 題를 지었다. <천죽재도>는 당시 오경석과 중사와의 서화 교류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涵碧園圖>는 溫忠翰이 오경석에게 부탁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이 실제로 그려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中士들이 韓士의 그림 실력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金石學을 중심으로 오경석이 중사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오경석은 潘祖蔭과 가장 많은 금석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경석의 근면함과 실사구시 태도에 당시 중사들도 탄복하였다. 중사들의 다함없는 격려에 오경석은 결국 저작 『三韓金石錄』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당시 조선금석학 역사상 고증이 가장 정밀하고 내용이 가장 방대한 금석학 저작으로 인정받았다. 140여 가지 향이 있다고 하나 아쉽게도 『삼한금석록』 원본은 유실된 듯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삼한금석록』엔 8가지항만이 있을 뿐이다.

印章 교류는 오경석이 새로운 중사를 알 수 있는 橋梁 역할을 하였다. 오경석의 인장 부탁을 받은 중사들은 자신보다 기예가 뛰어난 다른 중사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오경석은 더 많은 중사를 알 수 있었다.

人蔘 교류에서 매번 품질 좋은 조선인삼을 구입하고 싶으면 중사들은 오경석을 찾았다. 사행 때마다 오경석은 판매용 인삼을 안 갖고 갔다. 중사의 부탁을 받으면 그는 다른 韓士를 찾아가 인삼을 구해 주었다. 그에게 조선인삼은 판매용 상품이 아니었고, 중사들에게 선물용으로 주던 우의의 표징이었다.

書畫 · 印章 · 書冊 · 骨董品 교역 내용을 보면 당시 오경석은 앞과 같은 물품들을 無償으로 북경에서 갖고 온 것이 아니었다. 일부 書畫 · 印章 · 骨董品은 중사가 요구하는 가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왔다. 『중사간독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앞과 같은 물품거래 모습들을 찾았기에 이에 기초하여 당시 북경에서 이루어졌던 오경석과 중사와의 물품 거래상황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었다.

오경석과 중사와의 書畫 교류, 金石 교류, 印章 교류, 人蔘 교역, 骨董品 교역은 주로 漢人이 모여 살던 宣南지역의 책가게 · 人蔘局 · 中士의 집 · 祠堂 · 飯店 등 곳에서 이루어졌다.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았던 李尙迪 사행 때와는 달리 오경석 사행 때에 와서는 일정하게 공간적 제약을 받았다.

Ⅵ. 慈禧太后的 垂簾聽政으로 인한 '漢人重用政策'과 吳慶錫의 역할

앞서 제5장에서는 오경석과 중사들과의 교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오경석은 당시 청나라의 漢人 중사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였으며 주로 漢人이 모여 살던 宣南지역의 책가게 · 人蔘局 · 中士의 집 · 飯店에서 중사들과 만났다.

韓士와 中士의 만남에 있어서,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았던 李尙迪 사행 때와는 달리 당시 오경석 사행 때에 와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았지만 북경에서 오경석은 漢人 중사들과 밀접한 書畫 교류, 金石 교류, 印章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였다.

오경석 첫 사행(1853)으로부터 1861년까지, 당시 漢人 중사들은 오경석에게 書畫 · 金石 · 骨董品에 대해서만 조언을 해줄 수 있었지, 정치 · 군사적 방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러나 1861년 慈禧太后가 垂簾聽政을 시작하면서부터 청나라 漢人 중사들에게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아래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찰해 보겠다.

6.1 시대적 배경

신용하와 김현권의 두 논문²³⁶⁾에서 이미 오경석의 사행 년도와 사행 차수에 대해 도표로 정리해 놓았다. 두 논문에서 제시한 사행 차수와 일부 년도에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경석의 첫 번째 사행 년도(1853)와 마지막 사행 년도(1874)에 있어서는 두 논문 모두 동일하다. 1853~1874년, 근 20여 년 동안은 마침 청나라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던 때였다.

서구열강들은 당시 청나라의 광활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증기기관을 비롯한 선진 기술을 앞세워 군함을 몰고 청나라의 앞바다까지 위협해 왔고,

236)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p.132-133.

김현권. (2011). "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 (37), p.218.

결국 부패한 청나라는 군사적 힘에서 밀려 서구열강들과 여러 개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청정부가 처음 체결한 불평등조약 〈江寧條約〉은 다른 이름으로 〈中英南京條約〉이라 하는데 이 조약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19세기 초, 영국은 비밀리에 대량의 아편을 청나라 연해 지방에 싣고 와 거액의 돈을 챙겨갔다. 아편 단속에 있어 허술한 면도 있었겠지만, 청정부의 부패 무능함이 아편의 위해를 감지하지 못했다. 하여 조정대신으로부터 평민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편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 갔고, 국가 재정은 하루하루 고갈되어 갔다. 더 엄중한 것은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 내부에서도 아편이 범람한 탓에 병사들은 전투력을 상실했고, 아편 없이는 총칼 들 힘도 없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道光황제는 1838년 말에 전국적으로 아편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1839년 1월 도광황제는 欽差大臣 林則徐에게 명하여 廣東으로 내려가 대대적인 禁煙을 하도록 하였다. 명을 받은 林則徐는 여러 조치를 취하여 禁煙을 시작했는데, 1839년 6월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몰수한 모든 아편을 虎門에서 불태워 버렸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아편을 전면 금지하고 싶어 했던 도광황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과의 一戰은 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청나라의 銀兩을 벌어들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 아편이었던 영국으로서는 아편이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가 되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1840년 청나라와 영국간의 무역 · 외교상의 충돌은 점점 심해졌으며, 결국 1840년 4월 영국국회는 271표 찬성, 262표 반대라는 결과에 따라 청나라와의 전쟁을 결정했다. 이 전쟁이 바로 제1차 아편전쟁인 것이다. 이 전쟁은 근 2년 반 동안 지속되었지만 청정부의 부패 무능함이 영국의 강대한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참패하고 만다. 1842년 8월 29일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청정부는 영국과 불평등조약인 〈南京條約〉을 체결하게 된다. 조약의 내용을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五口通商. 淸政府는 廣州·福州·廈門·寧波·上海 등 다섯 곳을 通商口岸으로 개방한다. 이 다섯 곳에 英國이 領事를 派駐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이 다섯 곳에서 英商과 그들의 가족이 自由로 居住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 ② 賠款. 淸政府는 英國에게 2100萬元을 배상한다.
- ③ 割地. 淸朝政府는 香港을 英國에게 割讓해 준다.²³⁷⁾

주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청정부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백성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정권유지에만 총력을 기울였다. 〈南京條約〉체결 하나만으로 만족할 리가 없는 서구열강들은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1856년부터 1860년까지 근 4년간 지속된 이번 전쟁에서 청정부는 또 한 번 敗戰國이 됐고 서구열강들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858년에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 4국과 각각 체결한 〈天津條約〉에서 몇 가지만 추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英國 商民의 損失과 軍費를 포함하여 모두 400萬兩을 英國에게 賠償한다.
- ② 法國 商民의 損失과 軍費를 포함하여 모두 200萬兩을 法國에게 賠償한다.
- ③ 鴉片에 대해 洋藥이란 名義로 合法적으로 徵稅하며 輸入을 許諾한다.²³⁷⁾

위에 제시한 몇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다 1860년 10월 24일에는 또 다른 불평등조약 〈中英北京條約〉을 체결하는데, 체결조건의 한 가지가 2년 전 〈天津條約〉에서 요구했던 전쟁배상금 4백만 銀兩을 8백만 銀兩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같이 무능한 청정부는 거듭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권과 영토를 서구열강들에게 내주었다. 그 결과 하층민에게는 나날이 불어나는 苛斂誅求가 더 큰 공포로 작용했을 것이다. 청정부가 戰敗하여 땅을 열강들에게 떼어줬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겐 큰 충격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한 톨이라도 더 내야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의 침략과 청정부의 부패 무능함이 겹쳐짐으로 인해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부패한 청정부를 반대하여 일어났던 농민군 대표로는 太平軍과 捻軍

237)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研究室編寫, (1996), 『中國近代不平等條約彙要』, 北京市:中國民主法制出版社, pp.1-2. “① 五口通商。 清朝政府開放廣州、福州、廈門、寧波、上海等五處為通商口岸, 准許英國派駐領事, 准許英商及其家屬自由居住。 ② 賠款。 清政府向英國賠款2100萬元。 ③ 割地。 清朝政府將香港割讓給英國。” (其他款項省略)。

238)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研究室編寫, (1996), 『中國近代不平等條約彙要』, 北京市:中國民主法制出版社, pp.72-82. “① 賠償英國商民損失及軍費共400萬兩。 ② 中國賠償法國商民損失及軍費200萬兩。 ③ 准許鴉片以“洋藥”的名義合法徵稅入口。”

이었다. 이 두 농민군 집단은 동일한 시기에 각각 다른 지방에서 활동했었다.

태평군은 1850년 말부터 1851년 초에 이르기까지 洪秀全이 楊秀清 · 蕭朝貴 · 馮雲山 · 韋昌輝 · 石達開 등 부하들을 이끌고 廣西省 金田村에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일으킨 군사조직이다. 태평군은 1853년 金陵을 빼앗고는 이름을 天京이라 고쳤으며, 그곳을 자신들의 서울로 정하였다. 그리고 국호를 '太平天國'이라고 정했다. 태평군은 장장 10여 년을 청정부와 맞서 싸웠다. 그러다 1872년 태평군의 마지막 역량인 翼王 石達開의 부하 李文彩 부대가 태평천국이라는 명의로 貴州에서 끝까지 싸우다 전멸됨으로써 태평천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동안 太平天國은 廣西 · 湖南 · 湖北 · 江西 · 安徽 · 江蘇 · 河南 · 山西 · 直隸 · 山東 · 福建 · 浙江 · 貴州 · 四川 · 雲南 · 陝西 · 甘肅 등 省에까지 자신들의 군사역량을 키워왔었고, 600여 개에 이르는 도시를 청정부로부터 빼앗아 오기도 했었다.

태평군은 단지 농민들로 구성된 군사집단이다. 그런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강대한 청정부와 맞서 장장 10여년을 버텨온 것을 보면 태평천국의 군중기초가 상대적으로 튼실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또한 청정부의 부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반증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청정부의 부패 무능에 시달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태평군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태평군이 결과적으로 戰敗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나, 그 중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서구열강들의 입장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들면 다음과 같다.

1853년 4월 27일 神使號가 南京에 도착하였다. 언덕 위에 있던 太平軍은 神使號에 역시 炮擊을 가하였다. 江面に 한 두 시간 停泊해 있는 후 太平軍의 최고 수령을 만날 수 있게 요청하고자 文翰은 密迪樂을 파견하여 상륙하게 하였다. 密迪樂을 동행한 자로는 해군 上尉 斯普拉特(Lieutenant Spratt)가 있었다. 太平天國의 北王 韋昌輝와 翼王 石達開가 그들을 접견하였다. 命을 받은 密迪樂은 北王 韋昌輝와 翼王 石達開에게 文翰이 天京에 온 목적을 설명해 주었다. 첫째로는 太平天國과 청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 영국정부는 완전한 중립을 保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선포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太平軍이 영국인에 대한

감정과 將來에 만약 영국이 大隊을 上海에 파견한다면 영국인에 대한 太平軍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了解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²³⁹⁾

위에 인용한 사례를 보면 서구열강들의 음흉한 일면을 보아낼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열강들은 청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을 흥미진진하게 보면서 호시탐탐 청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다. 태평천국과 청나라가 힘겨루기를 하면 쌍방 모두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서구열강들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아래에 인용한 자료를 보고나면, 그동안 겉으로 신사인척 하던 영국이 음흉한 진면모를 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李秀成이 말하기를 일찍이 某 洋人이 위협적인 말투로 天平軍에게 중국을 平分하는 조건으로 英國과 합작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 洋人이 말하기를 "너의 天王은 비록 많은 군대를 갖고 있다지만 우리 洋兵 萬人만 못하다. 우리 洋兵 二三萬에 군함까지 있으니 너희들을 쉽게 평정해 버릴 수 있다. 우리 萬餘명의 군사가 北京에 쳐들어간 후 청정부는 우리와 和하였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와 합작하지 않는다면 너희 정부는 머지않아 우리 군의 별도의 타격을 맞게 될 것이다." 아마 이 洋人은 巴夏禮일 가능성이 높다. 洪秀全은 그 洋人의 말에 꿈적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中國에서 다투는 것은 中國의 통일을 바라는 것이다. 만약 洋鬼들과 같이 대사를 도모하여 中國의 통일을 이룬 후 중국을 洋鬼들과 平分한다면 이는 분명히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만약 대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기필코 洋鬼들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인 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²⁴⁰⁾

239) 茅家琦, (1992). 『太平天國與列強』, 南寧市: 廣西人民出版社, pp.55-56. "1853年4月27日, 神使號駛抵南京。岸上太平軍也予以炮擊。在江面停泊一、兩小時以後, 文翰派密迪樂登岸, 請求會見太平軍最高首領, 同行的還有海軍上尉斯普拉特(Lieutenant Spratt)。太平天國北王韋昌輝和翼王石達開接見了他們。密迪樂奉命向北王韋昌輝、翼王石達開說明文翰來天京的目的, 一則是宣布英國政府對太平天國和清政府之間的戰爭, 決定保守完全的中立, 二則是要了解太平軍對英國人的“感情以及將來如派大隊向上海推進時”對英國人的態度如何?"

240) 郭廷以, (2009). 『近代中國史綱』, 上海市: 格致出版社, p.106. "李秀成說某洋人曾以威脅的口吻, 以平分土地為條件, 要求天平軍和英國合作, 說“爾天王雖眾, 不及洋兵萬人。有我洋兵二三萬又有船, 一舉而平, ……我萬餘之眾打入北京後說和。爾不與合, 爾朝不久, 待我另行舉動”。此洋人可能就是巴夏禮。洪秀全不為所動, 謂‘我爭中國, 欲想全圖, 若與洋鬼同事, 事成平分, 天下失笑, 不成之後, 引鬼入邦’。”

서구열강들이 진면모를 들어냈음을 너무도 쉽게 보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이 태평천국은 결국 국내·외 세력의 합심으로 인해 이중탄압을 받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당시 태평천국에 대해 많고 많은 평가들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태평천국운동의 영향력을 가장 잘 반영한 평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내가 보기에 內亂外患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중국)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破壞性和 毀滅力으로 논한다면 太平天國革命運動은 근근이 일본침략전쟁보다 조금 차했을 뿐이다. 太平天國革命運動 이전의 그 어떠한 전쟁도 그와 比肩할 수 없다.²⁴¹⁾

위의 인용 자료를 보면 태평천국운동의 영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근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비교될만한 정도면 더 이상의 서술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바로 이처럼 청정부가 내우외환의 혼란을 겪고 있을 당시 오경석이 역관의 신분으로 북경에 다녀왔던 것이다. 당시 민심이 황황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중사간독첩』에 있는데 아래 중사 劉景澤이 오경석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도록 하겠다.

29일 準午刻에 선생께서 제가 머무는 곳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 현재는 국가에서 반포한 제도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²⁴²⁾

위의 편지를 보면 당시 북경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유경택은 현재 국가에서 반포한 '모종의 제도'로 인해 상세한 내용이 적힌 서신조차 감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오경석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핵심 원인은 추측컨대 태평천국의 여파로 조성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41) 簡又文, (1935). 『太平軍廣西首義史』, 上海市: 上海書店出版社, p.5. “以余觀之, 在吾國全部歷史中, 若連內亂外患合計, 以破壞性及毀滅力論, 太平天國革命運動僅亞於現今日本侵略之一役耳, 其前蓋無匹也。”

242) 吳慶錫, 『中土簡牘帖·承惠』, p.26. “劉景澤 서신 · 廿九日準午刻 奉請大駕惠臨舍間 …… 現因國制 不便具束 祈恕之”

이 같은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에 생생한 증거자료를 실어보도록 하겠다.

내가 말하기를, “葉總督은 방금 하남에서 군사를 감독하고 있으나 그의 부친 志誥 東卿과 그의 동생 禮는 본집에 있는 것 같으니 명함을 드려 만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이, “10년 전만 해도 우리 사신들이 도성에 들어오면 도성 안 인사들이 모여서 만나 보았으나, 남쪽에 匪賊이 생긴 뒤부터는 외국 사람들과 서로 만나는 것은, 국가의 금령이 엄중해서 도처에 가로막고 지킬 뿐 아니라 조그마한 쪽지까지도 내왕하지 못하게 하며, 전부터 교분이 있는 사람이면 蔘局에서 모이기를 약속하고 잠깐 서서 말할 뿐입니다.”한다. - 몽정당일사 제 3편, 日下臚墨 ○ 을묘년(1855, 철종 6) 12월“1일-13일” 7일(을미)²⁴³⁾

위에 인용한 자료는 1855년에 陳慰進香兼謝恩使로 오경석과 함께 북경에 다녀온 徐慶淳이 기록한 『몽정당일사』의 내용이다. 위의 기록에서 '남쪽에 비적이 생긴 뒤부터'라는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남쪽의 비적'이란 다름 아닌 태평군을 말하는 것이다. 위의 기록을 보면 남방지역에서 태평군이 활동하면서부터 청나라에 금령이 반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금령으로 인해 북경에 있던 중사들은 외국인사와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으며, 조그마한 쪽지까지도 여기저기의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태평천국은 비록 국내 · 외 세력의 합심으로 인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긴 했지만, 10여 년 동안의 긴긴 항쟁을 통해 당시 청나라에 엄청난 內傷을 조성시켰다. 농민군의 엄청난 힘을 직접 겪고 난 청나라는 대내로 더욱더 봉쇄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민족부흥을 꿈꾸는 모든 조직과 역량을 애초에 잘라 버리려고 모진 애를 썼다. 그중 일환으로 中士와 韓士와의 만남도 감시의 대

243) 徐慶淳, (朝鮮 철종), 『夢經堂日史編③ · 十二月初七日乙未』, “余曰。葉總督方在河南視兵。而其父志誥東卿及其弟名禮似在家。可以納刺就見否。曰。十年前。我使之入都。都中人士多有逢迎會集。自南匪以後。外藩人交通。邦禁至嚴。非但到處阻闔。並與赫蹄而不相來往。曾有雅契者。約會於蔘局。暫時立談。”· 한국고전번역원, 권태익 (역), 1977. <韓國古典綜合DB>자료인용, 검색일자: 2013.10.1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e009&gunchalId=av003&munchelId=02&finId=009&NodeId=&setid=2391804&Pos=0&TotalCount=1&searchUrl=ok

상에 포함되었다.

민심이 황황하던 당시 청나라 중사가 오경석을 자유롭게 만나보고 싶어도 그들의 일거일동은 청정부의 감시를 받았으며 또한 만남의 장소는 공간적 제약을 받았다. 그리하여 중사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이 음주담화를 나눌 수 있는 廣盛人蔘局 · 寶文齋 책가게 · 中士의 집 · 飯店 등 장소로 오경석을 초대했던 것이다.

그동안 오경석에게 書畫 · 金石 · 骨董品에만 자문을 제공해 주던 청나라 漢人 중사들이 1861년을 시작으로 정치 · 군사 등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漢人 중사들이 차츰 정치 · 군사 요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慈禧太后와 연관이 있다. 아래 6.2절에서는 자희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 원인과 수렴청정을 시작한 후 실시한 중요한 조치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6.2 慈禧太后的 垂簾聽政으로 인한 '漢人重用政策'

중국 5천년 역사상 가장 이름 있는 女皇帝를 꼽는다면 다른 아닌 唐나라 때의 武則天이다. 중국 역사에는 무척천 말고 또 다른 여중호걸이 있다. 이 여 호걸은 평소 무척천에 대해 즐겨 말하였다고 한다. 그가 바로 청나라말기 국가 최고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대청제국의 운명을 근 반 세기 동안 좌지우지했던 자희태후이다. 자희태후는 함풍제의 황후이자, 동치제의 생모이다. 옛말에 '母以子貴'라고 자희태후는 동치제를 낳으므로 인해 하루사이에 평범하던 궁녀로부터 대청제국의 국모로 신분 상승하게 된다. 황후가 된 후 자희태후는 함풍제를 도와 여러 신하들이 올린 많은 奏章을 검열하였다. 그러는 동안 그는 국가 현 상황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국내로는 태평천국의 난 · 捻軍起義 등 농민봉기로 인해 나라는 엄청난 정도로 파괴를 당했고, 국외로는 산업대혁명의 성과물(대포·총·기선)로 전신을 무장한 영국 · 프랑스를 위수로 하는 서구열강들이 대거 진격해 왔다. 서구열강들은 선진무기를 앞세워 청나라군대를 손쉽게 격파했는데, 결국 1860년 함풍제는 여러 황후와 어린 동치를 데리고 북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承德에 몸을 숨기고

한숨 돌리던 함풍제는 자체의 多病함과 虛弱함으로 인해 1861년 음력 7월 17일에 承德에서 죽게 된다.

함풍제와 함께 奏章을 검열하던 시기에 자희태후는 국가정사에 대해 자신의 소견과 관점을 과감하게 말하였다. 그로 인해 함풍제에게 '자희태후는 권력욕으로 충만한 인물'로 각인되었다. 함풍제는 자신이 죽고 아들 동치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난 후 자희태후가 아들 동치가 황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나라 정사에 직접 간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는 황후 慈安太后에게는 密諭를 주었고, 또 肅順 · 載垣 · 端華 등 8大臣에게는 마땅히 어린 동치황제를 잘 보필하여 국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勅令을 내렸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모두 자희태후의 국가최고권력 장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함풍제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견제조치였던 것이다.

함풍제가 慈安太后에게 비밀리에 준 密諭의 실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희태후는 아주 끔찍한 행위도 서슴없이 하였다. 자희태후의 이 같은 끔찍한 행위는 口傳되어 大街小巷에 널리 퍼졌으며, 책에까지도 수록되었다. 아래, 책에 수록되어 있는 원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다.

〈慈安과 慈禧〉 - 清文宗 咸豐皇帝는 임종 직전에 일찍이 慈安에게 密諭 하나를 수여하였는데 그 密諭의 내용은 慈禧가 만약 아들을 믿고 帝로 자칭하면서 驕縱不法한다면 가히 가법에 따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文宗이 駕崩한 후에 慈禧는 매사에서 小心하였으며, 畏懼하였다. 그리고 慈安에 대한 關懷함이란 無微不至할 정도였다. 그와 같은 관심은 수년 동안 마치 一日과도 같이 하였다. 하여 慈安이 생각건대 慈禧는 再無他意일거라고 여겼다. 어느 한 번 慈安이 우연히 작은 병에 걸리게 되었다. 太醫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아도 효과가 없었다. 하여 慈安은 다시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병이 痊癒되었다. 홀연히 慈禧의 左臂에 帛을 纏렸음을 보고는 慈安이 慈禧에게 '어찌된 영문인가'라고 물었다. 慈禧가 답하기를 '前日 臂肉 一片을 베어낸 후 參汁 中에 넣어서 함께 달였습니다. 저의 작은 성의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慈安은 크게 감동하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네. 先皇帝께서 어찌하여 자네를 의심했을까!' 그리고는 慈禧가 보는 앞에서 文宗의 密諭를 焚毀해 버렸다. 이로부터 慈禧는 날이 갈수록 放肆해 졌으며 語多不遜하였다. 그리고 事事

專權하였으며, 慈安하고는 협상하지도 않았다. 慈安은 후회하기 시작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 (見『四朝野記』)²⁴⁴⁾

원문을 확인하고 나니 함풍제가 慈安太后에게 준 密諭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함풍제가 제일 걱정하던 자희태후의 실권 장악이었다. 密諭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자희태후가 동치제를 앞세워 나라정사에 간여한다면 가법에 따라 처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密諭의 존재를 확인한 자희태후에게는 하루 빨리 그 密諭를 없애버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여 몇 년 동안 하루와도 같이 慈安太后를 섬겼으며, 慈安太后가 병환에 있을 때 자신의 臂肉을 베어 내어 인삼과 함께 달여 대접시켰다. 이 같은 자희태후의 처사는 慈安太后를 감동시켰고 결국 慈安太后는 모든 방어벽을 허물고 자희태후를 굳게 믿었으며 함풍제가 준 密諭를 스스로 불에 태워버렸다.

자희태후는 또 1861년에 辛酉政變을 통해 8大臣을 제거한다. 아래 그 당시 사건 전말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장을 보도록 하겠다.

咸豐11년(1861)8월, 咸豐帝가 承德에서 병사하였다. 11월1일 承德에서 北京으로 돌아온 후 慈禧는 恭親王 奕訢·勝保 등 인사들과 연합하여 政變을 발동하였는데 역사상에서 이를 “辛酉政變”이라 칭하였다. 이 정변을 통해 肅順·載垣·端華 등 贊襄政務 8大臣을 處死 혹은 革職시켰다. 이로부터 대권을 자기 손에 넣고 48년 동안의 “垂簾聽政”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간에 잠시 撤簾歸政하였지만 실권은 여전히 慈禧가 장악하고 있었다.).²⁴⁵⁾

244) 徐潛. (2001). 『中國掌故大觀』. 北京: 北京出版社, p.514. “慈安與慈禧·清文宗咸豐皇帝, 臨危之際, 曾授慈安一密諭, 慈禧如恃子為帝, 驕縱不法, 可按家法治之。文宗駕崩後, 慈禧小心畏懼, 對慈安關懷幾於無微不至。數年如一日, 慈安以為慈禧再無他意。一次, 慈安偶患小疾, 太醫進方不見效, 於是不再服藥, 竟然痊愈。忽見慈禧左臂纏帛, 慈安問慈禧何故, 慈禧說: “前日參汁中曾割臂肉一片同煎, 聊盡心耳。”慈安大受感動, 流著淚說: “想不到你竟是這樣的好人, 先皇帝為何還疑心於你呢!”於是, 當著慈禧的面將文宗的密諭焚毀。從此, 慈禧日漸放肆, 語多不遜, 事事專權, 不與慈安協商。慈安開始後悔, 但為時已晚。…… (見『四朝野記』)”

245) 劉奇.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p.272. “咸豐11年(1861)八月, 咸豐帝在承德病死。十一月一日慈禧從承德回到北京後, 就聯合恭親王奕訢、勝保等人發動政變, 史稱“辛酉政變”, 處死、革職了肅順、載垣、端華等贊襄政務八大臣, 從此把大權抓在自己手裏, 開始了長達四十八年的“垂簾聽政”(中間曾撤簾歸政, 但實權仍掌握在她手裏)。”

위 요약문을 보면 자희태후는 함풍제의 동생 奕訢 등을 잘 설득한 후 그들과 힘을 합쳐 8大臣을 상대로 정변을 일으켰는데 결국 승리하게 된다. 정변을 일으켰던 해는 1861년인데 이때 1856년생인 동치제는 고작 6세였다. 황제의 나이가 어리다는 명분을 내 세우고 자희태후는 근 반세기에 걸친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된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자희태후는 과감하게 漢人重用政策을 실시하였다. 청나라 역사에서 한인중용정책은 자희태후가 제일 처음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건륭제 시기에 일부 관원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乾隆 時期, 御史 杭世駿은 일찍이 上書하면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用人함에 있어서 마땅히 滿族 · 漢族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하였다.²⁴⁶⁾

그리고 내우외환이 가장 심하던 함풍제 시기에도 한인중용의 목소리가 아래와 같이 높았다.

英法帝國主義의 炮聲과 太平天國起義의 燎原之火에 대해 滿人들은 더 이상 抵擋할 수가 없었다. 일부 明智한 滿族大臣들이 劄論으로 나서서 오래 동안 설치해 두었던 滿 · 漢사이의 藩籬를 破除하고 漢人을 重用하자고 요구하였다. 滿人 大學士 文慶은 일찍이 咸豐皇帝께 密請하기를 '천하의 일을 처리하려면 마땅히 漢人을 重用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滿族大臣 肅順도 역시 大聲疾呼하기를 '滿官 중엔 어느 하나 쓸 만한 자가 없고, 국가대사를 논함에 있어서는 漢人을 重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²⁴⁷⁾

위 문장을 보면 滿族관원 스스로도 이젠 나라의 운명을 더 이상 滿族관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라의 존망과 긴밀히 연계된 문제이기에 일부 개명한 滿族관원들이 한인중용정책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246) 劉奇.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p.271. “乾隆時, 御史杭世駿曾上書說: ‘朝廷用人, 宜泯滿漢之見。’”

247) 劉奇.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pp.271-272. “英法帝國主義的炮聲, 太平天國起義的燎原之火, 使滿人再也抵擋不住, 一些明智的滿族大臣率先要求破除久設的滿、漢藩籬, 重用漢人。滿人大學士文慶曾密請咸豐皇帝說: “要辦天下事, 當重用漢人。” 滿族大臣肅順也大聲疾呼: “滿官沒有一個中用, 國家大事非重用漢人不可。”

주장은 번번이 무시를 당했다. 그 원인은 아래 인용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清朝政權은 滿族 귀족을 핵심으로 하는 지주계급 봉건정권이다. 慈禧가 垂簾聽政을 하기 이전에는 시종 滿族을 위주로 하였다. 종래로 漢人이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였다. 清朝의 前身 後金의 건립 초로부터 시작하여 努爾哈赤는 漢人을 매우 仇視하였다. 하여 일찍이 '誅戮漢人、扶養滿洲'라는 立國宗旨를 奉行하였다. 皇太極이 집정한 후 그는 漢人을 籠絡하여 中原을 進取하고자 생각했다. 하여 漢人에 대한 태도는 조금 개선되었다. 그러나 漢人들에게 空職과 虛位만을 제공해 주고는 그들을 더욱 이용만 했을 뿐이지, 여전히 여러 王과 貝勒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²⁴⁸⁾

위와 같이 청조의 重滿排漢 정책은 努爾哈赤 시기부터 내려온 立國宗旨이기에 청나라 어느 황제도 이를 어길 수 없다.

도광황제는 아편전쟁에서 군공을 세운 漢人군신들을 중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을 排擠하였다. 漢人관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아편전쟁이 시작된 후 林則徐 · 鄧廷楨 등과 같은 공로 있는 諸臣들은 穆彰阿를 위수로 하는 滿族大臣들의 공격에 조정에서立足할 수가 없었다.²⁴⁹⁾

함풍황제 역시 선조의 立國宗旨를 충실히 수행했던 황제였다. 그 역시 군공을 세운 漢人에 대해 상응한 보상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감시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실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咸豐皇帝 역시 滿洲貴族과 八旗官兵들의 무능함을 보았다. 하여 각지의 漢族 地主 · 官紳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크게 鄉勇과 團練을 조직하여 太

248) 劉奇.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p.271. “清朝政權是一個以滿族貴族為核心的地主階級封建政權。在慈禧聽政以前始終以滿族為主，從不讓漢人掌握實權。從清朝的前身後金建立起，努爾哈赤就非常仇視漢人，曾奉行“誅戮漢人、扶養滿洲”的立國宗旨。皇太極執政後，他想籠絡漢人進取中原，對漢人態度有所改善，但還是借空職虛位加以利用，實權仍掌握在諸王貝勒手里。”

249) 劉奇.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p.271. “鴉片戰爭開始後，像林則徐、鄧廷楨這樣的有功之臣，都被穆彰阿為首的滿族大臣攻擊得不能在朝廷立足。”

平軍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로인해 曾國藩 등 漢人들은 자기의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漢人들이 비록 청나라를 위해 拼死作戰賣命하였으나, 청 정부는 그래도 滿人을 등용하여 漢人을 견제하였다. 그리고 欽差大臣 · 總督 · 巡撫 등 요직은 그래도 주요하게 滿人들이 담임하였다.²⁵⁰⁾

이와 같이 함풍황제에 이르기까지 역대 청나라황제들은 선조의 '立國宗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대적으로 한인중용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들의 반대함도 일정한 도리가 있다. 易地思之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결국 '중원의 패권을 滿族이 장악하느냐, 아니면 漢族이 장악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는 와중에 1861년 자희태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가 최고지위에 오른 후 국가정사를 직접 봄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나라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태평천국은 그 세력이 10여개 성에까지 달하였으며, 그들이 실제 장악한 군민 수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태평군과 맞서 싸우던 청정부의 8기군은 힘없이 무너졌고, 태평군이 이르는 곳마다의 고을관리들은 성과 백성을 버리고 홀로 도망을 갔다. 8기군의 현 상황과 같은 전투력 저하 · 상실이라면 몇 달 사이에 청나라가 태평군에게 강산을 내줘야 마땅했다. 그러나 자희태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던 1861년까지, 장장 11년 동안 청나라 군사는 태평군과 전쟁을 해왔던 것이다. 과연 태평군의 공세를 막아냈던 것이 진정 8기군이었던가? 해답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평군의 공세를 실질적으로 막아냈던 세력은 다름 아닌 曾國藩을 위수로 하는 지방 漢人 군벌세력들이었다. 咸豐朝에 벌써 이 같은 漢人 군벌세력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태평군과의 교전에서 수차례의 승리도 거두었다. 하지만 청나라의 重滿排漢의 國策으로 인해 함풍제는 군공이 있는 漢人들에게 상응한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854년 湘軍이 武漢을 攻佔한 후 咸豐帝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생각지도 못했던 한 書生 曾國藩이 어찌 이렇게 놀라운 공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250) 劉奇.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p.272. “咸豐皇帝也眼見滿洲貴族和八旗官兵不大中用, 就下令各地的漢族地主官紳大辦鄉勇團練, 討伐太平軍。曾國藩等漢人辦起了自己的軍隊。這些漢人雖爲清朝拼死作戰賣命, 清廷還是用滿人牽制漢人, 欽差大臣、總督、巡撫等要職主要還是由滿人擔任。”

하여 咸豐帝는 일시 흥분하여 署理湖北巡撫로 曾國藩을 임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한 마디 하기를 '曾國藩은 侍郎銜으로 在藉丁憂하고 있으니 현재까지 아직은 平頭百姓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한 平頭百姓의 一呼가 모두를 蹶起시킬 수 있으니 아마도 이는 國家之福이 아닌 듯싶습니다.' 咸豐帝는 이 말을 들은 후 놀라움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후 曾國藩을 巡撫로 임명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²⁵¹⁾

위와 같이 당시 漢人들의 처지는 아주 보잘 것 없었다. 과거 급제하여 벼슬을 한다고 해도 실권 없는 虛職에서 근무했고, 지방에 만약 자신의 군대가 있으면 조정의 감시를 당하는 처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희태후의 최고 권력 장악으로 인해 漢人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봄이 찾아왔던 것이다.

자희태후는 辛酉政變을 통해 어렵게 얻은 권력을 지켜내고, 내우외환에 처한 청나라를 구해내고자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한인중용정책이었던 것이다. 자희태후가 추진했던 이번 한인중용정책은 청나라 역사상 규모가 가장 컸으며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졌고 또한 효과가 제일 좋았던 한 차례였다. 아래 한인중용정책의 목적과 실시 후의 효과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보도록 하겠다.

漢人重用政策은 咸豐朝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책의 啓用은 太平天國 진압이라는 수요에서 비롯되었다. …… 咸豐帝가 살아있을 당시 漢人重用政策은 한계가 있었다. 曾國藩 등 人士에 대하여 이용하는 동시에 또한 提防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중대한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 漢人重用政策을 發揚光大시킨 것은 慈禧太后였다. 慈禧가 정변을 통해 정치 무대에 오른 후 어떻게 하면 신속히 太平天國 농민대기의를 진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정변 후의 정국을 穩定시키고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와 지위를 維護할 수 있는 관건적인 문제로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慈禧 · 奕訢 등은 한 방면으로는 열강들과 타협한 후 借師助剿하였으며 다른 방면으로는 과단성 있게 漢人重用政策을 계

251) 金滿樓. (2009). 『女人當國』. 北京市:中國友誼出版社, p.69. “1854年湘軍攻佔武漢後，咸豐帝大喜，說：“不意曾國藩一書生，乃能建此奇功！”他一時興奮，要任命曾國藩署理湖北巡撫。結果旁邊有個人插了一句：“曾國藩以侍郎銜在藉丁憂，現在還是個平頭百姓。一個平頭百姓能夠一呼蹶起，這恐怕不是國家之福啊。”咸豐聽後一個激靈，讓曾國藩做巡撫的事就不再提起。”

속 실시함으로써 曾國藩을 重用하여 그가 이끄는 湘軍에 의거하여 太平天國運動을 진압하고자 했다. 慈禧太后는 정변을 일으킨 날로부터 18일이 지나서 曾國藩을 欽差大臣으로 委任하였는데 그로 하여금 江蘇 · 安徽 · 江西 · 浙江 등 四省의 軍務를 督辦하게 하였다. 그리고 督 · 撫 · 提 · 鎮 이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에게 지휘권을 주었다. 同治元年(1862年) 慈禧太后는 또 曾國藩의 건의에 근거하여 統籌規劃 · 全盤考慮의 기초 상에 새로운 인사조정을 실시하였다. 하여 선후로 浙江 · 江蘇 · 江西 · 湖北 · 安徽 · 河南 등 省의 巡撫를 모두 湘軍의 將領으로 바꾸거나 혹은 曾國藩이 추천한 左宗棠 · 李鴻章 · 沈葆楨 · 嚴樹森 · 李續宜 · 鄭元善 등 人士들로 하여금 充任하게 하였다. 曾國藩 用兵 時 事權統一의 便을 위한 것이었으며 太平軍에 대한 湘軍의 공세를 가강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曾國藩에게 兩江總督 겸 協辦大學士라는 관직을 수여하였는데 이는 曾國藩의 위망과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 同治三年(1864年), 14년동안 전투를 견지해 오면서 그 세력을 18개 성에까지 발전시켰던 太平天國運動을 진압하였다. 그 후, 慈禧太后는 또 曾國藩 · 李鴻章 등 漢人地方軍隊를 重用하여 歷時 16년이 되는 捻軍起義를 진압하였다.²⁵²⁾

위 문장에서 서술했듯이 한인중용정책의 주요목적은 태평천국 난의 진압이었다. 그리고 자희태후의 한인중용정책 실시의 그 신속성도 확인된다. 자희태후는 辛酉政變을 일으킨 날로부터 18일이 지나서 曾國藩을 欽差大臣으로 위임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江蘇 · 安徽 · 江西 · 浙江 등 四省의 軍務를 督辦하게 하였다. 바로 曾國藩을 위수로 하는 지방 漢人 군벌세력들이 군부요직

252) 楚雙志. (2003). 『慈禧太后』. 民族出版社, pp.30-31. “重用漢人政策始於咸豐朝。這一政策的啟用，源於鎮壓太平天國的需要。……咸豐之世，重用漢人的政策是有限的。對曾國藩等人既用又防，不讓其發揮重大的作用。使這一政策發揚光大的是慈禧。慈禧通過政變上臺之後，如何迅速鎮壓太平天國農民大起義，便成了穩定政變後的政局及維護其權利地位的關鍵問題。爲此，慈禧、奕訢一方面與列強取得妥協，借師助剿，一方面果斷地採取了繼續重用漢人曾國藩，依靠湘軍鎮壓太平天國運動的政策。她在政變後的第18天，就委任曾國藩為欽差大臣，督辦江蘇、安徽、江西和浙江四省軍務，督、撫、提、鎮以下悉歸節製。同治元年(1862年)，慈禧又根據曾國藩的建議，在統籌規劃、全盤考慮的基礎上，作了新的人事調整，相繼把浙江、江蘇、江西、湖北、安徽、河南等省的巡撫，都換成湘軍的將領或由曾國藩所推薦的左宗棠、李鴻章、沈葆楨、嚴樹森、李續宜、鄭元善等人充任，便於曾國藩在用兵時的事權統一，加強湘軍對太平軍的攻勢。不久又授予曾國藩以兩江總督兼任協辦大學士，來提高曾國藩的威望和地位。……在同治三年(1864年)鎮壓了堅持戰鬪14年、勢力發展到18個省的太平天國運動。之後，慈禧又重用曾國藩、李鴻章等漢人地方軍隊鎮壓了歷時16年的捻軍起義。”

에 나아가게 됨으로써 청나라는 한인중용정책을 실시한 후 3년만인 1864년에 끝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 하여 내우외환 중의 내우는 잠시 해결된 듯했다. 자희태후의 한인중용정책은 예상했던 대로 효과를 보았다. 그리고 漢人 군벌들이 점차 정부요직에 나아감으로 인해 漢族 군벌이 국가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同治四年(公元1865年) 5월, 전국 10명 총독 가운데서 湖廣總督 官文 한 사람만을 제외한 기타 9명은 모두 漢人이었으며, 또한 15명 巡撫는 모두 漢人이었다.”²⁵³⁾

자희태후의 한인중용정책의 효과를 실감나게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 아래 함께 보도록 하겠다.

高陽이 著述한 『瀛臺落日』에서 이르기를 '예전 軍機 上에서는 줄곧 三滿兩 漢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一滿三漢이다. 참으로 失於偏頗이다.' 그러다 慈禧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紅頂子를 달고 국정을 장악한 이들을 보면 모두 다 旗人이었다. …… 12개 部 가운데서 漢人은 오직 四尚書만을 얻었다. 宗人府·內閣·軍諮處·籌辦海軍處 등 아문들은 더군다나 旗人들의 천하였다.'²⁵⁴⁾

위 문장은 자희태후 집정기간과 자희태후 死後의 상황에 대해 비교했는데, 漢人들의 등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차이를 보면 당시 자희태후가 추진한 한인중용정책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청나라의 重滿排漢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던 漢人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던 것이다. 한인중용정책의 덕을 보아 군공이 있는 漢人들은 상응한 벼슬을 받게 되었고, 이미 관직에 있던 漢人들은 승급하거나, 혹은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潘祖蔭 · 左宗棠 등과 같은 漢人 중사를 들 수 있다. 아래 인용할 글에는 潘祖蔭이 승급하는 과정을 싣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다.

253) 陳捷先. (2011). 『慈禧寫真』. 商務印書館, p.74. “在同治四年(公元1865年)五月時, 全國十名總督, 除湖廣總督官文一人外, 其餘九位都是漢人。又十五名巡撫中, 清一色的全是漢人。”

254) 劉奇.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p.161. “高陽著『瀛臺落日』說: “從前軍機上, 一直是三滿兩漢, 如今一滿三漢, 失於偏頗”。而慈禧死後不久, “戴紅頂子而掌國政的, 盡是旗人。…… 十二個部中, 漢人只得四尚書; 宗人府、內閣、軍諮處、籌辦海軍處這些衙門, 更是旗人的天下”。”

慈禧는 또 同治元년에 관원들에 대하여 嚴厲한 考核을 진행하였는데, 소위 말하는 “京察”와 “大計”이다.(京官에 대한 考核을 “京察”라 하고 지방관원에 대한 考核을 “大計”라고 한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데, 同治元년이 마침 考核을 진행하는 해였던 것이다.) 清朝의 제도에 따르면 “京察”와 “大計”는 모두 “四格”과 “六法”을 考核의 표준으로 삼았다. “四格”이란 바로 “才”(才幹을 말하는데 長·平·短 三等으로 나눈다.) · “守”(操守를 말하는데 廉·平·貪 三類로 나눈다.) · “政”(政務를 말하는데 勤·平·怠 三類로 나눈다.) · “年”(年령을 말하는데 青·中·老 三類로 나눈다.), “六法”이란 바로 “不謹”·“罷軟無為”·“浮躁”·“才力不足”·“年老”·“有疾” 등 6개의 指標를 말한다. 考核을 거친 후 관원들은 혹 升하거나 혹 降하게 되며, 혹 革하거나 或 黜해진다. 그 목적은 獎優懲劣하는 데 있었는데, 각급 관원들더러 勤勉政務하고, 恪盡職守하라는 뜻이었다. …… 考核이 끝난 후 年老體衰한 內閣學士 巴彥春·平庸無能한 光祿寺卿 雷以誠, 그리고 品行敗壞한 光祿寺少卿 范錄典 등을 동시에 勒令退休시켰다. 반면 才華가 출중하고, 耿介正直한 潘祖蔭과 敢作敢為하고, 膽魄過人한 左宗棠 등인들은 擢升되었다.²⁵⁵⁾

위의 자료는 자희태후 통치 초반에 단행된 漢人重用의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同治元년이면 바로 1861년 자희태후가 수렴청정을 실시하고, 한인중용정책을 추진하던 첫 해였던 것이다. 마침 이해가 “京察”와 “大計”를 보는 해인만큼 자희태후에게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무런 명분 없이 漢人관원을 중용한다면 반대의 목소리는 기필코 컸을 것이다. 그러나 “京察”와 “大計”라는 考核을 거쳐 獎優懲劣한다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年老體衰한 內閣學士 巴彥春 · 平庸無能한 光祿寺卿 雷以誠, 그리고 品行敗壞한 光祿寺少卿 范錄典 등은 동시에 勒令退休되었다. 반면 才華가 출중하고 耿介正直한

255) 金滿樓. (2009). 『女人當國』. 北京市: 中國友誼出版社, p.67. “慈禧又在同治元年對官員們進行一次嚴厲的考核, 即所謂“京察”和“大計”(京官的考核叫“京察”, 地方官員的考核叫“大計”, 每3年進行一次, 同治元年正好趕上)。按清朝的制度, “京察”和“大計”都以“四格”、“六法”作為考核標準: “四格”者, 即“才”(才幹, 分長、平、短三等)、“守”(操守, 分廉、平、貪三類)、“政”(政務, 分勤、平、怠三類)、“年”(年齡, 分青、中、老三類); “六法”者, 即“不謹”、“罷軟無為”、“浮躁”、“才力不足”、“年老”、“有疾”六個指標。經考核後, 官員或升或降, 或革或黜, 其目的在於獎優懲劣, 讓各級官員勤勉政務、恪盡職守。…… 考核結束後, 年老體衰的內閣學士巴彥春、平庸無能的光祿寺卿雷以誠及品行敗壞的光祿寺少卿范錄典, 被同時勒令退休; 而才華出眾、耿介正直的潘祖蔭; 敢作敢為、膽魄過人的左宗棠等人則得到了擢升。”

潘祖蔭과 敢作敢為하고 膽魄過人한 左宗棠 등인들은 擢升되었다. 潘祖蔭 · 左宗棠과 같은 재능 있는 漢人관원들이 한인중용정책의 덕을 톡톡히 보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위의 원문에서 '左宗棠等人'이 승급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潘祖蔭 · 左宗棠 외 또 일부 有才之士들이 승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희태후는 한인중용정책을 실시하여 대량의 漢人들을 등용하여 정부 요직에 배치했으며, 반면 대량의 무능한 滿人관원들을 철직시켰다. 자희태후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한인중용정책을 실시한 것만은 사실이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유해야 만이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유능한 신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희태후의 민족성도 어찌 보면 한인중용정책 실시의 주된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자희태후의 민족성에 대해 현재 中國學界에는 "자희태후는 滿人이 아니라 漢人이다"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자희태후가 滿人인지 아니면 漢人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다.

근 20여 년 동안 자희태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중국학자 劉奇는 '자희태후는 漢人이다'라고 주장한다. 아래 그의 논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慈禧는 1835年 山西省 長治縣 西坡村의 한 빈궁한 漢族농민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름을 “王小憐”이라 지었다. 집이 가난했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인해 4살 되는 해에 山西省 長治縣 上秦村에 있는 宋四元의 딸로 팔려갔다. 이름을 “宋齡娥”로 改名하였다. 후에 宋家は 天災人禍로 인하여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여 11·12세(일설로는 13·14세)인 宋齡娥는 또 한 번 潞安府(오늘의 長治市)知府의 婢로 팔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齡娥의 생김생김이 俊秀하고 聰明伶俐한 면도 있으며, 또한 그에게 貴相이 있음을 발견한 知府는 그를 양녀로 거두어주었다. 그리고는 이름을 “玉蘭”(蘭兒)이라 개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府衙西花園에 書房을 專設하고는 精心으로 배양하였다. 咸豐3년, 玉蘭은 葉赫那拉 惠征의 딸 신분으로 應選되어 입궁하였으며, 그 이후로 一步步의 과정을 거쳐 皇太后가 되었다.²⁵⁶⁾

256) 劉奇. (2004). "解開慈禧童年之謎：慈禧本是長治漢家女". 『山西檔案』, (2), p.47. “慈禧1835年生於山西長治縣西坡村一個貧窮的漢族農民家庭，取名“王小憐”；由於家窮、娘死，4歲時被賣給本縣上秦村宋四元為女，改名“宋齡娥”；後來，宋家由於天災人禍，驟然一

위와 같이 자희태후는 山西省 長治縣 西坡村의 한 빈궁한 漢族농민가정에서 태어난 漢人일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하여 자희태후가 한인중용정책을 대폭적으로 펼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자희태후의 한인중용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漢人 有才之士들이 군사·정치 등에 유관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관직의 요직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6.3 吳慶錫의 역할 -'역관을 넘어선 외교관'-

『중사간독첩』을 확인해 보면, 당시 대원군의 신임을 얻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12차례 다녀왔던 오경석은 북경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漢人 중사들과 사귀었다. 처음 북경에 갔을 때 오경석은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사물들을 접함으로 인해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중사들 사이에선 금석학이 유행되고 있음도 알았다. 하여 사행 초기 오경석도 금석학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오경석이 금석학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정열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목도한 중사들은 오경석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조언도 서슴없이 해 주었다. 그로 인해 오경석은 조선 금석학 사상 가장 방대하고, 가장 고증이 정밀한 금석학 대작 『삼한금석록』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오경석은 중사와의 공통점을 찾아내고는, 그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점차 친해졌으며, 자신의 인맥을 넓혀갔던 것이다.

동시에 오경석은 청나라에 자신을 알리고자 그동안 만났던 중사들에게 자신이 그린 墨梅를 증정하였다. 그 결과 중사들에게 묵매는 오경석을 상징하는 마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오경석을 처음 만난 중사들이 오경석에게 묵매를 요청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가 되었다.

중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손금 보듯 잘 알고 있던 오경석은 매번 함

貧如洗，十一二歲（一說十三四歲）的宋齡娥又被賣給潞安府（今長治市）知府為婢；不久，由於齡娥長得俊秀，聰明伶俐，并生有貴相，知府就收其為養女，改名“玉蘭”（蘭兒），并在府衙西花園專設書房精心培養；咸豐三年，玉蘭以葉赫那拉惠征之女的身份應選入宮，一步步成了皇太后。”

께 사행 갔던 인삼상인들을 중사에게 소개해 주었다. 당시 청나라에 인삼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사들은 북경에 있는 인삼국에서 파는 인삼의 품질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중사들은 매번 오경석을 통해 조선 상인과 직 거래를 하였다. 그만큼 오경석을 신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경석은 金石 · 墨梅 · 人蓼을 매개로 하여 중사들과 친해졌으며, 차츰 자신의 인맥을 넓혀갔던 것이다.

『중사간독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거치고 나니 당시 오경석과 청나라 인사와의 교류가 극히 사적인 교류였음을 알아내었다. 『중사간독첩』에 실린 277통의 서신 중에 당시 국내, 혹은 국외의 정세에 대해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學問 · 藝術 · 物品판매 등 내용을 위주로 하여 서신이 오고 갔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추리해 본다면 당시 오경석이 중사와 폭넓게 사귀었던 것이 그 어떠한 의도된 계획 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필자는 오경석과 중사와의 사귀에는 그 어떠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오경석 본인은 의도된 계획 하에 중사를 가까이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의도된 사귀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사귀인지를 떠나 결과는 동일하다. 즉 기타 사신인원과 비했을 때 오경석이 그동안 사귀 중사의 수가 거의 50~60명 가까이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인맥구축은 당시 조선역사상 최다라고 생각된다.

오경석이 사귀어왔던 청나라 漢人 중사 대부분은 학문과 예술 방면에 치우친 인사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경석에게 학문과 예술 방면의 조언은 해 줄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런데 1861년 자희태후의 수렴청정과 함께 추진되었던 한인중용정책으로 인해 많은 재능 있는 漢人들이 정부 요직에 나아가게 되었으며, 차츰 漢人 군벌들이 전국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虛職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던 漢人들이 차츰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권 장악은 더 많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상황파악에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오경석이 그동안 친분을 쌓아왔던 漢人 중사 중에도 한인중용정책의 덕을 보아 요직에 나가게 된 몇 명 인사가 있다. 바로 이 몇 명 요직에 근무하는 漢人 중사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인해 당시

조선은 한 차례 엄청난 망국의 액운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바로 1866년 프랑스 동양함대의 조선 침략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신용하가 이미 논문에서 상세하게 서술했기에 필자는 단지 그 서술 부분을 자료로 인용하도록 하겠다. 아래 1866년 프랑스의 조선 침략을 슬기롭게 물리쳤던 오경석의 활약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吳慶錫은 대원군이 집정하던 시기인 1866년(丙寅) 음력 5월에 朝鮮 정부가 파견한 奏請使 일행의 역관으로 다시 北京에 가게 되었다. 당시 대원군 정부는 정초부터 천주교도에 대한 대탄압을 감행하여 朝鮮人 교도는 물론이고 국내에 잠입해 있던 프랑스인 선교사 12명 중에서 9명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체포를 면하여 탈출한 프랑스인 신부가 天津에 있는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에게 구원과 보복을 요청하자 주북경 프랑스 공사 벨로네와 프랑스 동양함대 사령관 로즈는 이 기회에 朝鮮을 침공하여 대원군정부를 응징하고 가능하면 朝鮮왕국을 그의 지배하에 둘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프랑스 동양함대의 朝鮮침공이 준비되자 朝鮮정부는 淸國에 사태를 해명하고 정세도 탐지하기 위하여 소위 「奏請使」라는 이름으로 정사에 柳厚祚, 부사에 徐堂輔, 서장관에 洪淳學을 임명하여 파견케 되었다. 이 사절단의 賚咨官 겸 통역으로 吳慶錫이 파견된 것이다. 朝鮮 사절단이 北京에 도착하여 의례 행사가 끝난 후 3일째에 淸國의 각국총리아문은 朝鮮 사절단 숙소에 관리를 보내어 금년 봄에 프랑스인 선교사를 처형한 일이 있는가의 사실 여부를 물어 왔다. 이에 역관들까지 참가한 삼사회의가 열리어 이 문제를 논의 결정하게 되었는데 首譯(당상역관)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관 吳慶錫은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이에 반대하였다. …… 그러나 삼사회의에서는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서 吳慶錫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吳慶錫은 나라의 일을 크게 우려하여 그 스스로 능동적인 독자적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吳慶錫은 그동안 자기가 닦아놓은 中國人士들과의 親交와 외교적 기반에 의거하여 혼자서 또는 정사나 부사를 안내하여 연 3일간 서양의 침략에 경험을 가진 中國의 정책가들인 張丙炎·王軒·吳懋林·劉培芬·萬青藜·董모·黃모·王모·張모·方모·汪모·孫모 등을 방문하여 프랑스 동양함대의 동태와 그들의 朝鮮침략의 경우의 대책 수립을 위한 조언을 들어 수집하거나 필담을 모아서 정리하여 정사의 伴尙 沈裕慶을 본국에 보내어 錄送하였다. …… 吳慶錫의 이러한 참고자료 수집과 보고가 당시 朝鮮이 프랑스 침략군을 물리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²⁵⁷⁾

위의 서술 내용을 통해 오경석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분이 단지 수행역관이었던 오경석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조국을 열강의 虎口로부터 구해냈던 것이다. 만약 당시 오경석이라는 훌륭한 역관이자 외교관이 없었더라면 조선의 국운은 아마 1866년을 전후해서 끝났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걸출한 외교관 오경석의 존재로 인해 조선은 망국의 액운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경석이 역관을 넘어 걸출한 외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첫째, 오경석은 스승 李尙迪의 훈도 하에 역관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 둘째, 오경석은 당시 조선에서 實勢였던 대원군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오경석은 20여 년 동안 12차례나 북경에 다녀올 수 있었다. 셋째, 오경석은 書畫 · 金石 · 印章 · 人蔘 · 骨董品 등을 둘러싸고 청나라 漢人 중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1861년 자희태후가 청나라 최고 권력가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오경석과 친하게 지내던 漢人 중사들은 오경석에게 예술과 학문 면에서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넷째, 1861년 자희태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후 실행한 한인중용정책으로 인해 많은 재능 있는 漢人 중사들이 중용되었다. 그들은 군부를 비롯한 요직에 근무하게 된다. 다섯째, 1866년 프랑스동양함대가 대포를 앞세워 조선의 문호를 열려고 위협해 올 때 오경석은 북경에 있는 漢人 친구들을 찾아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한인중용정책의 덕을 본 萬靑藜 · 張丙炎 · 王軒 등 옛 친구들은 승급하거나 발탁되어 마침 군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군부 요직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조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경석에게 알려 줄 수 있었다. 오경석은 친구들로부터 얻은 소중한 군사정보를 곧 대원군한테 알려줬고 결국 조선은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바로 이상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존재했기에 당시 암흑과 動盪의 시대에 오경석이 타고난 운명은 역관을 넘어 조선에서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걸출한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다.

아래 역관이면서 훌륭한 외교관의 모습을 오경석에게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257)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pp.169-175.

조선의 한 인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바로 오경석의 스승인 李尙迪이다. 李尙迪과 오경석은 조선 연행사상 역관의 신분으로 사행을 제일 많이 다녀왔던 두 거장이다. 李尙迪은 30여 년간 12차례 사행을 다녀왔고, 오경석은 20여 년간 12차례 사행을 다녀왔다. 두 인사 모두 역관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존엄을 지키고, 조선의 망국 액운을 떨쳐버림에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오경석이 1866년 프랑스 동양함대의 침공을 슬기롭게 물리침으로써 조선의 액운을 막아냈다고 한다면, 李尙迪은 1863년 종계변무를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해 냄으로써 조선의 존엄을 지켜냈다. 師徒가 각각 이루어낸 이 같은 중대한 사건들이 어찌 꽤거가 아니겠는가. 이미 위에서 오경석의 꽤거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는 李尙迪이 이루어낸 꽤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간에 발표된 정후수의 논문에서 이미 李尙迪이 이루어낸 꽤거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놓았기에 아래에 필요한 부분만을 節取하기로 한다.

1863년의 변무사행은 정원경이 쓴 『이십일사약편』에 朝鮮국왕의 종계를 잘못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원경은 『이십일사약편』에서 이성계를 이인임의 아들로 적고 이성계가 우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기록하였다. 이에 철종은 진주사를 청나라에 파견하게 되는데, 이상적은 진주사의 역관으로 참여하여 사신단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던 공헌이, 정공수, 기준조를 움직여 변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 예부에서 올라온 진표를 보고 황제가 조서를 반포하게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조사구와 기준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인물은 기준조이다. 기준조는 공헌이, 이상적과 친분관계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기준조는 가경 19년(1814) 진사에 오르고 호부상서, 군기대신을 거쳐 1849년 體仁閣大學士에 이르렀으며, 1862년부터는 동치제의 스승으로서 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즉 황제의 최측근에서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 결국 황제의 조서를 반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준조는 공헌이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상적과도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었던 인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이 연성공저를 찾아간 것은 공헌이를 통해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기준조와의 연결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공헌이와 연결된 기준조는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조서를 반포하게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863년 변무해결

이 불과 10일 만에 성공을 보게 된 것은 이상적이 30년간 10여 차례나 중국을 오가며 친분을 쌓아둔 공헌이, 정공수, 기준조 등의 지인들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것이다.²⁵⁸⁾

위의 인용문을 보면 1863년 중계변무사건의 전말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겠다. 1863년이라면 李尙迪의 11번째 사행 때이다. 1804년생인 李尙迪은 당시 60세 고령이었다. 임금께서 李尙迪만이 이 같은 외교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며 절박하게 요구했고, 또한 李尙迪 스스로도 조국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안고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북경에 다녀왔던 것이다. 李尙迪이 1865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아 1863년 당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 보면 삶의 마무리를 조국의 존엄을 지키는 쾌거로 장식했다.

위 인용문을 통해 李尙迪이 1863년 변무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는 孔憲彝와 祁寯藻임을 알았다. 그들 중에서 공헌이는 교량 역할을 했고, 기준조는 사건 해결의 핵심 역할을 했다. 위 인용문에서 언급했듯이 1862년 기준조는 동치제의 스승으로 사관에 근무했다고 한다. 그러면 황제와 제일 가까이에 있던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당시 1862년이면 동치제는 고작 7세,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녀야할 어린 아이였다. 이르고 보니 동치제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음이 분명한데 다름 아닌 동치제의 생모 자희태후이다. 1862년은 자희태후가 辛酉政變을 통해 정권을 손에 장악하고, 어린 동치제를 내세워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불과 2년째 되던 해이다. 기준조가 동치제의 스승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도 자희태후의 결정이었다.²⁵⁹⁾ 기준조의 승급 역시 자희태후의 한인중용정책 중의 좋은 사례라고 생

258) 정후수. (2013). "1863년 辨誣 解決 過程으로 본 李尙迪의 눈물". 『東洋古典研究』, (52), pp.213-225.

259) 金滿樓. (2009). 『女人當國』. 北京市：中國友誼出版社, p.84. "對於載淳，慈禧從一開始也報以極高的期望。在她的心目中，載淳就是年幼的康熙，而她則是孝莊太后，假如能培養出像康熙一樣英明睿智的帝王，那將是她無上的榮光。於是，在載淳即位不久後，慈禧便精心挑選，最終為載淳延請了四位名師，這就是祁寯藻、李鴻藻、翁心存和倭仁四位鴻儒。(載淳(同治帝)에 대하여 처음부터慈禧도 매우 높은 기대치가 있었다. 그녀 마음속에載淳은 바로 어린康熙였고, 그녀는 곧孝莊太后였다. 만약康熙와 같은英明睿智한帝王을培養해 낸다면, 이는無上の榮光일거라고 여겼다. 그리하여載淳이 등극한 후 얼마 안 지나慈禧는 몹시 조심스러운 선택을 통해 결국載淳을 위하여祁寯藻·李鴻藻·翁心存·倭仁 네명의

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므로 1863년 李尙迪이 종계변무를 아주 순리롭게 불과 10일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운명이었던 것이다. 만약 자희태후가 수렴청정을 하지 않고, 한인중용정책도 펼치지 않았더라면 동치제의 스승은 기준조가 아닌 다른 인사가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863년 李尙迪의 변무는 큰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며, 李尙迪은 부득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했을 것이다. 그러나 李尙迪은 자신의 인맥을 충분히 이용하여 임무를 완벽하게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오경석의 스승 李尙迪은 조국의 존엄을 지켜냈으며, 이는 제자 오경석에게 진정한 외교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같은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에 그 뒤를 이어 걸출한 외교관 오경석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스승의 넓은 인맥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고 오경석 역시 힘써 자신의 인맥을 넓혀갔을지도 모른다.

李尙迪과 오경석이 외교적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희태후의 집권으로 인한 청나라에서의 정치적 변모라는 동일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李尙迪과 오경석이 각각 이루어낸 쾌거는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며 그들이 이 같은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숙명이자 운명이었다.

마지막으로 1874년 謝恩兼冬至行 首譯으로 북경에 다녀온 후, 오경석이 직접 작성하여 임금께 올렸던 聞見事件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甲戌(1874) 謝恩兼冬至行 首譯 吳慶錫의 聞見事件

① 慈安端裕康慶皇太后的 壽陵은 普祥峪에 정하였다. 慈禧端佑康頤皇太后的 壽陵은 菩陀峪에 정하였다. 兩峪은 모두 遵化州 定陵之東에 있다. 지세가 雄秀하고 山川이 環抱하였다. 황제는 兩宮 皇太后를 모시고 親臨하여 審視하고는 '萬年吉地'로 정하였다. 지금 바야흐로 興工하고자 한다.

② 甘肅省의 回逆 馬文祿 · 馬桂源 등은 咸豐1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肅州城에 竊踞해 있었다. 兇悍한 殘賊은 漢民 三四萬名을 살해하였고 부녀를 擄辱한 것이 不計其數였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逆燄이 더욱 치

鴻儒를 名師로 延請하였다.)"

열해졌으며, 기세가 극히 披猖해 졌다. 그리하여 陝甘總督 一等恪靖伯 左宗棠과 將軍 金順 등이 率師하여 攻圍하였다. 上年 7월 초1일부터 9월 23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勝捷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兇逆을 殲滅하였으며, 堅城을 克復하고 一律 平定하였다. 奏凱之日에 特沛殊恩을 베풀어 用昭懋賞하였는데 左宗棠을 陝甘總督協辦大學士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左宗棠 원래의 經賞給騎都尉世職을 一等輕車都尉世職으로 바꾸었다. 또한 金順 · 徐占彪 등 出力한 各員에 대해서 分別 優獎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勞勩를 彰하였다.

- ③ 圓明園 修理之役은 지금 바야흐로 動工하고자 한다. 上諭에서 말하기를 "兩宮 皇太后는 朕躬을 保佑하고 大政을 親裁한 지가 10여년이 된다. 그들의 劬勞함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 以承慈歡할 만한 休憩遊息之所가 없다. 그로 하여 朕의 마음은 寔로 悚仄이다. 하여 諭令하는데 內務府大臣들은 일체 方法을 動員하여 圓明園을 修葺하라. 聖慈께서 燕憩하면서 顧養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그러나 物力이 艱難하여 圓明園 修理之役은 마땅히 檢소하게 해야지 過하게 華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同治13년(1874) 3월 30일²⁶⁰⁾

위의 원문을 통해 오경석의 시각과 관심사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오경석은 뛰어난 感知力을 소유한 걸출한 외교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문건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첫 번째 문건사건은 慈安太后와 慈禧太后가 자신들이 死後 묻힐 능

260) 大韓民國文教部國史編纂委員會, (1978). 『同文彙考·四』, 翰進印刷公社, p.3828.

“甲戌(1874)謝恩兼冬至行首譯吳慶錫聞見事件

① 慈安端裕康慶皇太后 壽陵定于普祥峪 慈禧端佑康頤皇太后 壽陵定于菩陀峪 兩峪皆在遵化州 定陵之東 地勢雄秀 山川環抱 皇帝奉兩宮皇太后 親臨審視 定為萬年吉地 現方興工是白齊

② 甘肅省回逆 馬文祿 馬桂源等 自咸豐十年以來 竊踞肅州城 兇悍殘賊 殺害漢民 三四萬名 擄辱婦女 不計其數 于今十餘載 逆燄益熾 勢極披猖 陝甘總督 一等恪靖伯 左宗棠 與將軍 金順等 率師攻圍 自上年七月初一日 至九月二十三日 迭獲勝捷 殲滅兇逆 克復堅城 一律平定 奏凱之日 特沛殊恩 用昭懋賞 左宗棠 著以陝甘總督協辦大學士 其前經賞給騎都尉世職 著改為一等輕車都尉世職 金順 徐占彪 等出力各員 分別優獎 以彰勞勩是白齊

③ 圓明園修理之役 現方動工 而上諭兩宮皇太后 保佑朕躬 親裁大政十有餘年 劬勞倍著 而尚無休憩遊息之所 以承慈歡 朕心寔為悚仄 是以諭令 內務府大臣 設法修葺 以備聖慈燕憩 用資顧養 但物力艱難 事宜從儉 不得過于華靡 云云是白齊 同治十三年(1874)三月三十日”

묘 장소를 고르는 사건이다.

- ② 두 번째 문건사건은 陝甘總督 左宗棠과 將軍 金順 등이 甘肅省의 馬文祿 · 馬桂源 등을 위수로 하는 回族 반역당들을 크게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어 군공이 있는 군신들을 크게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 ③ 세 번째 문건사건은 圓明園을 수리하여 慈安太后와 慈禧太后가 만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오경석이 임금께 올린 문건사건은 모두 3가지인데 이들 중 2가지에서 자희태후를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자희태후의 동향에 오경석이 남달리 민감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청 왕조의 실권을 자희태후가 꼭 잡고 있으니, 그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경석은 청나라 내부의 최고지도층 지각변동을 감지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조선임금께 사실대로 고했던 것이다. 동치13년(1874) 이해 동치제는 18세이다. 자희태후는 수렴청정을 멈추고 歸政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동치제는 圓明園을 수리한 후 자희태후더러 만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함으로써 자희태후의 그늘에서 떨쳐나와 독립하고자 했지만 동치제는 자희태후의 그늘에서 나오기도 전 1874년 음력12월 5일에 숨을 거두게 된다. 1861년 수렴청정을 시작해서부터 1908년 죽기까지 청왕조의 최고 권력은 한시도 자희태후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 같은 자희태후를 멀리서 시시각각 예의주시하던 조선 인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훌륭한 스승 李尙迪이 키워낸 걸출한 외교관 吳慶錫이었던 것이다.

VII. 결 론

'吳慶錫은 북경에서 만난 청나라 인사들과 어떤 방면의 교류를 했으며, 어찌하여 그는 역관을 넘어 걸출한 외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연구 과정을 거쳐 얻어낸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오경석은 12차례 사행을 다녀온 경험 있는 역관이다. 단지 그 사행 차수만을 보더라도 그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오경석은 역관이다. 그러므로 그는 漢語 회화를 유창하게 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오경석은 북경에서 중사들과 직접 대화의 형식으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나라 인사들과의 사림에 있어서 정사 · 부사 · 서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人情적 교류가 용이했을 것이다.

오경석의 아들 吳世昌은 오경석이 북경에서 교류했던 중사들이 보내온 서신들을 모아 『중사간독첩』을 제작하였다. 『중사간독첩』이 존재했기에 북경에서 진행되었던 오경석과 청나라 인사와의 교류 상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중사간독첩』을 확인한 결과 오경석과 청나라 인사와의 교류는 書畫 · 金石 · 印章 · 人蔘 · 骨董品 등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교류는 극히 사적이고 선비적이며, 학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오경석은 학술 방면에서는 金石, 예술 방면에서는 墨梅, 인정 방면에서는 人蔘을 매개로 삼아 청나라 중사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그 결과 오경석은 조선금석학사상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고증이 가장 엄밀한 『三韓金石錄』을 편찬하기까지 이른다. 또 오경석 스스로 항상 자랑으로 생각하던 墨梅는 중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결국 오경석을 대표하는 상징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인삼은 오경석과 청나라 인사와의 정의를 돈독히 해 주는 데 그 진가를 충분히 발휘했다. 오경석은 이처럼 중사와 함께 향유하고, 토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는 이를 매개로 중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넓은 교류망을 구축해 왔던 것이다.

『중사간독첩』을 고찰한 결과, 사행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오경석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인적교류망은 의도된 작전 하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단지 학문과 예술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인적 교류망이었던 것이다. 오경석이 학문과 예술을 매개로 하여 폭 넓은 인적교류망을 구축해 왔다고 하지만, 그가 그동안 사귀어왔던 중사들은 대부분 청나라 漢人 인사들이었고, 이 같은 청나라 漢人 인사들은 단지 예술과 학문 방면에 서만 오경석에게 지대한 도움을 줬을 뿐이었다. 당시 청나라의 重滿排漢 정책으로 인해 漢人 중사들이 관직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들 그들의 관직은 실권이 없는 虛職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경석의 사행 중기까지만 해도 漢人 중사들은 오경석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1861년 함풍제가 죽고, 동치제가 황위를 물려받으면서 청나라 정치 판도에는 커다란 지각변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름 아닌 자희태후의 정치 무대 등장이었다. 辛酉政變을 통해 8大臣을 물리치고, 국가최고 권력을 장악한 자희태후는 수렴청정을 실시하게 된다. 어렵게 얻은 권력을 지켜내고, 동시에 태평천국운동을 비롯한 국내 농민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자희태후는 漢人重用政策을 실행한다. 자희태후의 이 정책으로 인하여 曾國藩을 위수로 하는 漢人 군벌세력이 점차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대거 漢人들이 정부 요직에 나아가게 되었고, 실권을 장악하고는 국가정책 제정에 자신의 소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자희태후의 한인중용정책으로 인해 漢人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봄이 찾아 왔던 것이다. 오경석이 그동안 교류하던 청나라 漢人 인사 중에도 한인중용정책의 덕을 본 사람 있었다. 예를 들면 潘祖蔭 · 萬青藜 · 王軒 등을 들 수 있다. 실권 장악과 요직에서의 근무로 인해 漢人 중사들은 더 많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漢人 중사들과 가까이 지낸 조선 인사로는 그 당시 오경석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오경석만이 漢人 중사들로부터 더 많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1866년 프랑스 동양함대가 조선을 침공함에 오경석은 漢人 중사 王軒 · 萬青藜 · 張丙炎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정확하고 많은 군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조선을 위기에서 구출해 낼 수 있었다. 나라의 망국운을 막아낸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오경석은 조선말기 動盪과 암흑의 시기에 역관을 넘어,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걸출한 외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의 결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오경석은 역관이자, 외교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췄다. 어려서부터 스승 李尙迪으로부터 詩 · 書 · 畫 · 譯 등 각 방면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역관 · 외교관으로서의 탄탄한 기본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직책이 역관이기에 오경석은 漢語 회화가 유창하다. 이 같은 장점을 앞세워 북경에서 오경석은 三使에 비해 더욱 쉽게 중사와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당시 조선 집권층의 신뢰를 얻었다. 대원군에게 보낼 서신이 있을 때면 중사들은 주로 오경석에게 부탁하였다. 이 같은 대목을 통해서도 오경석에 대한 대원군의 신뢰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오경석이 12차례의 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實勢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셋째, 12차례의 사행을 통해 많은 중사들과 사귀어 폭 넓은 인적교유망을 형성하였다. 『중사간독첩』을 고찰한 결과, 오경석과 중사와의 교류는 주로 학술과 예술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오경석의 넓은 인적교유망 형성은 의도된 계획 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1861년 전까지만 해도 오경석과 교류하던 대부분 중사들은 학술 · 예술을 제외한 기타 방면에 대해서는 오경석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없었다.

넷째, 자희태후의 수렴청정과 한인중용정책. 1861년 자희태후의 수렴청정과 한인중용정책으로 인해 曾國藩을 為首로한 漢人 군벌세력이 국가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차츰 漢人 중사들이 각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중엔 오경석과 친분이 있던 萬靑藜 · 潘祖蔭 · 王軒 등 漢人 중사가 있었다.

다섯째, 외세의 조선 침략. 1866년 프랑스 동양함대의 조선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오경석은 萬靑藜 · 王軒 등 당시 군부요직에 재직 중인 漢人 중사를 찾아가 대처법을 의논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 동양함대를 물리치는 쾌거를 거두었다.

여섯째, 걸출한 외교관의 탄생. 위의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구비했기에 오경석은 動盪과 암흑의 시기에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걸출한 외교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은주. (2004). 오세창 관련 유물, 후손이 예술의전당에 기증. 서울=연합뉴스. 검색일자: 2013.1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0648068>

김현권. (2011). 오경석과 淸문사의 회화교류 및 그 성격. 『강좌미술사』, (37), 213-237.

大韓民國文敎部國史編纂委員會. (1978). 『同文彙考』. 翰進印刷公社.

徐慶淳. (朝鮮 철종). 『夢經堂日史編』. <韓國古典綜合DB>자료인용. 검색일자: 2013.10.10.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KO&seojiId=kc_ko_e009&gunchaId=av002&munchId=01&finId=011&NodeId=&setid=4487290&Pos=0&TotalCount=1&searchUrl=ok

신용하. (1985).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107-187.

오경석. 『中士簡牘帖』. (개인소장 복사본).

오세창. (1968). 『槿域印藪』. 大韓民國國會圖書館 .

——— 편저, 洪贊裕 감수, 東洋古典學會 국역. (2007). 『국역 근역서화징』. 시공사.

정후수. (2010). 北京 人蔘局 空間 活用 : 19世紀 韓中 人士의 交流를 中心으로. 『우리어문연구』, (38), 7-35.

———. (2012). 晚淸 人士들이 李尙迪에게 전해 온 無聲의 메시지 : 奉明反淸 意識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46), 149-170.

———. (2013). 1863년 辨誣 解決 過程으로 본 李尙迪의 눈물. 『東洋古典研究』, (52), 199-228.

허경진. (2008). 『朝鮮의 르네상스인 중인』. 서울: 랜덤하우스.

2. 국외문헌

陳捷先. (2011). 『慈禧寫真』. 商務印書館.

楚雙志. (2003). 『慈禧太后』. 民族出版社.

董文渙(清)編著、李豫(中國)·崔永禧(韓國)輯校. (1996). 『韓客詩存』. 北京：書目文獻出版社.

顧廷龍. (1992). 『清代硃卷集成(二四三)』. 臺北：成文出版社.

郭廷以. (2009). 『近代中國史綱』. 上海市：格致出版社.

胡一民. (1992). "歲寒二友". 中國花卉報. 검색일자: 2013.10.10.

http://news.china-flower.com/paper/papernewsinfo.asp?n_id=119827

簡又文. (1935). 『太平軍廣西首義史』. 上海市：上海書店出版社.

金滿樓. (2009). 『女人當國』. 北京市：中國友誼出版社.

金毓紱. (1985). 『遼海叢書·皇清書史·卷十五』. 沈陽：遼沈書社.

李潛之. 『清代傳記叢刊·藝林類⑫·清畫家詩史(三)』. 臺北：明文書局印行.

李玉安、黃正雨. (2005). 『中國藏書家通典』. 中國國際文化出版社.

李周望等. (1969). 『明清歷科進士題名碑錄』. 臺北：華文書局.

劉奇. (2004). 解開慈禧童年之謎：慈禧本是長治漢家女. 『山西檔案』, (2), 47-51.

———. (2008). 『慈禧身世』. 中國社會出版社.

劉爲珍. (2006). 『走進桃花源』. 北京：作家出版社.

馬建農. (2006). 『琉璃廠』. 北京市：北京出版社.

茅家琦. (1992). 『太平天國與列強』. 南寧市：廣西人民出版社.

寧志奇. (2008). 『綿竹文物選粹』. 成都：四川美術出版社.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研究室編寫. (1996). 『中國近代不平等條約彙要』. 北京市：中國民主法制出版社.

四川省豐都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豐都縣志』. 成都：四川科學技術出

版社.

孫殿起. (2010). 『琉璃廠小志』. 上海：上海書店出版社.

萬柳. (2011). 『清代詞社研究』. 鄭州：中州古籍出版社.

王鴻鵬等. (2004). 『中國歷代探花』. 北京：解放軍出版社.

王鍾翰點校. (1987). 『清史列傳·卷七十三·文苑傳四』. 北京：中華書局出版.

徐潛. (2001). 『中國掌故大觀』. 北京：北京出版社.

徐世昌. (1988). 『晚晴簃詩匯』. 中國書店出版社.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編. 『續修四庫全書·七五一·史部·職官類·樞垣記略
(卷一九)』. 上海：上海古籍出版社.

楊立誠、金步瀛. (1987). 『中國藏書家考略』. 上海市：上海古籍出版社.

張鳴珂著、丁義元校點、唐金海復校. (1988). 『寒松閣談藝瑣錄』. 上海：上海
人民美術出版社.

張壬士. (1983). 『木瀆小志』. 臺北：成文出版社.

張撝之、沈起煒、劉德重 主編. (1999).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上海
古籍出版社.

朱力. (2004). 『近現代名家篆刻』. 上海：上海辭書出版社.

朱汝珍輯. 『清代傳記叢刊·學林類⑱·詞林輯略』. 臺北：明文書局印行.

ABSTRACT

Studies on cultural, material and socio-political
communications of Oh Kyungsuk with Chinese scholars in the
mid and late 19 century : Based on 『Zhongshijiandutie』

Lee, Moon-Hao

Major in Korean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this thesis on Oh Kyungsuk, an official interpreter of the late Choson Dynasty, I examine Oh's role as a diplomat, which was outstanding but quite unknown to the public. My analysis is based on the 277 letters between Oh Kyungsuk and 43 Chinese scholars in more than twenty years.

This thesis is basically composed of two parts: studies on Oh's non-political communication with Chinese people of various social classes, and political communication with influential Chinese scholars and government officials. Non-political communications with Chinese scholars made Oh to become a non-official diplomat. This was possible because Oh's Chinese friends of decades became influential government officials of Qing after 1861, due to the policy of Empress Dowager Cixi to give

non-Manchurian Chinese important positions. Through his friends, Oh became to get high quality information, which benefit the national interest of Choson. Considering the unique relations of Choson and Qing throughout history but particularly in Oh's period, Oh's role as a diplomat was huge.

This thesis adds new dimension to the exiting scholarship on Oh Kyungsuk by revealing his unknown role as a diplomat. This thesis advances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of the late 19 century, by revealing the cultural, material and socio-political communications between Chinese and Korean scholars in the mid and late 19 century, and also by showing the political, military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oson and Qing.

【Key Words】: Oh Kyungsuk(吳慶錫), Lee Sang-Jeok(李尙迪), Choson Dynasty, Middle-class men, Official interpreter, Diplomat, 『Zhongshijian dutie(中士簡牘帖)』, 〈Tianzhuzhaitu(天竹齋圖)〉, Epigraphy, Signet, Ginseng, Bookstore, Restaurant, Chinese scholars, Korean scholars, Qing Dynasty, Empress Dowager Cixi, Policy of assigning non - Manchurian Chinese to important position.